

碩士學位論文

美國의 多文化主義에 관한 研究

2003年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地域學科

美洲地域專攻

金 容 植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柳賢相

美國의 多文化主義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Multiculturalism of United States of
America

2002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地域學科

美洲地域專攻

金 容 植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柳賢相

美國의 多文化主義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Multiculturalism of United States of
America

위 論文을 地域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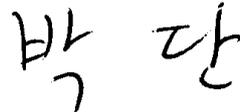
國際地域學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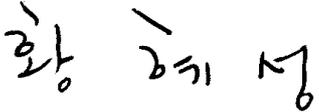
美洲地域專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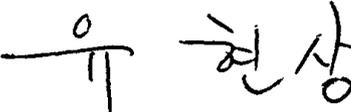
金 容 植

金容植의 地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定함

2002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審査委員  

審査委員  

目 次

國文抄錄 …v

제I장 序論 …1

제1절 問題의 제기 …1

제2절 研究의 범위 및 방법 …4

제II장 理論에 관한 일반적 고찰 …6

제1절 文化의 기초: 人間 …6

제2절 文化에 대한 進化論的 考察 …9

1. 文化의 概念 …9

2. 文化 進化論 …11

제3절 소수집단의 葛藤과 다원주의 社會이론 …12

1. 소수집단 …12

2. 人種과 生物學 …14

3. 種族的 葛藤, 편견과 차별 …15

4. 다원주의 社會이론 …16

제4절 多文化主義의 개념 …17

제III장 美國 多文化主義의 발전과정 …19

제1절 美國의 理念에 대한 歷史的 考察 …19

1. 초기 아메리카의 淸教徒主義 …19

2. 啓蒙主義 사상과 實用主義 …21

3. 自由主義와 平等思想 …23

4. 자연주의의 人種差別主義: 민주주의의 多元主義 …26

- 제2절 移民 民族集團간의 文化的 葛藤 …32
 - 1. ‘느슨한 美國’의 출발: 북유럽 이민집단의 차이 …32
 - 2. 美國의 膨脹과 分裂: 아일랜드 이민집단의 葛藤 …36
 - 3. 美國으로의 꿈: 移民洪水와 ‘도가니 文化’ …40
 - 4. 美國과 世界大戰: 소수민족 및 유색인종 葛藤 …47
- 제3절 美國 飲食文化의 발전 …52
 - 1. 초기 開拓者들과 土着人들의 飲食文化 교류 …52
 - 2. 유럽 각국 料理들의 융화 …55
 - 3. 郷土飲食의 발전 …59
 - 4. 大衆飲食의 특성 …60
- 제4절 美國 多文化主義의 生成에 관한 논의 …62

제IV장 多文化主義의 영향 …68

- 제1절 自由와 平等에 관한 제도적 개선 …68
 - 1. 개인의 自由를 위한 인권헌장 수정 …70
 - 2. 인종차별 폐지와 소수민족의 동등한 보호 …71
 - 3. 宗教의 자유 …73
 - 4. 알 권리와 사생활의 권리…74
- 제2절 社會복지정책의 개선 …75
 - 1. 美國의 신 자유주의적 정치문화 …75
 - 2. 美國의 계급 및 社會갈등 구조의 조정 …76
- 제3절 美國 對外政策의 재정립 …77
 - 1. 美國 外交政策 전통에 대한 고찰 …77
 - 2. 탈냉전기의 安保政策 : 단일 패권주의 추구 …81

제V장 結 論: 美國 文化의 비판과 多文化主義의 전망 …83

參 考 文 獻 …90

英 文 抄 錄 …94

圖 表 目 次

圖 目 次

- <圖 3-1> 美國인구 중 외국태생 비율 ...27
- <圖 3-2> 少數民族의 기간별 합법移民 ...42
- <圖 3-3> 少數民族 거주비율 ...52

標 目 次

- <標 4-1> 시민자유의 국가별 순위(많은 나라에서 적은 나라) ...69

美國의 多文化主義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Multiculturalism of United States of America

國際地域學科 金容植
指導教授 柳賢相

본 論文의 연구중점은 美國 理念의 역사적 변천추이를 분석하고 다양한 移民集團의 文化로부터 美國 文化가 어떻게 영향을 받아 多文化主義로까지 발전되어왔는가 하는 점을 탐구하는 데에 두었다.

多文化主義는 美國社會에 항상 존재해 왔지만 지배문화의 억압으로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종족적, 성적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을 배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美國은 초기엔 植民地(州)별로 각 북부유럽의 이주민족들에 의해, 별개의 국가형태를 유지해 文化的 融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독립전쟁, 인디언투쟁 및 서부개척이 ‘느슨하지만 하나의 美國人’이라는 동질감을 주었다. 2차 대전까지 美國은 WASP(White Anglo Saxon Protestant)에 의해 주도되어왔다. 이들의 選民思想, 명백한 숙명(Manifest Destiny)에 대한 신념은 타 종족에 대한 우월감으로 작용, 새 이민집단과의 문화적 갈등을 일으켜왔다.

아일랜드 및 독일계 이민집단들에 대한 토착주의자들의 星條旗團, 無知黨(美國黨)등의 반발은 南北戰爭이라는 국가분열 위기로 유보되었다. 南北戰爭 이후 경제부흥으로 촉발된 남동부 유럽인들의 移民洪水를 비롯한 여러 민족의 移住에 토착주의자들의 저항이 계속되었다. 미국보호협회, KKK(Ku Klux Klan)등은 지식인 호응에 고무되어 19세기말, 반 카톨릭, 반 이민운동을 주도하였으나 단기간 수많은 民族의 이주로 이전과 같은 결집된 행동은 불가능했다.

스페인전쟁을 계기로 美國은 국제주의로 전환, 중남미와 태평양으로 팽창

하였고, 이 시대 개혁성향 중산층들이 反 移民運動에 회의적이면서 ‘도가니 (Melting Pot) 文化’가 제기되었다. 각 소수 이민집단들의 다양한 文化要素를 앵글로색슨의 문화를 토대로 한 ‘美國이라는 도가니’ 속에 용해시키면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의 美國人’이 생성되리라 믿었다. 이 개념은 소수민족에 의한 미국사회 분열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유럽백인의 새 이민 집단에 한한 概念으로 유색인종은 배제되었다.

1차 대전으로 독일계 이주민의 피해, 黑人 위상변화에 대한 WASP들의 差別로 인종폭동이 있었다. 1920년대 보수주의 부활은 남동부 유럽인 移民洪水를 막는 移民法을 제정하나, 중남미 移民을 부추기는 결과도 낳았다. 1929년의 대공황의 국가적 위기와 전쟁으로 ‘전통적 토착주의자들의 저항’은 사라졌다. 백인들 간의 종교적 문화적 편견, 종족적 차이는 그 의미를 잃었다. ‘할렘 르네상스’운동과 가비등의 영향으로 黑人들의 주체의식이 고양되었고, 도스법(Daws Severaly Act)을 폐지 인디언 재조직법이 제정되면서 인디언 融和主義에서 多元主義로의 전환되었다. 동양인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달랐다. 1882년 중국인 배척법으로 중국인 이민이 금지된 후 동양 이민 주류는 일본인이었으나,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으로 아시아인 감정이 악화되었다. 진주만 공습으로 일본계 미국인이 집단수용소에 隔離되기도 하였다.

2차 世界大戰에서 美國은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를 굳혔다. 전쟁간 自由主義 理念의 수호라는 공동의 목적에 共感하면서 백인 美國人끼리는 종족, 종교, 및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같은 國民意識을 갖게 되었다.

1960년대의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흑인 인권운동, 베트남전 개입은 美國의 理念에 대한 自省의 계기가 되었다. 소수 민족과 토착 백인들간 文化的 葛藤, 黑人 및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적 偏見을 통해 미국 젊은이들은 지금껏 배워온 美國의 理想과 실제 社會現象과의 괴리를 자각하였다. 이들의 美國 자본주의와 과학주의, 이기주의에 대한 批判으로부터 시작된 ‘反 文化運動’으로부터 성적·인종적·계층적 갈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게 되었다. 이로부터 ‘도가니 文化’의 개념이 지향하는 美國 文化의 동질성에 의문이 제기하면서 지금껏 소외되었던 토착 인디언과 黑人을 비롯한 소수인종 및 민족·여성·노동계층 등 주변부 集團文化 정체성의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제I장 序論

제1절 問題의 提起

북아메리카에 위치한 대륙국가인 美國은 인접한 적성국가를 갖지 않은 천혜의 환경 속에 국력을 키워 건국후 불과 1세기 반만에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하였다. 美國의 이러한 눈부신 도약은 어느 인류사회에 있었던 것보다도 신속하고 위대한 성과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제2차 世界大戰 이후의 冷戰期間 중에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선도하여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과의 理念競爭에서도 승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共產主義가 지구상에서 사라진 오늘의 탈냉전 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단일 霸權國家로서 국제질서를 주도해가고 있다.

이러한 美國의 국력신장 과정을 살펴보면 이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몇 가지 독특한 特性을 보인다. 우선 이 나라 국민들은 舊 世界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과 아메리카의 광대한 토지와 천연자원 등의 환경여건은 신생 美國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첫째 特性이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과 인적 조건이 오랫동안 종교와 문화적 전통이 다른 移住民들간의 생존경쟁을 완화해 왔고, 내륙의 풍부한 천연자원이 생산증대와 인구증가를 동시에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방, 자유, 기회의 땅에 自由와 平等을 토대로 한 프런티어(Frontier) 정신을 창출하였고 지속적인 번영의 신화를 형성해 갈 수 있었다.

또 하나의 特性은 英國이나 프랑스와 같은 유럽의 강대국과는 달리 혁명을 거치지 않고 民主主義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이다. 유럽 봉건제도의 유산인 신분적 차별 없이 社會的, 經濟的 平等이 가능했던 초기 移住民들은 근면하고 활동적인 淸教徒主義와 공개토론의 傳統을 계승할 수 있었다. 이들은 영국 민주혁명 과정의 학습과 교훈을 토대로 자신들에 적합한 새로운 형식의 自由를 창조하였다. 결과, 이 나라 建國 조상들은 혁명이나 유혈사태를 겪지 않고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憲法을 제정하였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마지막 特性 중의 하나가 본 論文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로써, 다양한

人種, 民族, 및 宗教가 어우러진 多文化社會(multicultural society)로 구성된 점을 들 수 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 1441-1506)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전, 그 곳에는 이미 인디언이 농경문화를 이루고 있었다. 英國이 아메리카를 植民地로 개척함과 동시에 프로테스탄트(Protestant)¹⁾와 카톨릭 등 유럽의 宗教와 文化가 美國에 정착하였다. 이어 南部의 면화재배를 위하여 수입된 黑人 노예들로부터 흑인문화가 유입되었고, 美國의 경제적 성장과 번영에 의해 移民隊列에 뒤늦게 끼어 든 아시아계, 히스패닉계 등 少數民族들의 文化가 합류했다.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부터의 이민집단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인 美國의 文化는 세계 여러 人種, 民族, 및 宗教와 연계되지 않을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特性, 즉 다양한 종족간의 文化的 差異는 종종 선민사상에 도취된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²⁾와의 갈등을 야기해 왔다. 이는 國民的 合意를 도출해 내는데 걸림돌이 되어 효율적인 國家政策의 수행을 어렵게 했던 점 또한 사실이다.

다양한 文化와 역사적 배경을 가진 移住民들이 文化的 葛藤을 극복하고 하나의 國民으로 융화해 가는 과정에서 美國의 多文化主義는 생성되어 왔다. 이러한 多文化主義를 바탕으로 소수 민족간의 이질적인 文化와 상이한 역사적 배경들을 이해 수용하여 國家理念과 傳統을 수립해 감으로써 美國國民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美國이 超 強大國으로 도약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유럽중심의 國際秩序에 휘말리지 않고, 自由民主主義 체제하의 독특한 文化와 국력 계발에 전념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大韓民國 정부 수립 후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나라가 美國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美 軍政과 정부수립과정을

1) 종교개혁의 결과로 성립된 기독교의 신교도에 해당되는 여러 분파와 그들의 세부 분파 그룹을 망라하는 용어임. 이들 분파에는 장로교, 침례교, 루터교, 감리교 등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들을 참고. 앙드레 모로아, 신용석(역), 『미국사』(서울: 기린원, 1998), pp.46-55.; 신성철·박의재·신두호, 『미국문화와 영국문화』(대전: 문경출판, 2002), pp. 204-212.

2) 미국의 초기 이민자들로 미국사회의 중심세력이 되어온 그룹을 말하며 지금껏 미국사회를 주도하고 있다. 즉 영국계 앵글로-색슨족의 백인들 중 개신교 기독교인을 일컫는 말이다. WAS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서적을 참조할 것. 오치 마치오, 곽해선(역), 『와스프-미국의 엘리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서울: 살림출판, 1999).

통해,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軍事同盟과 經濟協力の 틀 속에서,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문제 등 부분적인 마찰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우리와 美國과의 관계는 견고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韓·美간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특히 지난 50여 년 동안 두 나라는 인적, 물적, 학문적 교류를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상호 이해의 폭은 비교적 넓어졌다. 그러나 美國이라는 나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의 폭은 만족스러울 만큼 넓혀지지 못한 채 제 자리를 견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는 우리의 分斷과 冷戰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美國과 美國人을 선악의 이분법적 논리로 評價해온 경향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脫 冷戰의 국제적 조류 속에서 分斷을 극복하고 민족번영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우리와 절대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美國의 對外政策 및 役割 변화의 추이에 대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의 깊은 關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美國 사회 및 文化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研究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진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學界의 연구 성과는 그 필요성과 국민적 관심도에 비해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 美國文化 연구 실적마저도 WASP를 중심으로 한 白人文化 위주로 이루어져 왔을 뿐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곧 美國文化는 白人文化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종전의 美國 學界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데에 그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美國 역사의 전제였던 美國文化의 독특함과 단일성에 대한 假定과 믿음을 바탕으로 연구되었던 종전의 경향은 현재 美國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현재의 연구 경향은 아메리카 土着民과 黑人을 비롯한 小數人種과 민족, 여성, 노동계층 등 주변부 集團의 정체성 연구 및 이들 文化集團들 간의 관계 혹은 각 집단과 主流 文化간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³⁾ 우리 學界에는 美國 내 소수민족의 文化를 포함한 개별 文化의 獨自性을 수용하고 이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美國 多文化主義에 관한 學位 論文이 아직 한 편도 나오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論文이 만족할만한 연구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美國 多文化主義에 대해 그 발전

3) 정 상준, “포스트 모더니즘, 실용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 미국학연구소(편), 『미국사회의 지적흐름- 정치·경제·사회·문화』 미국학총서I,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8), p. 342.

과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考察을 시도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意義가 적지 않다고 본다. 또한 본 論文은 美國의 多文化主義에 대한 이론적 진화과정과 少數民族의 文化的 特徵을 飲食文化의 分析을 통해 考察해 봄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아울러 본 연구의 多文化主義의 영향과 미래의 전망 부문은 우리 정책 입안자들이 美國 對外政策의 變化 추이를 分析하는데 참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美國의 多文化主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본 論文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문제를 규명하는 目的을 가지고 있다.

첫째, 人間과 文化의 관련성 검토와 文化의 進化論을 연구 해 봄으로써 多文化主義에 대한 개념을 규명해 본다.

둘째, 美國 多文化主義의 발전과정에서 독립혁명 理念과 美國人들의 價値觀 및 文化的 傳統이 다양한 移民集團의 文化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게되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각 민족 고유의 飲食, 宗教 및 예술 등의 영향까지를 망라하여 고찰해 본다.

끝으로, 多文化主義의 영향에 의해 美國 사회의 제도 및 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었는가를 고찰해보는 것이다.

제2절 研究의 範圍 및 方法

多文化主義에 관한 연구는 美國의 정치제도, 경제상황, 종교 및 교육, 이념, 예술 및 역사적 특수성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여 다각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종전의 多元主義적 입장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개별 文化集團 간의 접촉에서 문화적인 믿음, 가치, 및 의미가 어떻게 타협되며, 미국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완벽히 규명해 내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따라서 본 論文은 연구기간 제한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美國 多文化主義를 개별 문화 집단간의 상호 관련성보다는 그 發展過程을 추적하는데 重點을 두고 탐구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美國의 理念과 文化的 傳統이 계속되어진 소수민족의 移民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조사해 볼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민족들의 고유 飲食이 어떻게 美國

의 飲食文化에로의 융화되어왔으며 또한 美國文化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美國의 理念 및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세계 단일 패권 국가로서 미국이 취할 21세기 대외정책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美國의 多文化主義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종문헌과 역사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특정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에서 제기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論文에서는 우선 文獻調査에 의한 서술적 방법을 중심으로 하여 美國文化에 관한 전문가들의 국내외 叢書들과 論文, 그리고 각종 시사지를 수집 검토하였다. 아울러 역사적 고찰에 의해 개별 사실들을 분석 검토하였다. 아울러 文化의 進化論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위해 저명한 인류학자 레스리 A. 화이트(Leslie A. White)의 文化進化에 관한 이론을 참고하였다. 이 理論은 多文化主義 발전과정의 종합적 분석을 위한 指針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본 研究를 위한 참고문헌은 서울대학교 미국연구소의 미국 사회의 지적 흐름을 비롯 국내외 각 출판사에서 발행한 각종 美國文化 및 역사에 관련된 서적 및 국내외 연구기관의 연구논문집과 각종 간행물들을 활용하였다.

본 論文의 구성은 제1장에서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文化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多文化主義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제3장에서는 美國 多文化主義의 발전과정을 美國의 理念과 文化的 傳統, 초기 美國文化의 유입기원을 역사적 사실에 의거 탐구하였다. 이어서 소수민족의 移民에 의한 多元主義 대두 배경을 분석하고, 아울러 美國의 飲食文化의 정착과정의 고찰을 통해 多文化主義의 발전과정을 이해하였다.

제4장에서는 多文化主義의 영향으로 美國 社會의 발전적 변화 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결론에서는 美國의 多文化主義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見解를 소개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多文化主義의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본 論文을 마무리 지었다.

제Ⅱ장 理論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文化의 기초: 人間

인간은 동물이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 중에서도 독특한 하나의 동물이다. 모든 種(species) 중에서도 인간만이 象徴力이라 부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象徴力이란 外界의 사물과 사건들(things and events)에 자유롭게, 또한 인위적으로 의미를 창작하고, 결정하며, 부여하는 능력이며, 또한 그런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⁴⁾ 인간은 象徴行爲를 하는 한 동물이다. 文化는 의미있는 象徴行爲에 의하여 가능하다. 모든 정의는 과학적 타당성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象徴行爲와 관련하여 文化를 정의하고 있다. 文化없는 인간이란 있을 수 없고, 인간 없이는 文化란 있을 수 없으므로 인간과 文化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文化는 象徴行爲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하다. 인간과 다른 동물과 식물들도 사회조직을 가지고 있다. 해리라는 동물은 땀을 뺀다 하며 원숭이類도 도구를 사용하고 복잡한 것을 이해한다. 인간과 가까운 몇몇 동물들은 智識과 思考力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동물들의 행위를 文化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種의 생물들의 사회조직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곰이라는 한 種 안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회조직을 찾아볼 수 없다. 곰들의 사회조직은 신체구조와 유전학적인 구성의 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인류에게 사회조직은 신체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文化'라고 부르는 한 외적이고 초 생물학적인 전통의 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류의 사회조직은 극히 다양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社會學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生物學의 한 분야로서 인간이외의 다른 種의 생물들의 社會學과, 다른 하나는 文化科學 또는 文化學의 한 分科로서의 인간의 社會學이다. 후자는 文化라고 부르는 외적이고, 초 생물학적이며 또한 초 유기체적인 전통의 작용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이것이 곧 인간의 社會組織과 모든

4) Leslie A. White, 이문웅(역), 『文化의 概念』 (서울: 일지사, 1996), p. 10.

다른 생물들의 社會組織간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⁵⁾

예컨대, 곤충들의 도구 사용은 거의 확실히 遺傳學적인 구조에 이미 고정 이 된 본능적인 것이며, 해리와 원숭이 類는 분명히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방도를 취한다. 인간이외의 다른 靈長類의 도구과정은 단절적일 뿐, 진보적이 아니며 축적적인 것이 아니다. 반면 인간의 도구과정은 주관적으로 연속적인 과정이며, 축적적이고, 또한 진보적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象徵行爲에 기인한다. 도구 사용과 象徵行爲 과정의 병합은 靈長類의 도구과정과 다른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든다.

인간이외의 생물들의 사회조직은 인간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도구과정도 또한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간은 概念을 다룰 수 있고, 뜻을 잘 표현하는 말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概念을 조작할 수도 있다. 文化와 인간이외의 동물의 社會組織 및 도구 사용과의 유사성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단지 표면적 유사성에 불과하다.

오랫동안에 걸친 생물학적인 進化의 경로를 거쳐 靈長類가 나타나게 되었고, 마침내 인간이 출현하게 되었다. 인간은 한 생물학적인 革命의 產物이었으며 생물학적 變化에 있어서 점진적일 뿐만 아니라 革命적인 變化이며 이 과정에 의하여 태어났을 때, 文化가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象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사용한 결과이며 象徵行爲의 중요하고도 특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말의 사용과 함께, 전 세계는 분류되고 概念化되며, 언어로 표현된다. 뜻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을 가져야 모든 生物學的인 그리고 社會學的인 관계들을 분류할 수 있는바, 이것이 곧 인간에게서 실현된 것이다.⁶⁾

知識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인간 이전의 靈長類가 가졌던 知識이 말로 표현되게 되었고, 주관적인 概念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언어는 쉽고 융통성 있는 의사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知識의 축적뿐만 아니라 傳承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하여 象徵行爲와 뜻을 잘 표현하는 말은 사회조직과 경제제도를 창조하고, 도구과정을 발전적이고 축적적인 과정으로 바꾸고, 또한 知識의 전통과 信仰을 창조하며 나아가 의식, 의례 등도 창조된다.

5) 상계서, p. 27.

6) 상계서, pp. 28-29.

그렇다면 文化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의 기능은 무엇인가? 文化의 기능은 인류에게 생존을 안전하게 해 주고 영속시켜 준다. 바로 그 기능은 동물학적 기능으로 사람은 한 동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이므로 생물학적인 것을 文化的인 것과 상관시키려고 노력하는 점은 人類學의 特徵들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한 文化的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文化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고, 생존을 안전하게 해주며 또한 지속시켜 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정신적, 심미적인, 또는 방어적인 욕구들을 포함하며, 그가 원하는 어떠한 의미나 價値라도 창조해내고 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즉 인간이 의미와 價値를 결정하거나, 적어도 이러한 의미와 價値가 概念과 말로서 표현되며 인간만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文化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인류의 文化는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 극히 다양하다. 어떤 文化든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며, 인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시간과 공간, 인종에 따른 세 가지 종류의 다양성을 구분해 낼 수 있다.⁷⁾

文化의 기원과 文化의 機能을 논하는 경우에는 인간유기체, 즉 인간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文化의 다양성은 인간유기체와의 관련 없이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따른 文化의 다양성은 인간유기체와의 관련 없이도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실제의 文化는 한 동물로서의 인간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는 이해될 수 없다. 文化의 기원에 대한 이해와 기능에 대한 이해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요한다. 인간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文化도 또한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은 그것 것이다. 이것은 文化科學에서 아주 근본적인, 한 命題라고 할 수 있다.

한 種의 동물로서의 인간과, 하나의 전체로서의 文化一般 사이에는 긴밀한, 그리고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인간에 대한 많은 이해가 없이는 文化의 기원과 기능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에 따른 文化의 다양성에 관한 한, 인간유기체를 고려하는 것은 文化의 '공존'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것이

7) 상계서, pp. 34-36.

지만, 그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제2절 文化에 대한 進化論的 考察

1. 文化의 概念

文化의 多樣性은 人種, 혹은 人間集團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人種이란 말은 생물학적인, 체질적인 특성에 기초하여 다른 集團으로부터 구분될 만한 人間集團을 가리키는 것이며, 人種에 따라서 또한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文化는 다양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人種에 따라서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지지해줄 만한 증거와 추론은 많으나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시켜줄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반면 세계의 가장 발전된 文化들 중 몇몇이 3대 人種, 즉 白人, 黑人, 그리고 黃人種의 모두에서 나타났고 또한 세계의 가장 하등문화들 중의 어떤 것이 이들 集團 각기 모두에서 발견되는 있음을 볼 때 人種과 文化간에 상관관계가 아주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 체질형 혹은 人種이 소유한 文化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또 변한다는 것은 인정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生物學的인 優越論을 뒷받침해 줄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또한 生物學的인 차이를 文化의 능력에 있어서 열세와 우세에 따라 설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文化와 人種간에는 아무런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믿어도 좋다. 그러나 모든 人種이 정신적인 능력 면에서나 기질적인 측면 등에서 꼭 같다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장소에 따른 多樣性 면에서 보자면 文化는 장소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모든 文化는 하나의 실재적이고도 현실적인 주거지역 속에 존재한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文化와 주거지역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많은 多樣性의 여지가 있다. 주거환경에 따른 文化의 多樣性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것을 두 가지, 즉 기후, 지지, 식

물지, 동물지 및 광물자원의 측면에서 본 環境과 위치하고 있는 場所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후자는 한 文化가 광활한 지역에 位置하고 있거나, 광활한 지역과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광활한 지역들 사이를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位置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것을 文化的인 多樣性의 지형학적인 차원이라고 불러도 좋겠다.⁸⁾

세계의 모든 지역이 기후, 지지, 식물지, 동물지 등의 측면에서 전적으로 같다고 하더라도, 文化들이 실제로 어디에 位置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文化發達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많은 文化들이 이용 가능한 자원중의 어떤 것을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적인 요소는 직접적인 環境의 영향보다도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⁹⁾

또한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文化的 多樣性을 보면, 같은 시기 안에서도 文化的 多樣性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文化發達과 文化전파의 결과로서 역사와 進化라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文化的 정체성과 민족중심주의적 特性을 간과할 수 없다.¹⁰⁾ 유럽의 文化的 시각으로는 美를 위하여 스스로 앞니를 부러뜨리는 태평양 군도의 관습이나, 매력적이기 위하여 입 사이에 판을 집어넣는 南美 부족의 관습은 기이할 것이다. 관습과 신념은 이를 구성하고 있는 보다 큰 文化와 분리하여 이해될 수 없다. 文化는 그 자체의 의미와 가치로서 연구되어야 한다. 文化 및 社會學者들은 가능한 자신의 文化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판단하는 民族中心主義(ethnocentrism)를 피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人間 文化는 다양하기 때문에 한 文化출신이 타 文化출신 사람의 행위와 관념에 공감하기는 어렵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文化的 概念을 정의하기 위해 人種, 장소, 시간에 따른 다양성을 논의하였으며 文化라는 용어를 단순하고 확연히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관습, 제도, 예술, 도구 등을 가리키는 한 단어로 사용해 왔다. 人類學에 있어서 文化的 概念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文

8) 상계서, p.45

9) 상계서, p.46

10) Anthony Giddens, 김미숙 외(역), 『현대 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1997), pp. 64-65.

化라는 단어는 인류학의 선구자인 영국인 에드워드 타일러(Edward B. Tylor)에 의해서 人類學에 소개되었고, 하나의 전문적인 용어로 되었다. 타일러는 그의 著書 『原始文化(Primitive Culture, 1871)』에서 그는 文化를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하여 얻어진 다른 能力이나 관습들을 포함하는 複合總體’로 기술하고 있다. 인간에게 독특한 것이고 인간과 다른 하등생물들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인간에 고유한 비 생물학적인 것이고, 비유전학적인 수단에 의하여 傳承되는 것이라고 했다.¹¹⁾

그러나 시간이 경과해서 科學이 성숙해짐에 따라 타일러의 文化의 概念은 많은 질문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과 반성, 토론 등을 거쳤으며 그 결과 정의와 概念들이 수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는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이중 文化의 몇 가지 주요한 概念들을 검토해 보면 하나는 文化란 마음속에 존재하고 概念들로써 구성되어 있다는 견해이고 또 다른 하나는 文化는 곧 행위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중 오늘날 미국의 인류학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文化의 概念은 文化는 행위가 아니고, 행위로부터 행위의 추상을 구별해야 한다는 즉, 文化는 한 추상적인 것이라는 개념으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2. 文化 進化論

進化論은 세 가지의 입장에서 文化에 적용할 수 있다. 첫째로, 人類文化 전체에 둘째로, 어떤 구분될 만한 人間集團과 어떤 구분될만한 지역의 文化에 셋째로, 한 전체로서의 문화체계 안에 있는 하위체계들에 적용할 수 있다.¹²⁾

文化進化論은 다윈 이래로 비 생물학적인 人類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였다. 文化進化論은 인간과 文化가 어떻게 나타났으며, 문화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과학적 이론이다.

文化進化에 대한 연구들은 1859년 『種의 기원』의 출판이래, 수십년 동안 文化人類學에서 進化論은 계속 발전했고 대유행을 누렸다. 文化進化論의 대

11) 이문웅(역), 전개서, p.50

12) 상계서, p.96

선구자로 『社會學의 제 원리』의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原始文化』와 『人類學』의 저자 에드워드 타일러(Edward B. Tylor), 『고대사회』의 저자 루이스 몰간(Lewis H. Morgan)을 들 수 있다.

반면 進化論에 대한 반대의 의견도 대두되었다. 進化學派에 대한 반대에는 과학적인 것과 비과학적인 것의 두 가지 종류의 이유가 있다. 과학적인 비판은,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文化的인 유사성은 전파에 기인하는 것이지, 인류의 심령적인 단일성에 기인하는 독립적이고 평행적인 發展이라는 것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과학적인 입장에서 進化論은 생물학으로부터 빌어와서 文化에 적용되었고 그것이 민족중심주의라는 점으로 모든 文化를 우리들 자신의 文化와의 유사성과 차이에 의거하여 일련의 서열을 매긴 것으로 주관적인 평가이고, 다른 평가기준에서는 여러 文化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배열될 것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¹³⁾ 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文化를 평가하고, 또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원시적인 것에서 개화된 것에서의 순서로 배열하는 수단이 되는 객관적인 基準이 있다. 기술적인 수단에 의한 자원과 자연의 힘에 대한 통제와 행사가 곧 그 基準이다. 그러나 과학적이고 進化論적인 理論들은 아직도 과학이전의 理論들을 몰아낼 만큼 충분한 힘과 무게와 기세를 쌓지 못했다. 오랫동안 과학이전의 反進化論적인 理論들이 지배적이므로 文化進化論을 전적으로 주장한다면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절 소수집단의 葛藤과 다원주의 사회이론

1. 소수집단

種族的 소수집단(minority groups)의 概念은 社會學에서 널리 사용된다. 또한 그 概念은 여러 가지로 사용된다. 통계적인 의미에서 많은 소수집단들이 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 붉은 사람이나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소수집단이 아니다. 社會學에서 소

13) 상계서, p.107

수집단은 다음과 같은 屬性을 지닌다.¹⁴⁾

1. 그 集團의 성원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한 差別을 통하여 불이익을 받는다. 差別은 권리와 기회가 모든 集團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集團에게는 허용되고 다른 集團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建物主가 특정한 사람이 서인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방을 세놓지 않는 경우이다.
2. 소수집단의 성원들이 어느 정도 ‘함께 所屬되어 있다는’ 집단적인 연대 의식을 갖는다. 偏見과 差別의 대상이 되었던 경험은 보통 공통의 헌신과 이해를 강화시킨다. 小數 集團의 성원은 흔히 자신들을 多數 사람들로 부터 떨어져 있다고 본다.
3. 소수집단은 어느 정도 육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 큰 공동체로부터 孤立되어 있다. 그들은 특정한 지방, 지역, 시에 몰려 있다. 그리고 소수집단과 다수집단 사이에 결혼은 매우 드물게 이루어진다. 소수集團 사람들은 그들의 文化的 特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집단내 결혼을 강조한다.

독일의 유대인이나 일본의 ‘부라쿠민(部落民)’¹⁵⁾들은 독특한 種族的 속성을 지닌 集團이다. 種族性(ethnicity)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文化的 行爲와 외양을 지칭한다. 種族의 성원들은 사회 내에서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문화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또한 그렇게 인식된다. 많은 다른 속성들이 種族 集團을 구분하게 하지만, 가장 평범한 것은 언어, 역사 혹은 조상, 종교와 의복과 장식 스타일이다. 種族的 差異는 모두가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항상 小數 集團은 種族的으로 어느 정도 대다수와 구분되지만, 그 差異는

14) 김미숙 외(역), 전개서, pp. 258-260.

15) 일본에 신체적으로 다른 일본인과 구분되지 않으며, 수백 년 동안 일본에 살면서 일본인 다수에게 경멸을 받는 소수집단. 봉건시대 지방영주간의 전쟁시 농토를 떠나 부랑자가 되었던 집단임. 특정지역에 살며, 천박한 직업을 강요받고 일반인과의 결혼도 금지됨.

변한다. 일본의 부라쿠민은 대다수 일본인들과 種族的 差異는 대단히 적다. 그들은 일본인과 외모가 같고 똑같이 행동한다. 그렇지만, 많은 小數 集團은 種族的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대다수 인구와 다르다. 예를 들어, 영국의 서인도 출신들과 아시아인들의 경우나 美國의 인디언, 黑人, 중국인과 다른 集團들이 그러하다. 피부색이나 다른 특성에서의 신체적 차이는 공통적으로 '人種的'이라고 불린다.¹⁶⁾

2. 人種과 生物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류가 生物學的으로 다른 人種으로 쉽게 구분될 수 있다고 그릇되게 믿고 있다. 학자들이 여러 차례 세계의 사람들을 人種으로 범주화하려는 시도를 했던 영향에서 비롯될 것이다. 어떤 학자는 4-5개의 주요 人種으로 구분하고 다른 학자는 36개 정도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사용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흔히 사용되는 구분은 黑人 人種이 피부가 검고 머리카락이 검고 곱슬 머리카락인 경우를 포함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原住民은 피부가 검지만, 머리가 곱슬이 아니며 때로 머리 색깔도 금발이다. 분명한 범주화를 할 수 없는 다른 많은 예들이 있다. 遺傳學의 발달로 類人猿부터 인종적으로 다른 發展을 해 왔다는 理論이 허물어졌다.

사람들 사이에 분명히 신체적 차이가 존재하고 어떤 차이들은 遺傳되지만, 어떤 차이들이 사회적인 差別과 偏見이 문제가 되는가 하는 문제는 생물학과 무관하다. 그러므로 人種的 차이는 種族的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공동체나 사회 성원들에 의해서 추출된 신체적 편차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머리 색깔은 유의미한 차이로 다루지 않지만 피부 색깔의 차이는 흔히 이러한 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다루어진다.¹⁷⁾ '人種主義(racism)'는 특정한 신체상의 외모를 지닌 개인들과 遺傳되는 인성이나 행동의 특성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人種主義자는 일정한 외모를 지닌 사람들이 소유했다고 생각되는 우월성이나 열등성이 生物學的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

16) 상계서, pp. 259-261.

17) 상계서, pp.261-262.

3. 種族的 葛藤, 偏見과 差別

‘人種’이라는 개념은 근대적인 것이지만 偏見과 敵對感은 오랜 역사를 통해 발견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社會學뿐만 아니라 心理學의 용어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偏見(prejudice)과 差別의 용어상 차이점을 구별해야 한다. 偏見은 한 집단의 성원이 다른 집단의 성원에 대해서 갖는 의견과 태도를 지칭하며, 差別은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을 지칭한다. 偏見은 흔히 직접적인 證據보다는 소문에 기초하여 개인이나 集團에 대해서 갖는 이미 결정된 견해를 고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 견해는 새로운 정보를 접함에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 않는 견해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동일시하는 集團에 대해서 호의적인 偏見을 가지는 반면, 그들이 반대하는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偏見을 갖는다.

差別은 다른 集團의 성원에게는 허용되는 機會를 특정한 集團의 성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지칭한다. 백인에게는 허용되는 일자리가 인디언에게 허용되지 않을 때, 差別이 발생한다. 흔히 偏見이 差別의 기초가 되지만, 偏見과 差別은 독립적일 수 있다.¹⁸⁾

種族的 葛藤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社會學的 概念으로서는 民族中心主義(ethnocentrism), 集團閉鎖(group closure), 자원분배(resource allocation) 등의 概念이 있다. 외부인을 의심하고, 다른 文化를 자신의 文化에 비추어 평가하는 것이 民族中心主義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모든 文化는 어느 정도 民族中心主義적 속성을 지니고 있고, 民族 中心主義가 전형적인 思考와 결합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외부인(outsiders)’은 이방인, 야만인 혹은 도덕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이것이 대다수의 文明社會들이 소규모의 文化를 지닌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다.

民族中心主義와 集團 閉鎖는 상호관련이 있다. ‘폐쇄’는 집단들이 다른 집단과의 분리를 통해서 경계를 유지하는 과정을 말한다. 인류학자 바르스(Frederick Barth)는 種族 集團 境界가 어떻게 조직되며, 어떻게 갈등에 기여하는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는 種族간 분리를 강화시키는 ‘배제 장치’

18) 상계서, p. 262.

에 의해서 種族간 境界가 발전되고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배제 장치는 集團간 통혼을 금지하거나 혹은 장려함으로써, 社會的 接觸의 제한 혹은 무역과 같은 경제적 관계를 제한 그리고 集團과의 신체적인 격리를 포함한다.

때때로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集團들이 서로 閉鎖의 원리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 경우는 두 集團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어느 한 집단이 지배적이지 않은 경우이다. 그러나 한 集團의 성원이 다른 집단의 성원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種族 集團閉鎖는 資源의 配當(allocation of resource)과 일치한다. 다시 말해서 富와 물질적인 財貨의 불평등한 分配가 種族간에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集團이 다른 集團을 군사적으로 征服한 경우 혹은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種族 집단이 登場한 경우이다. 種族的 閉鎖는 支配 集團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位置를 防禦하는 수단을 제공한다.¹⁹⁾

4. 다원주의 사회이론

多元主義 세계관에 의하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개인이고, 사회현상의 가장 본질적인 발생단위는 개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된다. 방법론적 個人主義(methodological individualism)의 입장은 사회의 가장 실체적인 기본단위가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행위하는 개인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적 분석의 기본단위도 마땅히 개인적인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²⁰⁾ 社會科學에서 多元主義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탈코트 파슨스(Talcott Parsons)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회를 자발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상호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협동적 체계로 규정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社會體系란 ‘들 또는 그 이상의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과정에 의해 발생된 세계’이다. 여기서 행위자란 구체적인 어느 한 개인이거나 혹은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 단위의 集合體를 말한다. 전체로서 社會體系는 그것의 존속변영에 필요한 역할과 활동을 수행하는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體系論的 관점에서 다시 사회는 상호의존적 기능을 수행하

19) 상계서, pp. 265-266.

20) 김 승현, 『현대의 사회과학』 (서울: 박영사, 1996), p. 175.

는 下位體系들이 하나의 통합적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된다. 즉 社會는 ‘상호간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분화된 下位體系들 사이의 긴밀한 네트워크’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위체계의 범주로는 정치체계, 사회체계, 문화체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社會를 이루고 살아가는 개인들의 사회적 결집의 계기는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多元主義적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개인들 사이의 공유되고 있는 文化的 價値가 사회적 통합이 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利益의 動機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전자는 사회 규범적 통합, 기능적 통합을 강조한다면, 이익의 동기를 강조하는 후자의 입장은 정치적 통합을 강조하는 것이다.²¹⁾

多元主義 理論體系에서 사회는 다양한 선호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 자신의 利益을 최대한도로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들로서 구성되어 있다. 또한 多元主義 理論體系 내에서 개인은 자신의 선호와 목표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며, 비슷한 선호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集團을 형성하거나 이에 부합되는 集團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利益과 目標을 실현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多元主義 사회는 利益의 증대를 위하여 개인들로 구성된 무수한 利益集團과 결사적 조직체들이 복잡한 관계망 속에 얽혀져 있는 秩序體系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4절 多文化主義의 개념

美國의 국가적 정체성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제기된 美國의 多文化主義는 포스트모더니즘의 批判적인 가능성이 구현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후 근대사회의 전반적인 문화현상을 가리키는 말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사회에서 생겨난 價値·思想·비전·생활양식 등의 총체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더니즘이 근대사회의 文化였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은 후 근대사회의 文化라는 것이다.²²⁾ 보다 제한적인 의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도화된 모더니즘에 반대하여 유럽 사회

21) 상계서, pp. 176-178.

22) 정상준, 전계논문, p. 321.

의 文學·藝術 및 學問 분야에서 생겨난 신경향으로서 일부 작가, 예술가, 지식인 및 기타 문화인 등 특정集團의 文化라고 할 수 있다.

美國의 自由主義的 理想은 國內 政治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國際政治에 있어서도 제2차 世界大戰을 끝으로, 그리고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세찬 批判과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베트남 參戰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 人種問題로 인해 야기된 國論分裂은 美國精神의 보편성에 대한 빠져린 反省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1960년대 후반기부터 美國의 지식인들과 학생들은 새로운 思想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 近代文明에 대한 批判으로부터 싹트기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혼란과 도덕적·사상적 공백기를 틈타 美國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²³⁾

多文化主義라는 용어는 美國과 美國人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省察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화시켜 규정한다면 多文化主義는 체계적인 理論이나 조직적인 운동이라기보다 美國社會에서 언제나 존재해 왔지만 지배적인 유럽 文化의 억압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한 美國社會의 다양한 文化的 差異를 인식하거나 그 差異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을 배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行爲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적 歸結은 지금까지 지속된 백인 남성의 지배를 종결짓고, 여태까지 소외당하거나 주변에 있던 다른 集團의 정체성, 특히 여성과 유색인종의 정체성을 존중하며, 그들의 文化가 독자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⁴⁾

23) 함재봉, “미국의 탈근대주의,” 미국학연구소(편), 『미국사회의 지적흐름-정치·경제·사회·문화』 미국학총서I,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8), p. 131.

24) 정상준, 전제논문. p. 337.

제Ⅲ장 美國 多文化主義의 발전과정

제1절 美國의 理念에 대한 歷史的 考察

1. 초기 아메리카의 淸敎徒主義

多文化主義의 생성에 관련하여 첫째로 고려할 수 있는 美國의 理念 및 價値觀은 초기 아메리카의 淸敎徒主義(Puritanism)²⁵⁾이다. 1559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 1533-1603)²⁶⁾여왕은 통일령을 선포하여 영국을 신교화한 이후 카톨릭과 신교의 儀式 사이에서 중용의 길을 택하자 이에 대한 신도들의 불만으로 淸敎徒主義가 유래하게 되었다. 이후 영국 국교(Church of England: Anglican Church)²⁷⁾도와 청교도간의 갈등이 17세기 초 스튜어트 왕조 하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종교적 차이점들은 이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입헌적 쟁점들과 관련을 갖게되었다. 영국 국교도들은 왕권과 결탁하고 현 秩序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청교도는 사회적 變化를 지지하였고 하원에서 자신들의 개혁 의지를 구체화하였다. 정부가 非 國敎徒를 박해하기 시작하자 淸敎徒는 경건한 사람들이 불경한 社會 속에서 살수 없다고 결정하고 아메리카로 향한 본격적인 移住가 시작되었다.²⁸⁾

아메리카 淸敎徒主義는 신교적 宗教改革의 정수였다고 생각된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와 장 칼뱅(Jean Calvin, 1509-1564)은 聖書에

25) 영국의 왕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과 결별하고 성립된 영국 국교회 Established Church의 의식과 예배가 로마 카톨릭의 그것과 너무 닮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더욱 '깨끗이하고'(청교도 Puritan의 앞 글자 Pure가 뜻하는)자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말함.

26) 영국 튜터 왕조의 여왕(1558-1603 재임). 45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영국은 세계 제국으로 부상했다.

27) 1559년 엘리자베스 1세는 통일령(Act of Uniformity)을 공포하여 오늘날의 영국 국교(성공회)의 기반을 영구히 확립시켰다. 교리면에서는 신교의 주장에 따라 교회의 권위의 원천으로서 성서를 강조하고, 의식면에서는 구교의 주장을 따랐으며, 제도적으로는 국왕을 교회의 首長으로 선포하여 종교의 국가적 통일을 견지하려고 하였다.

28) Winton U.Solberg, 조지형(역), 『미국인의 사상과 문화』(서울: 이대출판부, 1999), pp. 19-21.

의존함으로써 지상 천국을 실현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영국의 淸教徒主義는 영적 영역과 육체적 영역을 결합하려는 시도의 가장 진보된 표현이었다. 영국을 탈출한 뉴잉글랜드의 淸教徒들은 자신들의 탈출에 대한 理論的 根據가 필요하였다. 그들은 ‘광야로 부르심’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세 가지 상호 연관된 주제를 사용하였다. 첫째는 攝理理論이다. 이 理論에 의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 구속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발생할 수 없다. 둘째,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 즉 舊約聖書의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相續人으로 간주하였다. 존 폭스(John Foxe, 1516-1587)는 영국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국가이며 이제 淸教徒가 選民의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고 선언함으로써 신교주의에 選民思想을 불어넣었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카의 淸教徒는 하나님이 부여한 使命 즉 명백한 숙명(Manifest Destiny)²⁹⁾을 떠맡고 있다고 믿었다. 神의 攝理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믿었고, 인류 구원을 위한 神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과 契約을 맺었다고 생각하였다.³⁰⁾

淸教徒 도덕성의 구체적인 내용, 즉 역동적 과정으로서 생의 개념을 반영 하였던 미덕은 근면성·근검성·온건성·정직성·절세성·온유성·단순성과 같은 창의적이고 규율적이며 이기적인 미덕이었다.³¹⁾ 이러한 미덕은 사랑·자기희생, 그리고 겸손과 같은 가장 고귀한 基督教 價値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치의 형태와는 아주 눈에 띄게 다른 형태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淸教徒 精神은 이후 美國 앵글로색슨계 백인 주류사회의 가치관이 됨으로써 차후

29) 이 개념은 19세기 중반 美國의 급격한 팽창기운을 집약하고 정당화하기도 한다. 1845년 8월 Democratic Review지의 텍사스 판에 John L. O'Sullivan이 쓴 社說에서 이 용어가 유명해졌다. 그는 “매년 수백만씩 불어나는 우리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 神이 攝理로써 나누어준 이 대륙에서 뺏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명백한 숙명’인데, 텍사스 병합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 신의 섭리를 막는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확장을 신의 섭리에 의해 예정된 숙명으로 포장했다. 이후 ‘명백한 숙명’은 북미대륙 내부에서의 膨脹뿐만 아니라 20세기 이후 미국의 제 3세계에 대한 본격적인 介入政策의 이론적 배경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논문을 참고. 미국 백악관, “개입과 확산의 미 국가안보전략,” 『국가전략』(세종연구소), 제3권 1호, 1997년 봄. 여름; Hyun-Sang Yoo, “An Analysis of United States’ Security Policy toward a Third World State during the Cold War Era-Case Study of US-Iran Relations,” Thesis for Ph.D in Int’l Politics, University of Durham, United Kingdom, (1996), pp.82-111.

31) 조지형(역), 전계서, p.22.

31) Stow Persons, 이형대(역), 『미국 지성사』(서울: 신서원, 1999), p.64.

小數移民 집단 및 黑人 등 비 백인의 문화의 유입에 당분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의 반 문화운동과 흑인민권운동, 월남참전에 대한 저항 등을 통한 청교도 정신에 대한 새로운 자성은 추후 文化多元主義를 생성해 낼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2. 啓蒙主義 사상과 實用主義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美國의 理念 및 價値는 啓蒙主義 思想과 이로부터 美國에서 독특하게 발전된 實用主義 정신이다. 콜럼버스가 지도상으로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면 계몽사상가들은 사상의 측면에서 아메리카를 知的으로 발견하였다. 이들은 진정으로 토착적인 美國精神을 처음으로 구체화시켰다. 당시 啓蒙思想에 기본적인 것은 독특한 아메리카 환경형태 속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관계의 인식이었다. 17세기의 종교적 정신성으로부터 유래된 행동주의적 個人主義는 이제 自然을 정복하고 인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자연에 적응시키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 계획된 여러 새로운 규율에서 실제적이고 세속적인 표현을 드러냈다. 아메리카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계몽사상은 인간이 理性과 精神을 소유한 능동적인 동물이고 그 인간의 독특한 능력은 인간의 더욱 커다란 안락과 幸福을 위해 자신의 자연환경을 개척할 것이라는 관점이었다.³²⁾

啓蒙主義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사물의 본질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시대가 과거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다. 自然과 理性은 이러한 사상체계의 핵심개념이었다. 自然은 질서 있고 조화로우며 권위의 최종적인 원천인 반면 理性은 어떻게 自然이 움직이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이러한 신념은 계몽주의의 또 다른 특징인 진보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졌다. 물질의 실체를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인간은 自然의 법칙에 따라 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³³⁾

식민지의 정치사상에는 이의 영향이 반영되었다. 첫째, 고전 고대의 유산

32) 상계서, pp. 113-116.

33) 조지형(역), 전계서, p. 43.

이다. 즉 自然法이 존재하고 이 自然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사회의 다른 요소들, 즉 부자와 빈자를 대표하는) 혼합정부는 정치적 안전을 증진시켜 주고 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확신을 주었다. 둘째, 基督教은 신법에 기초한 自然法과 더불어 구속력 있는 기본법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독교는 인간의 본성은 혼합된 것, 즉 인간의 선한 요소들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악한 요소들은 民主主義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 淸教徒적 신교주의는 個人主義와 民主主義를 배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휘그 이데올로기(Whig ideology)는 중도적 계몽주의의 가장 적절한 표현이었다. 존 로크는 『제 2 시민정부론(Second Treatise of Civil Government)』(1690)에서 정부의 근거로서 사회 계약을 옹호하였다.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자연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自然權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정부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피치자의 동의에 근거한다. 존 트렌차드(John Trenchard, 1662-1723)와 토머스 고든(Thomas Gordon, ?-1750)과 같은 휘그 정치 평론가들이 이러한 사상을 미국에서 대중화시켰다. 그들은 정부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는 항상 개인의 권리에 반하여 권력을 행사한다고 지적하였다.³⁴⁾

또한 계몽운동을 이끌었던 합리주의자들에게는 재산 대신 노동이 가치의 기본 척도였으며 사회적 권위의 강화보다는 개인의 향상이 최고선이었다. 그들은 개인의 향상을 위해서 사상과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였으며 美國 독립선언문에도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權利를 천명하였다. 이 권리아말로 인간의 자연권이였다. 그것은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에게 신의 섭리에 의해 주어진 취소할 수 없는 양도물이였다. 정부란 인권을 보장하도록 특정한 권리를 위임받아 권위를 인정받은 단순한 대리인, 즉 국민의 공복이였다. 이처럼 미국에서 계몽운동은 독립운동 전후로 짧게 지속되었지만 독립선언문과 권리선언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³⁵⁾

유럽에서 啓蒙主義가 進化論과 실증주의로 전개된 것과 달리 美國에서의 啓蒙主義의 철학적 여파는 實用主義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18세기 후반부터 한 세기간 활발하게 벌어진 神學과 進化論 간의 논쟁은 이제 사색적이고

34) 상계서, pp. 55-56.

35) 태혜숙, 『미국문화의 이해』(서울: 증명, 2002), pp. 60-61.

학자적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대변혁의 물결로 다가와 보통 사람의 意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美國의 開拓과 膨脹 환경 속에서 미국인들은 약한 자들이 어떻게 몰락하며 또 강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종종 막강하고 부유해지는가를 보았다. 낮설고 심지어는 적대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그들의 創意力과 能力은 수천 가지 방법으로 시험되었다. 美國人들은 타고난 實用主義者였으며 ‘실리적(practical)’³⁶⁾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미국적인 철학으로서 實用主義가 발전할 수가 있었으며 이러한 전통적 價値觀이 차후 문화적 多元主義를 가용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美國에서 實用主義를 대중화한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의 사상³⁷⁾은 계몽주의 사상과, 또 이성의 응용을 통해서 사회를 향상시키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啓蒙主義의 信念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완전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듀이는 모든 종류의 절대적인 것들에 반대하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아니라 事實들만이 존재하며, 그 모든 사실은 그것이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룩한 결과에 의해 그 妥當性을 시험받는다. 듀이는 啓蒙主義者들의 이신론을 믿지 않는 自然主義者로서 법률, 철학, 심지어 종교까지도 어떤 특정한 시대 또는 시기의 특수한 시기의 특수한 환경에서 생겨난 원인들의 결과로 이해하였다. 이 自然主義的 사고야말로 역동적인 사회적 실험을 자극하는 낙관적인 哲學을 형성하면서 實用主義의 기반이 되었다.³⁸⁾

3. 自由主義와 平等思想

세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美國의 理念 및 價値觀은 自由主義와 平等이다. 美國은 18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영국과의 전쟁을 통하여 독립을 쟁취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독립을 위한 전쟁이었느냐 혹은 혁명이었느냐 하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다. 그러나 美國人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독립

36) 실용주의와 마찬가지로 행위 또는 행동을 뜻하는 그리스어 pragma라는 어근에서 유래됨.

37) ‘개념도구설’을 주장하였음. 즉 개념의 가치는 행동수단으로서 갖는 유효성에 의해 정해진다는 설을 말함.

38) 상계서, pp. 64-66.

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한 전쟁을 革命戰爭(Revolutionary War)이라고 부른다.³⁹⁾

그러나 美國의 혁명은 유럽의 정치사회혁명과는 매우 다르다. 美國革命은 귀족의 지배를 전복하지도 않았고 프랑스나 러시아 혁명처럼 대중의 사회적 격동도 없었다. 이는 주저하다가 할 수 없이 일으킨 植民地의 반란이었다. 그들은 영국의 정치적 전통과 가치관의 연속을 재확인하고 강조하면서 영국식의 의회정치를 주장했다. 美國革命은 과거를 타파한 것도 아니고, 혁명의 상처를 입든가 피해를 입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계급도 없는 특이한 혁명이며,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새로운 集團도 없었고 혁명을 반대하는 반동세력의 등장도 없었던 지극히 보수적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⁴⁰⁾

美國人들은 그들의 사회가 社會階級이나 사회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美國의 사회는 영국같이 사회집단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개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 만큼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政府에 의해 억압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비록 식민지에도 사회경제적인 불평등과 사회계급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美國社會의 계급의 폭은 좁았다.⁴¹⁾ 美國의 계급은 血統보다는 富에 더 중요성을 두었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계급은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미국은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美國에서는 존경받는 지배계급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平等意識이 강했고 정치인을 불신했으므로 독재의 출현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식의 권력구조를 탈피하고 식민지 이주민들의 사고방식의 실현이라는 맥락에서 미국의 정치적 독립은 혁명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츠(Louis Hartz)교수는 美國의 혁명이념은 로크의 自由主義라고 말한다. 美國이 독립한 후 이 이념은 정통성을 인정받았고 어떠한 사회세력도 자유주의를 공격할 수는 없었다.⁴²⁾ 이 고전적 자유주의는 당시 영국의 귀족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 장원제도, 귀족 계급제도에 항거하여 출현하였다. 항거하는

39) 서정갑, 『부조화의 정치: 미국의 경험』 (서울: 법문사, 1991), p. 82.

40) 상계서, p. 83.

41) Clinton Rossiter, *1787: The Grand Convention* (New York: Macmillan, 1966), p. 30.

42) Louis Hartz, *The Liberal Tradition in America* (New York: Harcourt, Brace, 1955), p. 140.

계급은 새로 출현한 중류계급이었다. 이 계급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무기로 자유주의를 만들었다. 自由主義는 영국의 전형적인 중류계급의 정치사상이다. 귀족사회의 장원제도에 대한 투쟁을 위해 自由主義가 나타났지만, 유럽에서 귀족계급이 그들의 특권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프랑스 혁명이후에도 유럽에서 귀족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自由主義는 귀족과 상류계급의 保守主義理論과 대결하면서 스스로 수정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금은 그 본래의 형태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美國은 유럽과 상황이 아주 달랐다. 美國社會는 처음부터 장원제도와 귀족계급이나 계급갈등 등이 없었다. 중류계급의 투쟁이념을 받아들여면서도 투쟁할 대상인 封建貴族階級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美國 땅에서는 쉽게 그리고 깊이 自由主義思想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⁴³⁾

自由主義는 인간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동물로 보고 낙관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은 진정한 自己利益을 발견할 수 있으며, 생명, 자유, 재산을 추구할 불가양의 自然權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이다. 이러한 自由主義는 정부의 기원을 「契約論」에서 찾았고 인간의 價値와 自然權을 주장하며 個人主義에 입각해서 사유재산의 중요성을 부르짖는 사상이다.

美國의 自由主義가 상반되는 價値를 주장하는 좋은 예는 自由와 平等 개념이다. 自由는 美國革命 사상의 핵심이다. 한편 平等은 美國人의 생활신념이다. 美國人은 自由와 平等이라는 상반되는 價値를 추구하고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않는다. 自由가 보장이 되면 결과는 불평등이 된다. 平等이 보장되면 自由는 없어진다. 美國人의 平等은 社會主義의 平等과는 달리 機會의 平等(equality of opportunity)이지 狀態의 平等(equality of condition)을 의미하지 않는다⁴⁴⁾ 美國 自由主義의 핵심은 個人主義, 제한된 정부(limited government), 재산권을 강조하는 政治理念이다. 이 세 가지 概念은 상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個人主義를 실현하고 自由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권한은 제한되어야 한다. 제한정부는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고 사유재산이 個人主義와 自由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사상이다. 재산권이

43) 서정갑, 전계서, pp. 86-87.

44) Robert G. McCloskey, "The American Ideology," in Marian D. Irish, ed., *Continuing Crisis in American Politic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63), p. 14.

라는 것은 美國의 自由主義가 자본주의정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은 말해주고 있으며 美國歷史의 거의 전반에 걸쳐서 대법원도 사유재산을 옹호하는 判決을 해 왔다.⁴⁵⁾

美國의 정치풍토는 절대적으로 自由主義文化가 지배하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현상은 지극히 미약하다. 이러한 현상은 美國人의 강한 個人主義思想이 사회문제의 집단적인 해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美國人들의 平等의 강조가 사회주의와 일치하기 때문에 구태여 사회주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유럽이 봉건적인 정치체제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美國은 탄생과 더불어 自由民主主義와 自由市場經濟,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모두 급속히 갖추어 나아갔다. 초기부터 自由市場經濟體制, 과학기술의 발전, 인간 해방 사상 등을 발전시키면서 美國의 歷史는 정치, 경제, 과학기술, 사상간의 완벽한 조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또한 美國의 自由主義 理念은 철저한 利己主義와 물질주의를 도덕적 이상으로 승화시키는 데도 성공하였다. 즉 自由主義 思想과 體制를 확산시킴으로써 인류 역사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맥락에서 해석하였고, 美國人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自由主義 思想과 체제의 확산이라는 神이 부과해 준 使命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당화시켰다.

4. 자연주의의 人種差別主義 : 민주주의의 多元主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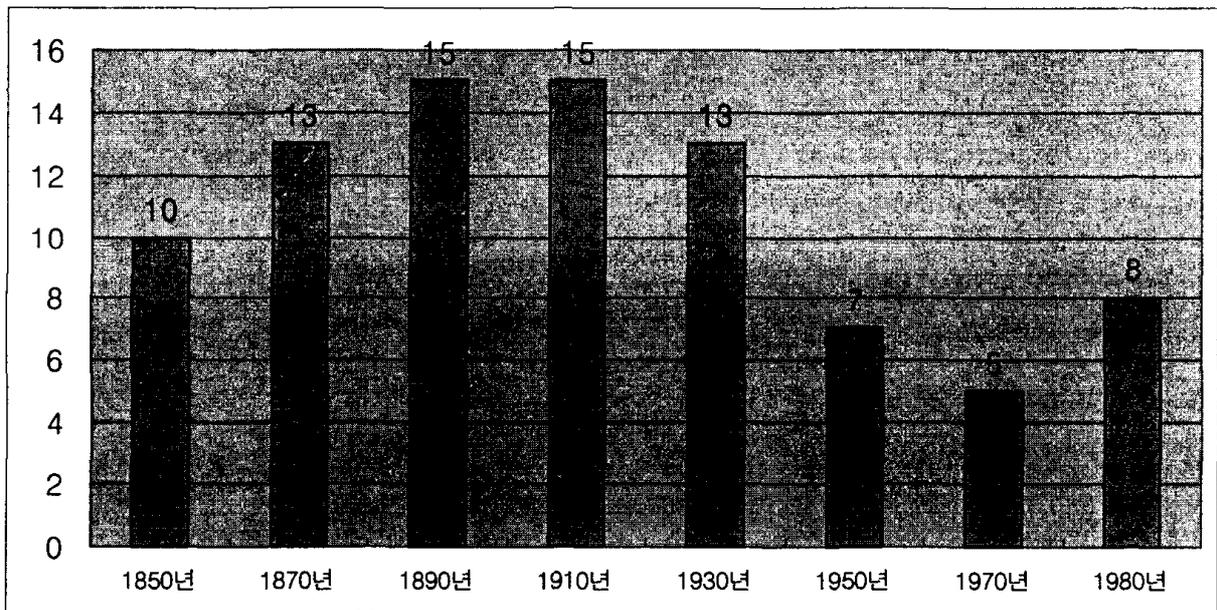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多文化主義 발전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美國의 理念과 價値觀은 19세기 후반의 자연주의 정신에 의해 대두되었던 人種差別主義와 20세기의 새로운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文化의 多樣성과 人種的 多元主義이다.

自然主義 정신은 남북전쟁과 1930년대의 대공황 사이에 살았던 많은 미국인들이 주장한 아주 잘 규정된 일단의 理念으로 이루어졌다. 人種差別主義가 대두되었던 19세기 후반의 자연주의 발생의 시대적 배경은 사회주의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사회주의의 산물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인간과 사회에 대

45) 사유재산을 옹호한 첫 유명한 판결은 Dartmouth College v. Woodward, 4 Wheaton 518 (1819).

한 그 개념은 인간의식에 미친 산업주의의 영향에 의해 불가피하게 채색되었다. 美國에서 나타난 도시화의 파급효과는 외국 땅으로부터 온 移民者들에 독특하게 뒤틀린 모습으로 나타났다. 1870년에 미국에는 5백5십만 명의 외국 태생 거주자들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북서유럽 태생이었다. 이들은 전체인구의 약 7분의 1이었다. 외국태생의 수는 규칙적으로 증가하여 1930년에 1천4백만이 넘었다. 1883년 이전 移民은 대체로 북서유럽으로부터 온 반면 구 뒤에 주요이민의 발원지는 남동유럽이었다. 그 결과 1871년에서 1880년까지의 십년 동안 전체이민의 약 75%가 영국의 여러 섬과 독일에서 온 반면 단지 9%가 남동유럽으로부터 왔다. 그러나 1911년에서 1920년까지는 단지 14%가 영국의 여러 섬과 독일에서 왔고, 77%는 남동유럽으로부터 왔다. 20세기 최초의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온 9백만의 移民者들 가운데 6백만이 남동유럽에서 왔다. 제1차 세계대전은 대체로 半球간의 移民을 멈추게 하였다.

<圖 3-1> 美國인구 중 외국태생 비율(%)



출처: 미국의 통계요약, 1986

1차 대전 뒤 10년동안 미국에 들어온 4백만 移民者들은 대체로 아메리카 대륙 안의 여러 나라에서 왔다. 1883년 이후 남동유럽으로부터 온 소위 '새로운 移民者'들이 미국생활의 여건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이들보다 먼저 왔던 사람들

보다 더 심한 난관에 부딪혔다는 이민연구자들의 오랜 가정은 최근 연구조사에 의해 일소되었다. 그러나 사실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美國인들이 보여주었던 태도였다. 즉 移民 反對者들은 移民을 종결시키려는 자신들의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移民의 변화하는 성격을 이용했다.⁴⁶⁾

비록 전체인구 가운데 외국태생의 비율이 1870년에 14.5%에서 1930년에 11.5%로 하락했지만 외국태생의 비율에 소위 '제2세대 미국인'이라고 하는 美國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이 추가된다면 1930년에 미국인의 약 31%, 즉 3천9백5십만 명에 이르는 숫자가 제1세대 혹은 제2세대 미국인들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 숫자의 의미는 移民研究者들에게 잘 알려진 바처럼 미국생활에 대한 적응의 부담은 제1세대보다도 제2세대가 더 심했다는 사실과의 관련 속에서 가장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낯선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舊世界の 습관과 기준을 고수함에 있어서 제1세대 美國人들은 자신들의 정체 의식과 근로의욕에 대한 자신들의 감정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그 반대방향으로 이끌려졌고 사회적 부적응의 여러 특징이 나타났다. 境界人(marginal man)이라는 용어는 두 文化集團 사이에서 그 어느 쪽에도 동화되지 못하고 사는 제2세대 美國人들의 애매한 지위를 지적하기 위해 사회학자들이 만든 것이었다. 1930년 美國에는 2천5백만 명 이상의 境界人이 있었다.⁴⁷⁾

자연법칙의 우위를 주장하면서 自然主義者들은 자신들을 주요한 美國의 지적 전통 속에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과 그 함축적 의미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두드러지게 현대적이었다. 그들의 우주론은 칸트와 라플라스(Laplace)의 星雲에 대한 가정, 라이엘(Lyell)의 均一論적 지질학 그리고 다윈의 유기적 진화론이 혼합된 것이었다. 그 우주론은 자연법칙 하에서 보편적인 변화를 가정하는 것이었다. 한 세기 전 啓蒙思想家들은 또한 자연법칙으로 출발했었지만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점에서 自然主義者들과 啓蒙思想家들의 우주론은 서로 달랐다. 첫째, 啓蒙思想의 宇宙는 靜的이었던 반면 더욱 새로운 自然主義 宇宙는 動的이었다. 後者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연법칙은 進化論이었다. 둘째, 啓蒙思想家가 그의 관심을 自然의 영역으로부터 社會의 영역으로 바꾸

46) 이형대(역), 전계서, pp. 324-326.

47) 상계서, p. 326.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자연법칙을 自然權(natural rights)으로 바꾸었다. 다른 한편 현대적 자연주의자들은 더욱 엄격하게 자연법칙을 사회적 영역으로 옮겼으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그 자연법칙의 강제적인 힘을 주장하였다.⁴⁸⁾

自然主義者들은 또한 자연법칙이 물리적·생물학적 그리고 사회적 영역의 문제에 똑같이 관계하는 자연법칙의 普遍性을 강조하였다. 그와 같은 법칙이 이러한 각 분야에 작용하였기 때문에 그들간의 연관은 밀접하였고 變異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어려움 없이 이루어졌다. 社會的인 것과 生物學적인 것 사이의 구별은 마치 어떤 단순한 실제적인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고 실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반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自然主義者는 비교적 복잡한 사회현상을 비교적 단순한 生物的 조건, 그리고 더 나아가 단순한 自然的이고 機械的인 조건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음으로써 그 現狀을 환원시켜 이해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초기 民主思想에서 自然秩序·道德秩序 그리고 社會秩序 사이의 밀접한 관련을 바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自然主義者들은 이러한 가정을 영속시켰지만 道德的 및 社會的 秩序를 自然的인 秩序 밑에 두었다.

생물학적 전제에 의거한 自然主義 정신은 많은 관심을 人種問題에 돌렸다. 그리하여 당시 사람들이 추측하였던 人種的 特徵은 自然主義 정신의 전반적인 社會理論에 중요한 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民主主義 이데올로기의 보편주의적이며 인도주의적인 함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19세기말 美國人들은 인종적·문화적 갈등에 책임이 없지 않았다. 유럽인이 정착할 때부터 인디언들과 백인들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전투가 있었다. 인디언들은 퇴화된 未開人들로 증오하게 되었고 인디언 사회는 白人文化를 수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계적으로 破壞되었다. 인디언과 그 文化에 대한 감상적 태도가 나타났던 것은 바로 이러한 破壞가 완전히 이루어진 이후의 일이었다.

1880년대의 10년은 美國 人種差別主義(racism) 역사에서 결정적인 시기였다. 이 10년 동안에 연방법원은 '수정헌법'제14조하에서 수립된 黑人의 시민권 보호를 거부하였다. 이 10년 동안 美國으로의 移民은 더 이상 북서유럽이

48) 상계서, p. 330.

아니라 남동유럽으로부터 밀려왔다. 훨씬 이전에 移民으로 美國에 와서 확고히 정착한 많은 사람들은 곧 우려와 분노를 人種差別主義적인 어투로 표출했다. 태평양 연안에서 커니운동(Kearny movement)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을 잠식했던 東洋移民者들에 대해 폭동을 일으켰다. 다양한 인종집단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美國民들은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심히 불안정해 했다. 이것이 人種差別主義 이론을 성립시켰던 사회적 배경이었다.

서구세계에서 人種의 거대한 대중적 이론은 인종 혹은 人種差別主義의 문화적 이론이었다. 人種差別主義者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인류학자들의 신체분류를 이용하려 했지만, 人種差別主義의 주요한 특징은 생물학적 인종과 문화와의 동일시였다. 人種差別主義는 인종을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역사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는 국민의 한 집단으로 보았다. 하나의 인종은 그 역사에 의해 따로 떼어져 분석되었고 문화적 업적에 의해 평가되었다. 대부분 人種差別主義者들은 자신들이 시도한 역사적 조사의 결과가 자연인류학의 발견과 상응하다고 주장하였다. 자연적 유전과 같이 문화적 능력은 선천적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黑人은 그 검은 피부와 文化的 貧困에 의해 똑같이 구별된다고 人種差別主義者는 말하였다.⁴⁹⁾

美國에서 人種差別主義적 관점은 남부를 제외하고는 어느 곳에서도 유럽에서 누렸던 것과 같은 권위를 결코 가지지 못했다. 더욱이 독일에서 나타난 국가사회주의의 등장과 대량의 인종적 박해에서 人種差別主義적 철학이 실제로 적용됨으로써 人種差別主義적 관점에 대한 첨예한 반응이 美國에서 일어났다. 1941년 이후 人種差別主義적 관점을 표현하는 것은 知的으로 더 이상 존경할 수 없는 것이었다.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지식인들은 人種差別主義적 전제에 동의했고 자신들의 저술에서 人種差別主義를 확신하는 솔직하고 신중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人種差別主義에 설득력을 일찍이 부여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知的 聯想의 방식은 재고되어야만 했었다.

아마도 人種差別主義의 지적 배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자연인류학의 원칙에 따르는 人種的 差異에 대한 과학적 연구였다. 간과할 수 없는 한가지가 人種差別主義는 이러한 합법적 연구를 曲解한 것이었다. 생물학상의 進化

49) 상계서,

論적 조건에서 인종-민족적 문제를 다루려는 포괄적인 노력을 기울인 하버드 대학의 나다니엘 샬러(N. S. Shaler)는 白人·黑人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언의 세 종류 집단의 人種的 差異를 주장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백인 중에서도 유대인과 아리안 인종이 최상이라고 하였으며, 黑人은 美國에게 커다란 문제를 안겨준다고 보았다. 黑人들의 역사는 그들이 미개한 종족단계를 넘어서 진보할 수 없음을 입증하였다. 아프리카에서 그들은 원시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어떠한 역사의식도 없었고 어떠한 전통도, 문학도, 종교도, 혹은 사회적 조직도 가지지 못했다. 南北戰爭이후 재건시대에 남부에서 權力과 責任을 가진 지위에 올랐을 때 그들은 정치 및 사회적 질서에 대한 어떠한 意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黑人의 솔직함은 유대인에 비해서 黑人이 고유한 신체적·정신적 적응력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黑人은 또한 강한 동정심과 커다란 충실함과 애정에 대한 능력을 드러내었고 言語的 適應과 音樂的 才能은 흔히 주목을 받았다.

샬러는 黑人과 白人의 융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나지 말아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로 다른 種들의 잡종번식은 불임과 활력을 잃은 후손을 가져온다는 것이 공통된 생물학적 지식이었다. 게다가 아리안 人種의 우위성을 가져왔던 특징적인 자질이 흑백혼혈에서는 존속하지 않았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했다. 黑人은 노동자로서 미국사회에 유용한 기여를 하는 데에 만족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샬러는 黑人의 정치적 이용을 막기 위하여 參政權을 주지 않음으로써 정치로부터 黑人을 우선 배제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믿었다.⁵⁰⁾

1921년에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맥두얼(W. McDougall)은 자신의 著書 『美國은 안전한가?(Is America Safe for Democracy?)』에서 각 인종은 선천적이고 아마도 유전적인 재질인 도덕적·지적 성질이 대체로 각 文明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美國文明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수한 階級이 그들 才能을 많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만 하고, 적응력이 없고 의존적인 사람들은 種族을 번성시키지 못하도록 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쉽게 성취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지는 않았다.

50) 상계서, pp. 424-426.

그러나 분명히 최초의 실제적인 단계는 그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예 美國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음으로써 시도되었다.

人種差別主義적인 논의의 실제적인 결과는 1924년의 '移民法'이었다. 人種差別主義가 제한된 移民政策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국가들에게 분배된 差別的인 移民割當은 人種 및 民族에 대한 확신의 결과였던 것처럼 보인다. 매년 각국에 분배되는 우선적인 할당은 해당 국가의 출신인구가 美國人口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실제에 있어서 그 할당제도는 19세기말까지 미국생활을 지배했던 人種集團들의 文化的·社會的 우위성을 보호하려는 의도였다. 제1차 대전 이전 5년 동안 美國移民의 67%가 남동부 유럽으로부터 왔는데 할당제도하에서 그 비율이 20%까지 줄어들었다. 다른 말로 하여 북서부 유럽의 기원을 가진 美國人들은 단호하게 자신들의 幸福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지 않았다.⁵¹⁾

제2절 移民 民族集團간의 文化的 葛藤

1. '느슨한 美國'의 출발: 북유럽 이민집단간의 차이

앞의 節에서 考察한 美國의 理念과 價値觀의 변화는 美國의 移民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移民과 少數民族의 葛藤의 문제는 美國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단일국가로서 國家目標 달성을 위한 국민적 合意를 도출해 가는데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土着民과의 갈등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文化들을 창출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 또한 배양할 수 있었다. 美國의 移民은 처음 식민지 시대에는 대부분이 영국이나 독일, 그리고 스코틀랜드계의 아이랜드인 (Scots-Irish)을 비롯한 북부 유럽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⁵²⁾

17세기 영국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인 격동기였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영국인들이 아메리카 植民地로 移住하였다. 튜터가의 억압을 피해 淸教徒

51) 상계서, pp. 426-429.

52) 김봉중, 「미국은 과연 특별한 나라인가?」 (서울: 소나무, 2001), p. 198.

인들은 아메리카로 도피하였는데 이들은 메사추세츠에 정착했다. 북유럽에 정착을 시도했던 급진적 淸教徒들은 실패하고 1620년 아메리카에 정착을 시도하였다. 그들이 바로 필그림(Pilgrims) 들이다. 1692년을 시작으로 청교도인들의 대대적인 이주 (Great Migration)가 시작되었다. 17세기 중반 王政이 무너지고 크롭웰의 호국경(Lord Protector)시대가 도래하면서 영국귀족인 영국 國敎會 敎徒들이 버지니아 체서피크만으로 이주하여 굴지의 가문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버지니아 외에도 뉴욕과 캐롤라이나, 조지아 같은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1633년 영국의 카톨릭 교도들은 볼티모어(Lord Baltimore)경을 중심으로 메릴랜드에 정착했다. 그리고 1681년 영국의 퀘이커 교도들은 펜실베이니아에 植民地를 건설했다.

영국인들이 아메리카에 정착한 것은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이유에서였지만 이는 사회, 경제적 배경과 맞물려 있었다. 초기에는 소수의 宗教 集團들이 아메리카를 피난처로 선택하였지만, 그 植民地를 실제적으로 팽창하기 위해서는 일반 평민들의 지속적인 移住가 필요했던 것이다.⁵³⁾

아일랜드는 12세기 후반부터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러나 아일랜드인들은 끊임없이 영국의 통치에 저항하였고 반란을 일으켰다. 1603년 제임스 1세가 등극하면서 북아일랜드 지역인 얼스터(Ulster)에 신교도들을 移住시키기 시작했고, 그곳으로 이주한 신교도들의 대부분은 저지역 스코틀랜드인들이었다. 11세기 중반부터 영국 王은 스코틀랜드 종주왕으로 인정받아 스코틀랜드를 통치하였지만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民族意識이 강한 스코틀랜드인의 反撥과 抵抗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제임스 1세가 저지대 스코틀랜드인들의 아일랜드 얼스터로의 이주를 유도하였다. 그들에게 地代를 낮추어 주고 장기임대를 약속했으며, 또한 장로교도들인 그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 주면서 移住를 권장했던 것이다. 이에 힘입어 스코틀랜드인들은 북아일랜드로 대거 移住하였다. 1610년부터 1640년까지 약 4만 명이 移住하였다.⁵⁴⁾ 그러나 장로교 스코틀랜드인과 카톨릭의 아일랜드인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으며, 더하여 18세기 영국의 경제가 악화되었다. 영국이 자국 상업 보호를 위해 아일랜드 산 모직 상품에 대한 禁輸조치를 취하자 북아일랜드 經

53) 상계서, pp. 198-199.

54) 상계서, p. 200.

濟는 점차 황폐해져 갔다. 여기에 영국이 약속을 깨고 종교적 관용 정책을 철회하고 공직자에게 英國 國教를 강요하자 스코틀랜드인의 불만이 커져 갔고, 1717년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들은 아메리카로 향한 대대적인 移住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필라델피아에서 메릴랜드, 버지니아, 캐롤라이나 지역으로 移住 범위를 넓혀 갔다. 그러나 이 지역들이 이미 영국인이 정착한 지역이었기에 영국인을 피해 내륙지역으로 移住하였다. 그래서 세네토어밸리와 컴벌랜드를 중심으로 동부해안선 지역에는 영국인들이, 서부 내륙 지역에는 스코틀랜드인들이 정착하였다. 따라서 양측은 고국에서의 지긋지긋한 투쟁과 첨예한 對立을 피해서 새로운 땅에서 각자의 運命을 개척할 수 있었다.⁵⁵⁾

18세기 초 宗教的 迫害를 받고 있던 독일 프로테스탄트들은 펜실베니아 퀘이커 교도들의 종교적 관용정책에 고무되어서 펜실베니아로 移住를 시작하였다. 이어서 수많은 가난한 독일 농민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하였다. 1776년까지 거의 25만 명 정도의 독일인들이 펜실베니아를 비롯해서 뉴저지, 서부 메릴랜드, 캐롤라이나, 조지아, 뉴욕의 북쪽 등지에 분산되어 居住하였다. 이들은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들보다 훨씬 독립적인 生活을 하였고 수출을 위주로 하는 대 농장이 아닌 독일에서 익숙했던 대로 중소형 자작 農業에 종사하였다. 또한 스코틀랜드인들은 英語를 사용함으로 영국인들과 쉽게 융화할 수 있었으나 독일인들은 言語가 달라서 나름대로 독립된 社會를 형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이들은 유럽에서 國家라는 근대형태의 정치제도보다는 수백 개의 공국(principalities) 형태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적은 인구로 독립된 社會를 형성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⁵⁶⁾

지금까지 考察해 본 바와 같이 영국의 아메리카 植民地는 각 民族, 宗教에 따라 분할되고 분산되어 각 13개 植民地는 서로 다른 13개 國家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 國家들은 모두 영국의 植民地라는 것 외에는 서로의 共通點을 찾기가 어려웠다. 植民地들은 유럽의 13개 국가가 그대로 아메리카에 이전한 것이나 같았으며, 民族的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宗教的인 성향 또한 변함이 없었다. 메사스추세츠의 청교도, 버지니아의 영국국교도, 펜실베니아의 퀘이커 교도, 중부 식민지에 산재해 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도, 그리고 독

55) 상계서, pp. 200-201.

56) 상계서, pp. 201-202.

일의 프로테스탄트 등 美國은 시작부터 분명 多文化社會(multicultural society)였다. 식민초기에는 文化的 融合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다.⁵⁷⁾

그러나 1776년에 이르러서는 이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融合이 이루어졌고 점차 유럽의 전통을 뒤로하고 美國人이라는 意識을 공유하게 되었다. 물론 獨立戰爭은 명확하게 통합된 國家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국이라는 공동의 敵에 대한 느슨한 연대감에서 시작되었지만,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美國人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결과 이들의 인종, 민족, 종교적 다양성과 대규모의 참여 民主主義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近代國家’로서의 정체성, 즉 ‘느슨한 하나로서의 美國’이 탄생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考察해 본 바와 같은 다양한 文化的 差異를 보이는 유럽 移民集團들이 단 기간 내에 美國人이라는 동질적인 정체성을 갖게 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新大陸의 광활한 大地는 유럽의 이주자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간의 충돌을 피해서 分散 定着할 수 있었고, 유럽의 분쟁이 재현될 필요가 없었으며, 이후 자연스럽게 각 集團간의 融和를 시도할 수 있었다. 둘째, 유럽 이주자들에게는 토착 인디언이라는 공동의 敵이 있었다. 초기 영국 이주민들은 스페인 이주자들과 달라 토지에 定着하려는 農夫들이 대다수였기에 인디언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어려웠고 그 숙명적 투쟁에서 서로간의 동질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식민지인들의 經濟的 野望이다. 초기 이주자들의 경우는 종교적인 박해가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만든 주원인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원인이 훨씬 중요한 이주의 동력이 되었다. 18세기에 들어오면서 북아메리카의 식민지는 상업주의 물결에 휩쓸렸다. 동부 해안지역은 민족적, 혹은 종교적 다원주의(pluralism)로 급격히 와해되었다. 초기의 생존형 소규모 農業은 수출에 근거를 둔 대규모 農業이 되어 갔고, 이러한 추세는 특히 남부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서부 프런티어 지역의 모피산업도 수출산업이었기에 인디언의 위협을 무릅쓰고 經濟的 利得을 위해 서부지출을 시도했던 이들에게 民族과 宗教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경제적 이익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이들에게 ‘느슨하지만 하나의 美國人’이라는 동질적인 정체성을 갖게 하였다.

57) 상계서, pp. 202-203.

2. 美國의 膨脹과 分裂: 아일랜드 移民집단의 葛藤

1812년 영국과의 戰爭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결집된 애국심을 바탕으로 美國은 승리하였고, 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經濟는 폭발적인 成長을 했고, 운하, 도로, 철도 등 운송 시설이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였고 유럽인들의 移民이 활발하여졌다. 1840년대와 1850년대 移民의 주류는 홍작과 기근으로 곤경을 겪었던 아일랜드나 독일 계통이었다. 이들이 정착한 곳은 주로 뉴욕이었다. 뉴욕은 1830년 인구가 20만 명이었는데, 1850년에는 51만 5천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리고 1860년에 이르면 인구가 백만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들 가운데 절반이상이 移民이거나 그들의 자손이었다.⁵⁸⁾

‘明白한 宿命(manifest destiny)’은 19세기 중반 美國의 급격한 膨脹기운을 집약하고 또 정당화한 概念이다. 이 때가 연방 영토확장의 절정기였기 때문이다. 이 시대는 美國 政黨史로 보면 ‘두 번째 정당체제(2nd party system)’ 시대에 해당된다. 즉 초기의 ‘연방파 : 공화파’의 갈등구조 대신 ‘민주당 : 공화당’의 갈등구조가 등장하면서 남부와 북부의 分裂이 美國 聯邦의 運命으로 다가오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聯邦의 영토 확장만이 이 시대 美國의 宿命은 아니었다. 聯邦의 膨脹을 둘러싸고 심화된 남부와 북부의 대립 및 그 결과인 南北戰爭도 美國의 ‘또 다른 명백한 宿命’으로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다.⁵⁹⁾ 1830년대 이후 聯邦의 擴張이 가속화된 것은 몇 가지 요인의 상승작용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이 우세한 정당체제시대, 즉 남부의 膨脹觀이 지배적인 시대였다. 남부는 현실적으로 영토 확장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첫째, 지력을 급격히 쇠퇴시키는 면화와 담배 경작을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경작지가 필요했다. 둘째, 일부 노예 주에서는 黑人 人口가 백인을 능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黑人들을 分散시킬 수 있는 새로운 땅이 필요했다. 셋째, 移民에 의한 북부의 급속한 인구 증가가 聯邦政治에 끼칠 影響을 남부는 우려했다. 인구 비례로 선출되는 연방 하원에서 북부 출신의 의원수가 남부 출신의 의원 수를

58) 최병헌·박주경·조세연, 『미국 문화와 사회』 (서울: 대우출판, 2000), pp. 142-143.

59) 권용립, 『미국 대외정책사』 (서울: 민음사, 1997), p. 199.

압도할 가능성이 커진데다가, 대통령 선거인단 수 역시 북부에 유리하므로, 무조건 각 주당 2명인 연방 상원의원 분포를 고려하여 연방전체에서 남부(노예) 주의 비율 증가가 요구되었다. 결국 이를 해결할 방법은 美 大陸의 南部 및 西部에서 계속 새로운 領土를 획득하는 것뿐이었다.⁶⁰⁾

동부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1930년대부터 南北戰爭이 시작되기 전까지 프로테스탄트계 美國人, 즉 먼저 移民왔던 영국계 美國人들과 나중에 移民 온 凱톨릭 敎徒들인 아일랜드인들 사이에 서로 배타적인 文化的 葛藤이 벌어지게 되었다. 전통적인 美國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이른바 ‘土着主義(Nativism)’ 운동을 벌였던 것이다.⁶¹⁾ 대대로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아일랜드는 나폴레옹 전쟁 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지주들이 농지를 목축지로 전환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美國으로 移住하게 되었다.⁶²⁾ 이들의 대부분이 동부의 주요 도시에 밀집하였기 때문에 토착주의자들과 아일랜드인들과의 葛藤은 도시의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었다. 土着主義者들은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시문제들이 모두 아일랜드 移民者들과 연관되었다고 믿으며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土着主義者들을 긴장시킨 것은 政治的인 問題였다. 아일랜드 移民集團들은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여 ‘國家내의 國家’를 만들고 상조회나 비밀 결사단과 같은 조직들을 만들어 그들의 權益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카톨릭 교회는 그들의 생활의 중심지였고 司祭는 그들 공동체의 실질적 지도자였다. 그들만의 공동체 의식, 비밀 결사단, 교회의 영향력, 그리고 수세기 동안 그들의 가슴속에 사무쳤던 反英 감정은 아일랜드 移民者들을 결집시켰고 이는 곧 政治的 團合으로 연결되었다. 이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그들의 표를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늘어났다. 土着主義者들은 이러한 아일랜드인들을 美國 政治를 부패하게 하는 암적 존재로 보았다.⁶³⁾

반카톨릭 운동이 1830년대에 주요 도시를 휩쓸었다. 土着主義者들은 ‘교황의 음모론’⁶⁴⁾을 내세우며 카톨릭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려고 하였다. 1844년

60) 상계서, pp. 209-210.

61) John Higham, *Strangers in the Land* (Newark: Rutgers University Press, 1990), pp. 3-4.

62) 김봉중, 전계서, p. 209.

63) 상계서, p. 210.

64) ‘교황의 음모론’이란 로마 교황청이 아일랜드인과 같은 카톨릭 신자들을 대량으로 미국으로 이주시켜 신교중심의 미국 공화주의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것. 특히 1834년 전신 부호를 만들

에는 필라델피아 카톨릭 교구장이 신교도 성경인 ‘킹 제임스 판(King James Version)’ 성서를 카톨릭 교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미국 신교도 협회(American Protestant Association)는 재빨리 카톨릭의 처사에 항의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미국 토박이 클럽(Native American Club)은 반 아일랜드인 소요를 일으켰다. 이들은 移民者들의 市民權 취득 소요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21년으로 연장하였고, 市民權者 아닌 移民者들의 공직 취임 금지 법령제정 운동을 벌였으며, 공립교육 기관에서 개신교 교단이 인정하는 성서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필라델피아 곳곳에서는 실력 행사가 잇따랐고 폭력이 난무하였다. 흥분한 土着主義者들은 카톨릭 수녀원을 불태웠고 이에 아일랜드인들은 무장하여 대항하였다. 美國 獨立記念館이 있고, 建國의 아버지들이 美國의 憲法을 제정했던 필라델피아가 이제 신교도와 구교도간 폭동의 중심이 되고 말았다.⁶⁵⁾

1846년 미국은 멕시코와 전쟁에 돌입하며 전국은 膨脹主義에 고조되었다. 북서부로의 영토 확장에 이어 남서부로의 영토 확장에 열광해 있었고,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미국인들의 관심은 서부로 쏠렸다. 동시에 멕시코와의 戰爭에서 승리하자 이 영토의 미래를 놓고 南과 北간의 첨예한 지역 葛藤과 分裂의 문제가 전면으로 부상하면서 土着主義는 그 빛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동부의 도시에서는 移民에 따른 문제가 항상 불씨로 남아 있었고 그 문제의 초점은 카톨릭계 아일랜드인들에게 맞추어졌다.

1840년대 중반 ‘감자 기근(potato plight)’으로 알려진 사상 유례없는 기근으로 수천 수만 명의 아일랜드인들이 고향을 등지고 美國으로 향했다. 가히 기록적인 수치였다. 1847년 한 해만 해도 234,000 명에 이르렀다. 1840년대 동안 78만여 명의 아일랜드인들이 移民을 온 것을 보면, 그 10년 동안의 이민 3분의 1이 1847년 한 해에 美國으로 건너온 셈이었다. 1851년에는 1851년에는 380,000명에 육박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었고 1850년대 美國 移住 아

었던 사무엘 모로스가 『자유에 대항하는 외국의 음모(Foreign Conspiracy against the Liberties of the United States)』라는 책자를 출간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퍼져 나갔음.

65) David H. Bennett, *The Party of Fear*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8), pp. 55-58.

아일랜드인들의 숫자는 총 914,119명이었다. 10년 단위 총 移民數에서 최고를 기록했던 期間이었다. 이러한 과도한 移民은 美國 토박이들을 긴장시켰다. 도시에서 아일랜드인들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만 갔다. 문맹률이 높고 빈민가를 더욱 확대시켰고 도시의 범죄율 또한 높아 갔다. 1850년 범죄에 연류된 사람의 반 이상이 移民者였고 그 가운데 반 이상이 아일랜드인이었다. 토박이 美國人들은 아일랜드인들이 지저분하고 무식하고 난폭하며 위험스러운 民族이라는 온갖 편견이 팽배해 있었다. 특히 그들이 카톨릭교도들이라는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이들이 비숙련 단순노동자로 토착 美國人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주범으로 비난을 받았다. '미국 기능공 연합회(Order of United American Mechanics)'는 1844년 필라델피아 폭동 때 창단되었던 강력한 土着主義者들의 集團으로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가할 것을 서약해야만 했다.⁶⁶⁾ 급속히 증가하는 아일랜드 移民者의 숫자는 土着主義者들에게 정치적 부담감이 되었다. 상당수의 民主黨員들은 표를 의식해서 아일랜드인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했고 아일랜드인들도 급속히 정치 세력화해 갔다. 전국은 노예문제에 따른 南과 北의 지역적 分裂이 가속화되고 있었고, 西部 領土問題 역시 이러한 奴隸問題에 연계되어 혼란하였다. 1850년 '성조기 단(Order of the Star Spangle Banner)'이 뉴욕에서 탄생하여 移民排斥運動을 전개하였다. 미국기능공연합회와 보수 성향의 휘그당원들도 星條旗團에 가입하여 가장 강력한 제3당으로 세력이 결집되었다. 엄격한 비밀 결사 계율을 따랐던 星條旗團은 결코 외국인(이민자)이나 카톨릭 신자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고, 소속 직장에서 카톨릭 교도를 축출할 것을 맹세했다. 또 결사단의 조직이나 성격에 대해 미공개를 서약하여 이 黨을 無知黨(Know-Nothing Party)으로 불렀으며, 이후 1852년에 黨名을 美國黨(American Party)으로 명명하였다. 美國黨의 세력은 한때 6명의 주지사를 탄생시켰고 9개의 州 議會를 장악하였으나 북동부 지역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⁶⁷⁾

처음에는 남부인들도 관심을 보였으나 이는 전통적인 반카톨릭 정서의 반

66) Dale T. Knobel, *America for the Americans: The Nativist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Twayne, 1984), pp. 67-72.

67) 김봉중, 상계서, pp. 213-218.

영이지 북부 도시에 정착한 아일랜드인들과 접할 기회가 적은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그들은 북부와 대항해서 奴隸制度를 유지하는 것이었기에 美國黨을 북부의 地域黨으로 간주해서 더더욱 후원하지 않았다.⁶⁸⁾ 중서부에서 土着主義가 발생했다면 아일랜드인이 아니라 독일계 移民者들 때문이었다. 1831년부터 독일계 移民은 계속 증가하여 1852-1854년 사이 독일 移民者는 50만 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美國의 중서부는 인구밀도가 낮은 農業社會였고, 프로테스탄트들이어서 갈등이 심하지 않았다. 1854년 공화당이 창당되고 1860년 선거에서 공화당의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이 南北戰爭으로 치닫게 되자 토착주의의 美國黨은 전쟁의 포화 속에 자취를 감추었으나 정신은 美國人들 내면에 각인되어 있었다. 앵글로색슨 우월주의, 카톨릭에 대한 혐오, 열등 移民者들이 순결한 美國의 정체성을 파괴한다는 믿음, 美國은 백인, 앵글로색슨계, 프로테스탄트(WASP) 美國人이 지켜야 한다는 意志는 결코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南北戰爭이라는 國家的 分裂의 위기에 잠시 그 활동을 유예했던 것이다.⁶⁹⁾

3. 美國으로의 꿈: 移民洪水와 ‘도가니 文化’⁷⁰⁾

南北戰爭에서 북부가 승리함으로써 聯邦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한번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남부인들의 적개심과 분노는 더욱 깊어갈 뿐이었다. 美國이 진정으로 새로운 出發을 위한 계기가 필요하였는데, 사상 유례없는 폭발적인 産業革命에 의한 經濟復興이 계기가 되어 內戰의 후유증을 치유할 수가 있었다. 戰爭 전 3만 마일이던 鐵道는 19세기말까지 전 세계 鐵道網의 40%에 해당하는 19만 마일로 擴張되었다. 철강, 석

68) 상계서, pp.216-218.

69) 상계서, pp. 218-219.

70) 1908년에 뉴욕에서 공연된, 영국계 유대인인 이스라엘 장월(Israel Zangwill)의 ‘*The Melting Pot*(용해의 도가니)’란 제목의 연극은 대중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으며 移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만약 美國이 이질적인 것이라면 種族의 혼합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美國은 세계를 이끌어 가기에 유례없이 적합한 새로운 民族을 創造하면서 모든 民族의 장점을 결합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 이 연극의 주제였다. David Nye, 임찬빈(역), 『현대의 미국사회』(서울: 탐구당, 1996), pp. 179-196.

탄, 석유등과 같은 基幹 産業은 수십 배씩 증가하여 세계 굴지의 産業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美國에로의 꿈’은 오랜 가난으로 찌들었던 世界 各地의 사람들을 강하게 유혹했다. 유럽의 남동부 지역이 대표적인 곳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아시아까지 영향을 주어 中國人 移民이 시작되었고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1870년대는 280만 명이, 1880년대는 약 520만 명의 이민자가 미국에 도착했다. 1890년대는 경기가 침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370만 명이나 도착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인 1889년부터 1915년까지 무려 2천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초기 이민을 서부 유럽의 앵글로색슨계가 주도했다면 이제 비 앵글로색슨 및 남동부 유럽인들이 移民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한때 아일랜드인들이 대다수이던 매사추세츠의 면방직 공장 노동자들은 이탈리아인들로 대체되었다. 이탈리아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과일 상점은 이제 그리스인들이 차지하였다. 새로운 이주자들로 미국의 얼굴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도 다양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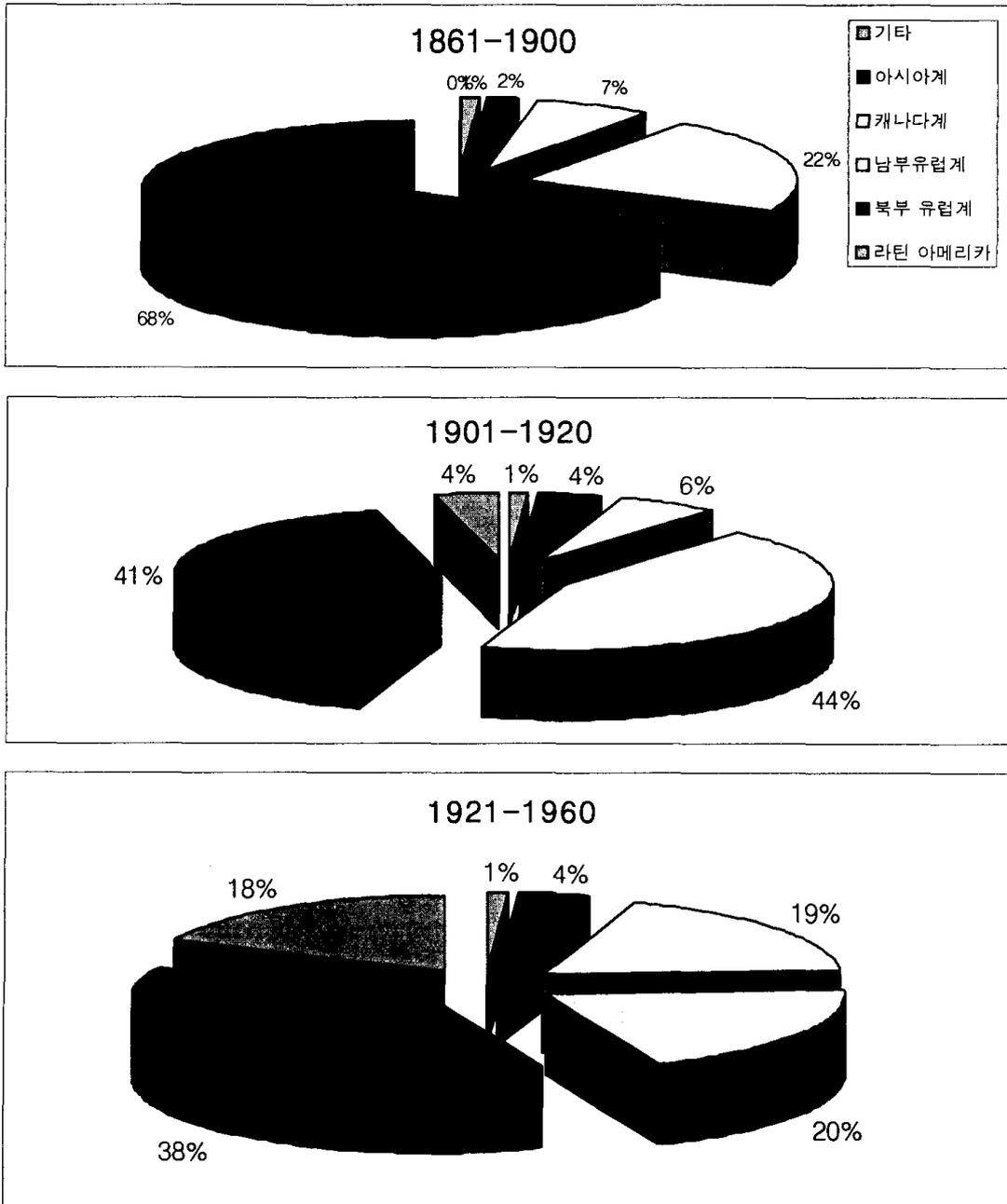
4천 명의 고용인을 둔 어느 회사에는 24개의 다양한 民族들이 어깨를 맞대고 노동을 하고 있었다. 약 50만 명의 이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뉴욕은 로마보다 더많은 이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다. 러시아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이주해온 8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는 뉴욕은 세계 제일의 유대인 도시가 되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미국은 거대한 인종 시장으로 변해 갔다.⁷¹⁾

숨돌릴 틈도 없이 급변하는 美國은 분명 변화와 흥분으로 가득 찬 희망의 나라였다. 그러나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유럽 남동부인들의 移民洪水는 그들로 하여금 방어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여러 형태의 土着主義 운동이 부활하였다. 1887년 3월의 아이오와 주의 클린턴에서 창설되었던 미국보호협회(American Protective Association: APA)는 중서부와 로키산맥 주변 주들에서 강한 호응을 얻었고 美國이 사상최악의 경제 공황을 맞고 있었던 1893년과 1894년 에 그 세력은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1896년 선거에서 윌리엄 매킨리(William McKinley)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APA의 입지는 급격히 축소되었

- <圖 3-2> 少數民族의 기간별 합법移民 비율(%)위치 -

71) 상계서, pp. 219-224.

<圖 3-2> 少數民族의 기간별 합법移民 비율(%)



출처: 미국에 대한 통계요약, 1986

다.72) 그러나 APA가 주창하는 정신은 이미 미국 전역에 스며들었다. 특히

72) APA는 1893년 오하이오 주지사에 맥킨리가 당선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맥킨리가 APA가 요청한 대로 카톨릭 신도들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지 않자 그와 APA 사이에 불화가 조성되었고, 맥킨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자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러나 AP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었다.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침례교와 감리교를 중심으로 근본주의(fundamentalism)사상이 뿌리깊던 남부 그리고 일부 중서부 지역에 APA의 정신은 계속 이어져 갔다. 조지아 주의 톰 왓슨(Tom Watson)은 1910년부터 1917년 간 그의 신문‘the Jeffersonian’을 통해 강력한 반 카톨릭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고무되어 1915년 조지아에서 새로이 출범한 KKK(Ku Klux Klan)단은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반 카톨릭, 반이민 운동을 주도하였다.⁷³⁾

19세기 후반의 土着主義 운동이 그 이전의 운동과 비교해서 특이한 점은 이 운동에 知識人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윈의 자연도태·생존경쟁 법칙은 移民의 洪水와 함께 다양한 민족집단을 형성하고 있던 미국에서 토착주의자들에게 가장 호소력이 있었다. 다윈의 앵글로색슨의 우수성에 대한 언급은 토착주의자들에게 인종적 우월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앞의 節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많은 학자들이 앵글로색슨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합조회 목사인 조시아 스트롱(Josiah Strong)은 앵글로색슨족이야말로 시민의 자유와 순수한 기독교 정신을 겸비했기에 고도의 문명을 창출할 수 있었고 그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설파했다.⁷⁴⁾

社會進化論者들의 앵글로색슨의 우월성 강조는 당시 移民洪水를 이루고 있던 새로운 이민자들을 경멸했다는 뜻이 있었지만, 移民을 제한할 의도는 아니었다. 어떤 민족이 美國에 오더라도 결국 우수한 앵글로색슨족이 사회를 이끌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 知識人의 관념과 APA와 같은 토착주의 조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19세기 말 토착주의 운동이 있었지만 그렇게 거센 것은 아니었다. 1900년에 이르러서 인구 4명당 1명 정도가 외국인 태생이라는 것은 美國의 國家 창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고 놀라운 사회적 변화였다. 南北戰爭 전 아일랜드 移民에 놀란 토박이들이 無知黨을 만들어서 移民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벌였지만 전쟁 이후의 移民者 수는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였다. 그들 대부분도 그동안 유럽인들이 미개한 민족으로 취급했던 남동부 사람들이

73) Leonard Dinnerstein, Roger L. Nichols, and David M. Reimers, *Natives and Strangers: A Multicultural History of America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 238.

74) 김봉중, 전계서, pp. 225-227.

었다. 물론 이들의 대부분이 카톨릭 신자들이었다.

美國의 대도시는 아일랜드인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인, 오스트리아-헝가리인, 러시아인, 그리스인, 유대인 등으로 북적거렸다. 언어가 달랐고 생활풍습이나 전통 역시 달랐다. 그들은 주로 다른 민족과 融和하기보다는 자기들集團별로 응집해서 생활했다.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그리고 세계최대의 유대인 거주지가 함께 공존하는, 즉 압축된 유럽을 그대로 옮겨 놓은 곳이 뉴욕이었다. 보스턴, 필라델피아, 시카고 등 다른 대도시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중국인까지 가세해서 인종 모자이크는 더욱 다양했다.⁷⁵⁾ 아울러 美國은 黑人 문제가 항상 수면 밑의 폭풍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가 해방되었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다. 人種差別의 편견은 여전했으며 이직 黑人들은 실제적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유럽에서의 민족간의 갈등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19세기 말 민족주의와 제국주의가 발흥하면서 민족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발칸반도는 그러한 민족·인종·종교간의 갈등이 폭발한 장소였으며 결국 제1차 世界大戰의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 그런데 19세기 말 美國이 이러한 민족 간 갈등을 그대로 떠맡게 되었다.

그러나 土着主義者들이 우려했던 美國의 반유대인 운동은 유럽에 비하자면 심하지 않았다. 유대인 이민은 19세기 말 美國 移民가운데 가장 예외적인 것이었다. 다른 이민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였으나 유대인의 경우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그들에 대한 집요한 偏見을 견디다못해, 특히 러시아의 알렉산더 2세 암살을 계기로 1881년 유대인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으로 이어지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美國移民에 줄을 이었다. 유대인들은 美國에 온지 채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美國의 경제·문화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1905년 뉴욕 시의 의사, 배우, 작곡가, 지휘자 등의 반 이상이 유대인이었으며 판사, 변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반 유대인의 정서가 유럽처럼 나타났다면 결코 생각 할 수 없는 일이었다.⁷⁶⁾

그러나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카톨릭 신도들에 대한 토박이들의

75) 상계서, p. 228.

76) 상계서, p. 230.

싸늘한 눈초리는 여전했으며, 반 유대주의도 유럽과의 차이는 있지만 美國이라고 해서 예외이지 않았다. 노동분쟁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이민자들이 우선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급진적 사회주의나 노동운동의 배후에는 비앵글로 색슨 移民者들의 음모가 있다고 여겼다. 살인사건이나 폭력이 있을 때는 마피아와 연관시켜 일단 아탈리아인의 소행으로 혐의를 두기가 일쑤였다.⁷⁷⁾ 이러한 현상은 서로 다른 인종과 이질적인 文化가 빚어낼 수 있는 어쩔수 없는 현상이다. 美國은 유럽의 역사에 비해 多文化主義의 피할 수 없는 흥역을 오히려 순탄하게 넘어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 남동부인들의 移民洪水에 대한 土着主義 저항운동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美國人의 流動性을 들 수 있다. 많은 美國人들은 한 곳에서 오래 정착하지 않았다. 美國의 시작부터 인구의 유동성은 특성 중의 하나였다. 美國은 자기 나라를 떠난 자들이 모인 이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고향을 떠나 美國에 건너온 자들에게 타향이기는 어디나 마찬가지로였다.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포착되면 그곳을 향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美國人들이었고 南北戰爭 후 서부의 팽창과 폭발적인 산업혁명이 인구의 이동을 가속화시켰다. 민족간의 갈등은 한정된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정착민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더욱 심화되는데 美國의 이런 流動性은 민족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또 하나는 多元主義의 정착이다. 몇몇 수의 민족들만이 모였다면 미국은 분열될 소지가 있었지만 19세기 말 미국은 온갖 다양한 민족, 인종, 종교, 언어의 집합체여서 어느 한 집단이 하나의 理念으로 美國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었다. 南北戰爭 이전의 아일랜드인 이주와는 또 달리 수많은 민족이, 그것도 단기간에 급격히 이주해옴으로써 이전과 같은 결집된 행동을 보여주기가 힘들었다.⁷⁸⁾

19세기 후반의 經濟成長은 군사력의 신장을 가져왔고,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Spanish-American War)을 계기로 美國은 과거 孤立主義에서 國際主義 國家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매킨리에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미국은 중남미와 태평양을 향한 膨脹을 시도하였고 국민들의 관심도

77) 상계서.

78) 상계서, pp. 230-232.

여기에 쏠리고 있었다. 20세기 시작부터 제1차 世界大戰까지의 시기를 革新主義 시기라고 일컫는데, 개혁의식을 갖고 있던 중산층 전문인들이 反 移民 운동을 환영하지 않았다.⁷⁹⁾ 移民을 계속 수용하되 그들을 美國 社會에 동화 시켜서 공통적인 美國文化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이른바 ‘도가니(Melting Pot) 文化’를 창출해야 한다는 믿음이 싹트고 있었다.

각종 이질적인 人種이나 文化가 서로 뒤섞여 融和한다는 ‘도가니 概念’은 많은 美國人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다. 새로운 移民者들이 人種이나 文化는 다르지만 평등한 입장에서 그들의 다양한 요소들을 미국의 도가니 속에 용해시키면 가장 美國的인 고유한 것이 生成되리라고 믿었다. 이 도가니 개념은 당시 미국의 가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다. 20세기초까지는 그 상징의 주체가 앵글로색슨계 美國人이었다. 이들은 새 移民者들의 文化를 기꺼이 수용하여 그들과 함께 도가니 속에서 용해되어 새로운 美國을 창출해 보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새 이민자들이 그들의 다양성을 포기하고 미국의 도가니에 적극적으로 용해되어 새로운 美國人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美國人은 기존의 앵글로색슨계 美國人의 傳統과 價値觀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다. 다시 말해 美國의 도가니에 들어와서 각자의 전통과 특색을 녹여내야 하는 주체는 새 移民者들이었지 기존의 美國人이 아니었다.⁸⁰⁾

앵글로색슨계 美國을 모델로 한 도가니 개념은 革新主義 시대에는 분명 호소력이 있었다.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美國文化가 도가니의 주성분이 되리라는 확신이 기존 美國人들에게 설득력이 있었고, 새로운 環境에 적응해야 하는 새 移民者들은 이러한 도가니 개념이 移民宥和政策으로 이어지리라고 믿었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概念이 유럽의 白人 새 移民者를 염두에 둔 것이지 다른 有色 人種까지 포함한 概念은 아니라는 것이다. 黑人, 인디언, 아시아계, 그리고 히스패닉계는 ‘도가니 담론’의 일차적인 관심에서 배제되었다. 20세기 초 文化 融合主義는 美國의 정체성을 놓고 벌인 백인들 사이의 文化 論爭이었던 것이다.⁸¹⁾

79) 최웅·김봉중, 『미국의 역사』 (서울: 소나무, 1997), p. 241.

80) 김봉중, 전계서, pp. 232-236.

81) 상계서, p. 236.

도가니 이론이 인기가 높던 당시에 의문을 제기하며 도가니의 文化 融和보다 文化的 多元主義(pluralism)를 주장한 知識人은 호레이스 칼렌(Horace Kallen)이었다. 그는 1915년 『민주주의 대 도가니*Democracy versus the Melting Pot*』라는 일련의 論文을 통해 도가니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文化적 融合을 시도하는 것은 美國의 民主主義에 상반되는 것임을 지적했다. 移民者들이 그들의 文化的 遺産을 포기하고 당시 美國의 지배적인 文化에 融和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美國의 建國精神에 어긋난다는 것이다.⁸²⁾ 그 당시 칼렌이 주창한 文化的 多元主義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革新主義 시대는 ‘도가니 이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후에, 정확하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는 재조명을 받게 되며 도가니 이론에 대항하는 주요한 담론의 축으로써 美國 多文化主義의 生成에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美國과 世界大戰: 소수민족 및 유색인종 葛藤

유럽에서의 제1차 世界大戰은 美國이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人種간 葛藤이 극심하게 표출되어 ‘여럿으로 구성되었지만 강력한 하나로서의 美國’ 즉 ‘도가니 이론’에 대한 疑問을 제기시켰다. 유럽이 연합국과 동맹국으로 양분되어 1914년에 제1차 世界大戰이 발발하자, 美國은 전통적인 유럽에 대한 孤立主義 정책을 표방하며 中立을 지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1917년 봄 유럽에서의 軍需産業의 이익 등을 고려, 國際主義를 표방하며 參戰하게 되었다.⁸³⁾ 독일이 美國의 적대국가가 되자 독일계 美國人들이 美國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으며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반 외국인 감정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전쟁수행을 위해 國力을 결집시켜야 하였고 아직 革新主義 정신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1919년에 발생한 무려 25차례의 인종폭동은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의해 비롯되었다. 40만 명 이상의 흑인들이 군에 복무하게 되고 50만 명 정도가 전쟁과 관련된 취업을 위해 북부와 중서부의 산업도시로 이주하게 됨에 따

82) Horace Kallen, *Culture and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Amo, 1924).

83) Arno J. Mayer,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여파,” Vann C. Woodward (ed), 박무성(역), 『美國史新論』 (서울: 법문사, 1993), p. 320.

라 갑자기 흑인들과 생활하게 된 백인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온갖 편견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1919년은 또한 적색 공포(Red Scare)의 해이기도 했다.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美國 社會는 혼란스러워졌다. 전쟁 중에는 국민 통합과 애국심이라는 명목아래 노동자들이 별다른 불만을 표출하지 못했지만 전후 그들이 불만이 곳곳의 쟁의로 나타났다. 소수이지만 급진주의자들의 소요도 있었다. 1919년 4월 지도적 인사들이 수취할 약 40개의 우편 폭발물이 우체국에서 발견되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전체가 적색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정보총국장에 에드거 후버(Edgar J. Hoover)가 임명되어 급진주의적 과격파에 대한 전국적인 검거에 들어갔다. 수 백 명의 혐의자들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美國 시민권이 없던 사람들을 본국으로 강제 추방했다. 이런 조치는 국민들의 호응 속에서 진행되었다. 1917년에 발생한 볼셰비키 혁명에 불안해하던 국민들은 1919년 미국 사회의 불안이 과격분자들과 연관된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도 과격분자들과 우편물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자 勞動爭議도 한풀 수그러들었고, 黑白 人種暴動도 점차 안정되었다. 결국 1920년 여름에 이르러 赤色恐怖의 히스테리도 잠잠해졌다.⁸⁴⁾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美國에서는 또다시 이민 반대운동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순수 美國人을 중심으로 美國의 발전을 저해하는 非 美國人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믿었다. 당연히 19세기말에 급속히 들어났던 새로운 이민자들, 즉 남동부 유럽 이주자들이 그 일차적인 경계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⁸⁵⁾

1919년 1월 16일 의회에서 통과된 금주법은 새로운 移民者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는 또 하나의 국가적 규제조치였다. 음주 문화와 그에 관련된 사회 혼란은 카톨릭 移民者들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믿어서 개신교회들이 후원하였고 특히 남부 근본주의자들의 후원은 절대적이었다. 거기에다 전시 곡물로서 술을 빚기보다는 음식을 만들어서 군인들에게 보내자는 애국심은 독일계 미국인 양조업자들을 향한 비난으로 이어졌다.⁸⁶⁾

84) 김봉중, 전계서, pp. 237-240.

85) 상계서, p. 240.

86) 상계서, pp. 240-241.

인종 폭동, 적색 공포, 금주법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1920년대 보수주의의 부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보수주의자들은 美國社會를 어지럽히는 근본적인 문제가 移民에 있다고 보았다. 1차 大戰 중에 잠시 주춤했던 移民의 물결은 전쟁이 끝나면서 다시 계속되었다. 1920년 6월부터 그 다음해 6월까지 80만 명이 美國으로 건너왔고 그중 65%는 여전히 남동부 유럽인들이었다. 移民規制 움직임은 이러한 보수적 흐름에 맞추어 다시 부활하였고 美國은 사상 최초로 유럽 移民을 겨냥한 反 移民法을 제정했다.

1921년 의회를 통과한 緊急移民法(Emergency Immigration Act)⁸⁷⁾과 1924년에 개정된 國적별 移民割當制法(National Origins Acts)⁸⁸⁾은 남동부 유럽 이민을 줄이는 대신 북서부 移民의 비율을 높이려는 의도였다. 남동부 유럽인들이 1890년 이후에 급속히 증가했기에 이들이 가장 피해를 보았고 또한 이 법으로 인해서 동아시아로부터의 移民은 완전히 금지되었다. 이러한 쿼터제의 도입은 남동부 유럽이민의 홍수를 규제하는데는 성공했으나 새 이민법에는 중남미 이민에 대한 조항이 없었기에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히스패닉계 移民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역시 카톨릭 신자들이었던 중남미 移民者들은 美國의 移民을 주도하게 되었고 향후 美國移民과 그에 따른 반발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또 다른 보수주의의 거센 파도는 KKK단의 부활과 급속한 세력의 확산이다. 중서부 지역이나 서부 해안 지역 할 것 없이 하얀 두건을 쓰고 십자가를 든 KKK는 공공연히 앵글로색슨-프로테스탄트를 기반으로 한 美國 보수주의의 부활을 부르짖었다. 종전에 反 黑人 운동에 초점을 맞추었던 그들이 이제는 반카톨릭, 반유대인, 反移民을 외치며 사회 전반에 걸친 도덕운동으로 확산시켰다. 여기에 남부 근본주의자들이 합세하면서 그 세력은 절정에 달했다. 최대의 피해자는 남동부 유럽출신의 새 移民者들이었다.⁸⁹⁾

1920년대의 보수주의는 美國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다. 19세기 중반의 無

87) 어느 민족이든 1910년을 기준으로 해서 1910년 당시 해당 미국 거주인의 3%를 초과해서 미국에 이민을 올 수 없도록 규제한 법임.

88) 긴급이민법에 비해 기준연도를 1890년도로 앞당겨졌고, 비율도 2%로 줄었다.

89) 상계서, p. 242.

知黨에서 시작한 反 移民運動이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더니 결국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총체적인 힘을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1929년의 대공황의 국가적 위기와 그리고 제2차 世界大戰의 발발로 美國은 국민 모두의 외부 敵에 대항하기 위해 다시 國力을 결집해야 했으므로 ‘전통적 土着主義者들의 마지막 저항’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말았다.⁹⁰⁾

대공황과 제2차 世界大戰은 多文化主義를 향한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전까지의 ‘도가니 理論’에 근거한 文化 融和主義는 백인들 사이의 文化 논쟁이었지만, 이를 기점으로 黑人을 포함한 유색인종 및 소수민족들과 美國 백인 주류민족과의 葛藤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葛藤을 통하여 美國의 이념과 정체성이 타격을 입으면서 한편으로는 多元主義와 多文化主義의 정착을 위한 싹이 자라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南北戰爭을 통해 노예로부터 해방된 黑人들은 제1차 世界大戰을 계기로 입지를 넓혀 갈 수가 있었다. 전시 경기가 부양되어 黑人들을 고용하는 업체가 늘어난 결과였다. 결과 도시밀집지역에 거주하게 된 黑人들은 백인들의 경제의 대상이었고 그 갈등의 결과 여러 도시에서 人種暴動이 유발되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북부 도시이주 黑人 인구의 증가와 20만에 달하는 參戰 黑人兵士들의 자부심과 애국심의 고취 등으로 黑人들의 정치적 비중은 신장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할렘 르네상스’운동⁹¹⁾과 마루쿠스 가비(Marcus Garvey)⁹²⁾ 등의 영향으로 黑人들이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美國社會에서 당당하고 적극적인 주체가 되기 위한 의식의 고양과 심리적 토대가 쌓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할렘 르네상스나 ‘가비주의’가 黑人들을 규합했다고는 하나 아직 흑인 민권운동이나 민족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멀리는 南北戰爭

90) 상계서, p.243.

91) 넓은 의미에서는 인종간의 관계 개선과 흑인에 대한 긍정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예술활동을 의미한다. 흑인 자의식을 중심으로 흑인들이 미국사회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 일종의 인종융화성향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논문을 참조. 황혜성, “가려진 목소리: 할렘 르네상스의 흑인 여성 작가들,” 『미국사 연구』 11, (2000. 5), p. 93.

92) 황혜성, “흑인민족주의: 역사적 변이,” 『미국사회의 지적흐름』 미국학총서I, (서울: 서울대 미국학연구소, 1998), pp. 235-248. ‘할렘 르네상스’가 인종융화적 운동인데 반해 가비는 백인들의 인종편견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지적하며 결연한 흑백 분리주의를 표방하였다.

이전 노예해방운동의 흑인지도자 프레드릭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 가까운 경제적 흑인 민족주의자 부커 T. 워싱턴(Booker T. Washington)과 문화적 흑인 민족주의를 표방했던 두 보이스(W. E. B. Du Bois)를 이어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도 黑人들의 자의식을 일깨워 美國社會에서 권익수호를 위해 일할 기틀을 다져 놓았다. 그리고 이는 훗날 본격적인 흑인 민권운동을 위한 귀중한 불씨를 제공하고, 美國의 多元主義的 전통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歷史的 意義가 크다고 하겠다.⁹³⁾

제1·2차 世界大戰 사이에 인디언들의 위상에도 변화가 있었다. 19세기 말 도스 법(Daws Severaly Act)⁹⁴⁾을 적용, 대대적인 人種融和政策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이를 파기하고 1934년 인디언 재조직법(Indian Reorganization Act)을 제정하였다. 이는 融和主義에서 多元主義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인디언들이 백인 주류 사회에 동화하지 않고도 그들의 독특한 전통을 지키며 美國文化의 한 부분을 지탱하는 것, 그 자체가 美國의 多文化主義를 운택하게 한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⁹⁵⁾

동양인에 대한 美國의 인식과 태도는 달랐다. 美國 역사상 최초로 특정 민족 전체에 대해 규제가 가해진 것은 1882년의 중국인 배척법으로 중국인 노동자의 移民을 금지한 것이다. 이후 동양인 移民의 주류는 일본인이었다. 중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일본인에게 전이되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의 대 지진으로 美國社會의 반 아시아인 감정이 폭발하였고 일본계와 한국계 어린이들은 백인학교에서 차이나타운의 동양인 학교로 전학을 가야한다는 운동이 일어났다. 극동 아시아에서 세력이 커나가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은 중재를 나서 ‘신사협정(Gentleman’s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캘리포니아는 일본인에 대한 편파적인 차별을 중단하는 대신 일본 정부는 美國으로의 勞動移民을 자발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1930년대에 들면서 美國 내에서는 반 移民의 기류가 수그러들었지만

93) 김봉중, 전계서, pp. 244-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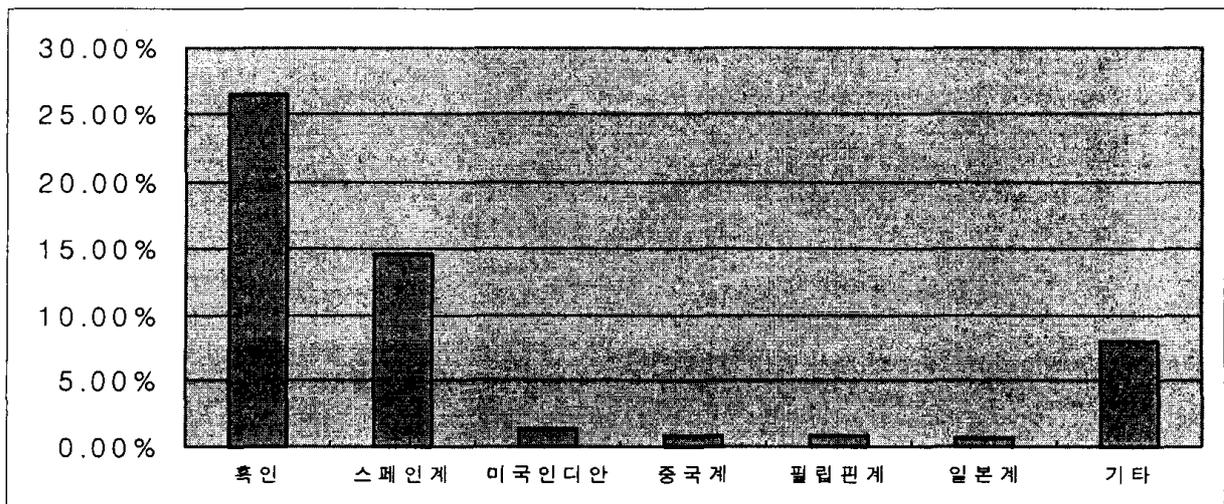
94) 인디언의 미국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1887년 의회에서 제정한 법. 인디언 가족 당 160에이커의 땅을 주고 인디언 부락에 연방에서 관리하는 공립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이 법의 주요 골자임. 인디언 사회에 사유 재산제를 도입하고 미국식 교육을 시킴으로서 공동체 생활에 근거를 둔 인디언 문화의 근거를 말살하려는 시도였음.

95) 상계서, p. 247.

일본인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었다.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캘리포니아 土着主義者들은 일본인 격리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런 전쟁의 히스테리 속에서 일본계 美國人들은 생활의 근거지를 포기하고 내륙지방의 집단수용소에 수용되기도 하였다. 같은 적국이었던 독일인에 대해서는 편견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은 多文化主義의 融和냐, 多元主義냐 하는 범주가 아닌 철저한 分離主義의 극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전반부에 들어서서 지금껏 土着主義者들의 공격대상이었던 동구권 移民者들에 대한 편견이나, 종교적인 편견, 아일랜드나 유대인등에 대한 혐오 등 민족간의 차이는 그 意味를 잃었다. 이제는 피부색이 주는 차이에만 한정될 정도로 美國社會에서의 인종 및 소수민족간 갈등 범주가 줄어들어, 多文化主義 수용을 위한 국민적 합의 토대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圖 3-3> 少數民族 거주비율(%)



출처: 미국에 대한 통계요약, 1986

제3절 美國 飲食文化의 발전⁹⁶⁾

1. 초기 開拓者들과 土着人들의 飲食文化 교류

96) 본 節은 다음 문헌을 대부분 참고하여 작성되어졌음. 본 節 주제의 논리적 전개의 편의상 특히 제7장 부분을 주로 인용하였음; Elaine N. McIntosh, 김형곤(역), 『미국의 음식문화』(서울: 역민사, 1999), pp. 179-230.

가장 먼저 土着 아메리칸 인디언 飲食은 초기 개척자들의 미국에서의 음식문화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美國 땅에 옥수수, 토마토, 호박, 땅콩, 담배, 칠면조, 그리고 야생 쌀(Wild Rice)과 같은 작물들을 처음 소개한 것은 농사를 짓는 인디언들이었다. 다른 인디언들은 야생동물, 생선, 계절과일, 식물, 뿌리, 열매 등에 의존하며 살았다. 초기의 移民 開拓者들이 그들의 굶주림을 막기 위해서 옥수수·호박으로 飲食을 만들고, 달콤한 단풍당밀(Maple syrup)을 만들기 위해서 단풍나무를 두드리는 方法도 모두 인디언들에게 배운 것들이었다.

定着民들이 南部와 서부지역으로 점차 이동해 갔으나 인디언들은 거기에서도 開拓者들의 飲食에 큰 기여를 했다. 인디언들은 특히 穀食인 옥수수를 多樣的 料理에 이용하는데 뛰어났다. 그것을 식민자들이 採擇하고 수정, 보완하여 發展시켰던 것이다. 이런 것에는 주로 옥수수로 만든 빵의 多樣的 種類에서 볼 수 있다. 우유와 계란을 넣지 않고 만든 옥수수빵인 콘 폰, 팽이 모양의 케이크인 호 케이크, 굵게 간 옥수수로 쏘 죽인 하미니, 또 다른 옥수수 빵인 콘 스틱, 자니 케이크, 녹비색의 옥수수 빵인 스푼 브레드, 옥수수 가루로 만든 튀김 빵인 허시 퍼피 등이 있다.

옥수수는 수프와 스투料理로도 만들어졌다. 식민자들은 인디언들의 또 다른 주요産物인 콩이 옥수수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서킷타시와 샴프 등을 만드는 方法도 배웠다.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와 옥수수의 절묘한 결합으로 만들어진 허그 앤 하미니는 開拓者들이 서부로 이주하는 어떤 단계에도 생존을 위한 가장 신뢰할 수 있던 飲食이었다. 비록 인디언들이 야채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인디언들의 飲食의 보다 많은 부분은 사냥을 통해 제공된 것이었다. 開拓者들은 인디언으로부터 쇠고기 육포인 저키와 쇠고기 가루에 지방과 건포도 등을 섞어 굳힌 식품인 페미칸 등을 만드는 方法을 배웠다. 이러한 飲食은 開拓者들이 머나먼 서부를 개척할 때 너무나 重要的 飲食들이었다. 인디언의 料理 특히 옥수수로 만든 料理는 美國의 모든 지역의 飲食 발달에 지대한 影響을 주었다.

두 번째로 스페인 移住民들에 의해 미국의 飲食文化는 한단계 도약하여

발전하였다. 1493년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의 히스파니올라 섬에 약 1500여명의 定着民을 데리고 온 두 번째 항해에서 스페인들이 아메리카 大陸에 정착하는 첫 移民者가 되었다. 이들은 오렌지 씨앗과 사탕수수 줄기를 가져 왔고 이 작물을 중심으로 영역을 확장해 갔다. 스페인 식민자들은 아즈텍에서 초콜릿을 발견해 이를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소개했다. 식민자 중 한 사람인 에르난도 데 소토(Hernando de Soto)는 1539년에 플로리다에 오렌지를 심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심은 오렌지는 쓴맛이 나는 오렌지로 오늘날 플로리다에서 野生으로 자라고 있다. 오늘날 주로 먹는 달콤한 오렌지는 그 후에 流入되었고 이는 플로리다와 같은 뜻이 되었다. 스페인은 북아메리카에 처음에는 서인도 지역으로, 후엔 아메리카 본토로 여러 重要的 동물들을 流入시킨 最初의 유럽인들이었다. 1493년에 닭을 1542년에 돼지를 1550년경에 소등이 流入되었다. 얼마 후 텍사스는 스페인 정복자로부터 도망쳐 나온 그 동물을 키우게 되었다.

스페인은 1516년경부터 카리브 해안 지역에서 설탕을 生産하기 시작했다. 사탕수수가 1751년 예수회 선교단에 의해 루이지애나 지역에 導入되었고 그 후 1791년 북아메리카 本土에 최초의 설탕 공장이 뉴올리언즈 지방에 세워져 운영되었다. 럼주는 폰스 데 레온에 의해 최초의 유럽 定着民이 오기 약 100년 전에 푸에르토리코로부터 플로리다로 流入되었다. 하나의 음료로 이용되는 것과 더불어 럼주는 검은콩의 오레가노 향료와 마늘의 맛을 강조하기 위하여 스페인들에 의해 이용되었다. 스페인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강하게 美國의 料理 전반에 革命的인 影響을 주었다. 이반 존스(Evan Jones)는 美國의 飲食에 있어서 다른 어떤 유럽인의 影響보다도 스페인의 影響이 컸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초기 미국 음식문화에 영향을 준 민족은 아프리카 흑인민족들이다. 美國 飲食文化 전반에 걸쳐 아프리카의 飲食 전형은 美國의 飲食習慣에 지대한 影響과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1619년 최초로 아메리카에 流入되어 노동자로서 노예生活을 하며 약 250년 이상 계속되는 이동에 고유의 각종 씨앗으로 먹을 수 있는 飲食을 마련하게 되었다. 南部지역에서 인기있는 검은 눈 완두콩이 그 시절 流入되어 온 것들 중 하나다. 아프리카 黑人들은 남부지역에 많이 있었으므로 특히 美國 南部의 料理에 강한 영향을 미

쳤다. 黑人奴隸 요리사들은 그들 飲食의 일부와 가장 좋아했던 飲食을 白人 農場主들에게 소개했던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점차적으로 그들의 料理는 인정된 南部 料理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美國人들의 식사는 아프리카의 飲食 습관에 동화되어 발전되었음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이는 노예로서 부역을 지키던 아프리카인들이 白人 농장주들에게 그들의 일부 飲食과 좋아하던 飲食을 선보이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프라이드치킨, 오크라 수프, 땅콩을 넣은 양념 치킨, 검은 눈 완두콩, 연한 완두콩, 쌀 그리고 바나나 푸딩 디저트나 사탕수수 당밀을 넣어 달게 한 암 파이 등이 아프리카 맛의 일부에 속한다.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프라이드치킨은 南部料理에 스며든 아프리카 料理로, 이것은 아프리카 料理의 영향 중 대표적인 것이다. 전반적으로 美國사회에서 북부의 조리법보다 南部의 조리법에 아프리카의 영향이 강하게 미친 것은 당연하다. 오늘날 美國에서의 이러한 料理 傳統의 다양성은 아프리카 文化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풍부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2. 유럽 각국 料理들의 융화

프랑스 요리는 후기에 유럽각국 요리들이 미국 음식으로의 융화가 이루어지는 중에도 제일 먼저 영향을 미쳤다. 1620년대에 캐나다의 아카디아(현재의 노바 스코티아)에 이주해 와서 살던 프랑스인들이 1755년 이곳을 점령한 영국인들에 의해서 美國 南部의 루이지애나로 강제 이주되었다. 그곳에서 프랑스인들이 發展시킨 料理가 바로 케이준이다. 케이준 料理는 그들의 고향인 프랑스와 새로운 지방에서의 料理법이 합쳐진 形態가 주가 되고 인디언과 스페인의 影響도 더해져서 형성되었다. 이들은 갑자기 쫓겨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궁핍한 生活을 했다. 그래서 구하기 어려운 버터 대신 돼지의 지방을 쓰고, 고기는 날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아서 補充했는데, 이것들을 한 냄비에 몰아넣고 조리를 했다. 따라서 당연히 고향인 프랑스식의 예쁘고 우아한 料理보다는 좀 거칠고 양으로 승부하며, 거친 材料의 맛을 보완하기 위해 양념을 많이 쓰는 料理가 된 것이다. 대표적인 케이준

料理로는 여러 가지 야채와 닭고기, 햄 등을 넣고 만든 볶음밥인 잠발라야와 역시 여러가지 材料를 넣고 만드는 되직한 스투 검보가 있다.

영국인들의 料理가 美國 料理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그들이 아메리카 大陸 최초의 진정한 식민자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영국 料理는 原材料를 가지고 料理를 하는데 있어 즉석料理와 단순화로 설명된다. 이는 프랑스 料理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속성이다. 초기 영국 식민자들에게 익숙했던 料理 方法은 아주 초보적이고 개방적인 方法이었다. 가령 고기를 料理하기 위해 한두 개의 꼬챙이를 이용하는 식이었다. 그들은 新大陸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결코 많지 않은 도구를 가지고도 상대적으로 쉽게 적응했다.

식민자들은 가능한 한 벽난로를 가진 통나무집을 짓고 살았다. 그리고 많은 料理들이 집밖에서 이루어졌다. 이미 舊 大陸의 영국인들에게는 익숙해진 方法으로 식민자들이 인디언 친구들에게 전했던 바비큐 식으로 飲食이 만들어졌다. 그들이 적절히 使用한 도구들은 영국에서 건너올 때 배로 가져온 것들이었다. 손잡이가 긴 스투용 냄비, 프라이팬, 스투용 작은 팬, 그리고 푸딩을 끓일 수 있는 깡통 같은 냄비 등 이었다.그 후 이런 飲食은 무겁고 가장자리가 깊은 쇠뚜껑을 가진 무쇠로 만든 솥에서 料理되었다. 이것은 활활 타는 벽난로 가운데에 세 개의 짧은 다리 위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초창기 뉴잉글랜드 요리사들이 즐겨 사용한 양념은 후추, 정향나무, 육두구, 육계피, 생강 등이었다. 심지어 순례자인 펠그들도 이러한 양념을 使用했다. 영국인의 複寫版 같았던 新大陸으로 이주 온 뉴잉글랜드 사람들은 육류에 동반된 반찬으로 다른 어떤 품목보다 야채를 즐겨 이용했다. 당시에는 푸르고 잎이 무성한 야채는 경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대로 인디언들은 열광적으로 야채를 소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야채 소비는 점차적으로 移民 온 영국인들로 하여금 야채 소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네덜란드 루트(Wavery Root)와 로후먼트(Richard de Rochemont)는 근본적으로 영국 料理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영국 料理에 흡수되어 있다고 설명되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인들은 풍부하고 영양있는 飲食을 보다 강조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美國人들의 料理는 네덜란드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먹는 쿠키는 네덜란

드의 맛있는 飮食인 코에키에서 유래되었다. 네덜란드 移住民들은 오일 케이크인 파배기, 도넛, 와플, 고기만두 식의 과일 푸딩인 덤플링, 양배추 샐러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원래 이름은 ‘쿨 슬라’인 ‘쿨 슬로’ 등도 소개했다.

독일 料理 역시 新大陸에서 형성된 새로운 美國의 飮食과 양립될 수 있다. 독일인의 料理가 한 나라를 象徵하는 料理로서 新大陸 美國 내에서 상실 됐다고 보기보다는 독일식料理 자체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통합의 形態로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상 거의 변화하지 않은 독일인의 料理는 본래의 독일식 이름을 가지고 이미 존재하는 美國式 飮食 레퍼토리에 더해졌을 뿐이다. 美國의 소비자들은 독일 移住民들의 이러한 飮食에 너무나 잘 적응을 한 나머지 飮食의 이름이 실제로 독일어인지 아닌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면, 발효시킨 독일식 김치로 소금에 절인 양배추인 자우어크라우트, 짭짤한 맥주 안주 프렛젤, 조제한 호밀빵 품퍼니켈, 송아지 고기로 만든 커틀릿인 비엔나 슈니첼 등이다. 移民 온 독일인들은 美國人들에게 비엔나 혹은 핫도그라고 불리는 가장 人氣 있는 소시지인 프랑크푸르트 소시지를 전해 주었다. 본래 이것은 순수한 쇠고기로 만든 소시지였다. 그러나 美國에 온 독일인과 美國人들은 다양한 수정 과정을 통하여 닭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 고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물과 희석제를 사용하여 발전시켰다.

스칸디나비아인의 飮食은 美國에서 스칸디나비아 민족 거주지에 주로 한정되어 발전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으며, 그들의 飮食 몇 가지는 그 지역에서 너무나 잘 수용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덴마크 식의 파이 비슷한 과자 대니쉬 페이스트리, 크리스마스 케이크인 줄리케이지와 같은 다양한 커피 빵, 빛의 축제날인 스웨덴의 성 루시아 날을 기리면서 먹는 루시아 롤빵 등이 있다. 또한 移民 온 스칸디나비아 인들은 오늘날 美國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약 15분 가량의 휴식 시간인 커피 브레이크와 이때 같이 먹는 과자 류의 기원 등 많은 부분에 기여를 했다. 미네소타, 다코타, 위스콘신 등 몇몇 지역에서는 원래 스칸디나비아인들이 만들었던 飮食인 레프세가 이주한 스칸디나비아인들의 거주지는 물론 많은 美國人들에게 전해졌다. 서서 먹는 스칸디나비아 料理의 일종인 바이킹 料理 스모르가스 보르드는 美國의 飮食文化에 가장 큰 영

향을 준 飮食이다. 원형의 바이킹 料理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다같이 최고로 인기가 있었다. 이것은 다양한 뜨거운 飮食과 찬 飮食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래 뷔페 스타일의 飮食이었다. 이 飮食은 남녀 주인이 원하는 만큼의 분량으로 구성되며 대체적으로 이 飮食을 만들고 대접하는 효과는 좋다.

진짜 바이킹 料理에 속하는 전형적인 飮食은 주요 앙트레 料理로 생선, 육류, 치즈 등이고 디저트와 음료수 등이다. 청어와 사탕무 샐러드인 실드 살라트와 스웨덴식 고기완자인 미트볼은 이러한 飮食들 중에서 가장 傳統적인 품목이다. 이 스타일의 飮食은 美國의 중서부, 북부지역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누려 왔는데 이 지역은 이주한 스칸디나비아인들의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들은 가정에서만 아니라 레스토랑, 심지어 사회의 각종 모임에서도 이것들을 즐겨 먹는다. 이것은 점차 美國 전역에 걸쳐 일반화되었고 나아가 유럽인들에게도 일반화되었는데 이를 우리는 뷔페라고 부르고 있다. 그 형태는 단순히 식욕을 돋우는 飮食이나 수프 전에 나오는 가벼운 料理인 오르되브르로부터 각테일 파티나 공들인 뷔페 晚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타 국가의 料理는 미국음식의 주류 속에 편입되지는 못했지만 많은 음식들이 미국전역을 통해 폭넓게 받아들여졌다. 美國은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이 세 나라 이외의 民族 飮食이 美國에 들어오는 것에 매우 保守的이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실제의 예로는,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스트로가노프,⁹⁷⁾ 헝가리의 영향을 받은 굴라시,⁹⁸⁾ 러시아와 폴란드의 영향을 받은 보르쉬⁹⁹⁾ 그리고 너무나 多樣的인 중국 飮食, 멕시코의 影響을 받은 엔칠라다¹⁰⁰⁾ 와 트르티야¹⁰¹⁾ 등이 있다. 어떤 민족의 飮食들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세련되어 美國 내에서 大衆 飮食의 대열에 들어간 것도 있다. 가장 잘 알려진 大衆 飮食은 프렌치 프라이즈이다. 이것은 1860년대에 美國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이는 프랑스

97) 쇠고기나 닭고기 등으로 만든 붉은 수프에 버섯 등을 넣어 유산으로 산화시킨 크림으로 주로 빵이나 과자 등을 적어서 먹는데 사용됨.

98) 고추등의 양념으로 맵게 만든 쇠고기와 야채가 버무려진 스투입.

99) 당근즙을 넣은 수프.

100) 옥수수가루에 고추로 양념한 멕시코 파이.

101) 멕시코 지방주민의 음식인 둥글넓적한 옥수수 빵.

의 유명한 감자 料理인 폼프 프리테로부터 由來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베트남전 이후에는 베트남의 쌀국수, 泰國의 料理도 들어왔으며 일본의 초밥, 동서양의 料理材料와 料理方法을 융합해서 만드는 퓨전이 성행하는 등 다양한 文化를 이루고 있다.

3. 鄉土飲食의 발전

鄉土飲食은 어느 지방의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그 지방에만 유일하게 있는 飲食이다. 엄격히 말해 하나의 독특한 鄉土飲食은 그 지역 내에서만 발전된 飲食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飲食은 무엇보다도 飲食 材料의 이용 가능성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民族的 배경을 가진 거주자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鄉土飲食은 그 지역의 각종 환경요인 예를 들면 생선, 조개, 특유의 과일 및 야채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대체로 鄉土飲食은 고립되어서 강조되고 발전된다. 또한 외부 세계와 접촉이 거의 없이 작은 지역에서 큰 변화를 겪지 않고 개발되고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 대표적인 예는 코니시 파이인데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영국의 코넬 지방에서 移民 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북부 미네소타와 미시간 상부 지역에서 여전히 인기가 높다. 코넬지방의 광부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없는데도 여전히 그러하다.

美國의 각 지역의 독특한 향토음식은 세계 각처로부터의 移住民 집단들이 각각의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서 토착인디언 음식과의 융화에 의해 개발 발전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美國 料理의 형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토착 인디언들의 飲食이다. 최초의 유럽탐험가이자 移民勢力인 스페인들은 인디언에 이어 影響을 미쳤으며 이들의 초창기영향은 美國 남부지역에 한정되었다.

초기 식민자들의 飲食은 인디언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면서 發展했다. 특히 南部지역을 중심으로 한 飲食은 아프리카 黑人 노예들에 의해서 적지 않은 影響을 받았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남부 식민지에서는 플랜테이션에서 자라는 材料를 가지고 만든 시골풍의 飲食이 개발되었다.

플로리다에서는 멕시코만 주위를 따라 이 지역 특유의 飲食들이 인디언, 스페인인, 프랑스인,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의 影響을 받고 발달되었다.

루이지애나의 독특한 카준 料理는 프랑스인, 인디언, 아프리카 黑人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것인 반면에 크레올 料理는 여기에다 스페인의 影響도 함께 받아 발달된 飲食이다.

서부 텍사스에서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남서부 지역에서는 스페인과 인디언 料理의 혼합체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料理가 발전하였다.

중서부와 서부 지역 특유의 郷土飲食은 자신들의 飲食을 가져와 정착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늦게 정착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혼치않다. 그러나 이 지역에도 많은 외국인이 역시 이주해 왔으며 이주자들이 충분히 늘어났을 때 그들 飲食의 일부가 그 지역 특유의 飲食으로 발전되었다. 민족 集團의 飲食이 대체로 지역적인 현상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 郷土 飲食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4. 大衆飲食의 特性

大衆飲食이란 일반적인 패스트푸드, 걸으면서 먹는 飲食, 그리고 상업화되고 충분히 美國化되어 이제는 원래의 人種的 기원을 둔 飲食과는 根本的으로 차이가 있는 서로 엉켜 혼합된 人種的인 飲食 등을 포함한다.

패스트푸드에는 햄버거, 치즈버거, 생선버거, 프랑스식 감자튀김인 프렌치 프라이즈, 피자, 그리고 멕시코 料理로 등글넓적한 옥수수 빵 토르티야, 파삭파삭하게 될 때까지 구운 토르티야 토스타토, 저민 고기 등을 토르티야로 싸 타코, 고기와 치즈를 얹은 토르티야의 일종인 뷰리토 등이 있다. 이러한 飲食들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는 물론 식료품 가게의 냉동실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어떤 패스트푸드는 성격상 상당히 지역적이어서 郷土飲食임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굴과 메기로 만든 샌드위치는 앨라바마에서 大衆飲食으로 유명하다. 또한 뉴잉글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대서양 근해를 따라 있는 지방에서는 따뜻하게 하여 양파링과 함께 먹는 바다가재 롤빵을 길가의 간이 식당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북동부 지방의 또 다른 전통적인

패스트푸드는 대합 조개를 넣은 빵을 기름에 튀긴 것이다.

人種的 혼합이 뒤엉켜 있는 大衆飲食 중 어떤 것은 美國의 食堂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예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飲食으로 미국식 中國料理인 초면과 초면국수가 있다. 이태리의 영향을 받은 飲食으로 통조림 스파게티, 마카로니, 저며서 양념한 고기를 밀가루 반죽으로 썬 料理인 라비올리, 그리고 항상 토마스 소스를 기본으로 하여 먹는 스파게티 등이 있다.

걸으면서 먹는 飲食이란 일하러 가기 전이나 學校 가기 전, 그리고 點心시간에 먹는 작은 스낵을 말한다. 이것은 現場에 거의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나 주문 후 빠른 시간에 나오는 飲食점에서 구입 할 수 있다. 이런 것에는 커피, 주스, 과일, 롤빵, 그리고 다른 스낵 飲食이 포함된다. 오늘날 美國에서 이런 飲食들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大衆飲食은 창조성이 부족하고, 오늘날 美國의 많은 飲食에서 問題가 되고 있는 현상인 영양상의 결점을 안고 있다. 너무 짜거나 지방이 너무 많거나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衆飲食의 상업상의 미래는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것 같다. 大衆飲食은 준비를 많이 하여 먹는 다른 飲食보다 편리하고 값이 저렴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의 바쁜 여행자, 사업가, 노동자,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가족과 가정의 요구를 요술을 부리듯이 해치워야 하는 가정주부들의 시간을 덜어준다. 美國 일반국민들의 대부분은 이 大衆飲食의 맛에 너무나 익숙해져 실제로 집에서 만든 料理보다 이 패스트푸드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바쁜 사회생활에 식사의 편리함을 추구한 것이 바로 패스트푸드이다. 효율적인 조리시간과 식사시간의 운영으로 불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줄여보려는 美國人의 합리적인 사고의 부산물이 바로 패스트푸드인 것이다. 1880년대, 移民者들에 의해 美國 땅에 전해진 핫도그와 햄버거는 그로부터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가장 능률적인 飲食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美國의 슈퍼마켓에 가보면, 多樣한 통조림의 종류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능률면에서는 통조림만큼 확실한 飲食이 없다. 美國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통조림으로 만들기를 좋아하고, 또 그만큼 통조림 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점 또한 美國的 特性이라 할 수 있다.

제4절 美國 多文化主義의 生成에 대한 논의

본 節에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논의해온 미국적 이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이민 민족집단간의 문화적 갈등 및 음식문화의 발전 등의 내용을 토대로 미국 다문화주의의 생성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제1장 제2절에서 본 論文이 규명해 내하고자 했던 세 가지 目的 중 가장 핵심적인 主題이기도 하다.

다문화주의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에 관한 논의와 아울러 교과과정 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용어가 미국에서 널리 통용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체계적인 이론이나 조직적인 운동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도자도 없고 권위적인 이론가도 없으며 필수적인 텍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며 공식적인 역사도 없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학위논문이 발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주장들은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¹⁰²⁾

제II장 제3절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다문화주의는 지배문화의 억압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한 미국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종족적, 성적 차이를 인식하는 데서 생성되었다고 본다. 그 인식의 바탕 위에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과 태도를 배양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가리켜 다문화주의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미국 사회에서의 관용과 다양성의 존중이 다문화주의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된다.

미국은 초기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였던 시절에는 각 민족, 종교에 따라 분산되어 13개 식민지(주)는 각기 다른 13개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이들은 영국의 식민지라는 것 외에 공통점이 없었다. 각 식민지들은 유럽의 13개 국가가 그대로 아메리카에 이전한 것처럼 민족적 정체성 또한 그대로 유지되

102) 정상준, “다문화 주의를 넘어서,” 미국학 연구소(편), 『21세기 미국의 역사적 전망 II-문화·경제』 미국학총서IV, (서울: 서울대 출판부, 2002), p. 147.

었다. 종교적인 성향 또한 불변이었다. 메사스츄세츠의 청교도, 버지니아의 국교도, 펜실베이니아의 퀘이커 교도, 중부 식민지에 산재해 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도, 그리고 독일의 프로테스탄트등 미국은 시작부터 분명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였다. 이러한 여건에 의하여 이들은 식민초기에는 문화적 융화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유럽과는 달리 아메리카의 광활한 대지는 각각의 민족집단 및 종교 집단을 수용하기에 충분했으므로 서로간의 충돌을 피해서 정착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유럽에서의 분쟁을 재현할 필요가 없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융화할 수 있었다. 또한 공통의 적인 영국과의 독립혁명전쟁과 토착 인디언과의 투쟁,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간 '느슨하지만 하나의 미국인'이라는 동류의식을 갖게되었다. 미국정부 紋章의 표어 '*E Pluribus unum (The one from the many)*'처럼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로부터 미국은 시작된 것이다.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이념 하에서 출발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까지 영국 이민집단인 앵글로색슨계, 백인, 개신교도(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들이 중심 주류집단이 되어 사회를 주도 해 왔다. 'WASP'들의 청교도의 선민사상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즉 명백한 숙명(Manifest Destiny)에 대한 신념은 타 종족집단에 대한 우월감으로 작용하여 새 이민집단과의 문화적 갈등을 야기 시켜왔다.

'여럿으로 흩어져 있는 느슨한 하나'를 '여럿으로 구성되었지만 단단한 하나'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美國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시도되었음이 앞節의 고찰을 통해 확인되었다. 'WASP' 주류 집단들에 의해 미국 내의 다양한 인종집단들을 동일한 가치관으로 묶어 '새로운 미국 국민'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하여 문화가 다른 타 인종집단의 저항 또한 적지 않았다. 19세기 내내 아일랜드 카톨릭 移民者들이 그랬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 남동부 지역 출신의 카톨릭 移民者들과 유대인들이 그랬으며, 20세기 후반에는 黑人, 아시아계, 히스패닉계, 여성 등의 세력의 저항과 갈등이 적지 않았음은 제2절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다.¹⁰³⁾

103) 김봉중, 전계서, pp. 196-197.

1812년 영국과의 전쟁 후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가속화되자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유럽인의 이민이 활발하여졌다. 흉작과 기근으로 곤경을 겪던 아일랜드나 독일계 이민집단들이 주로 뉴욕 등 도시에 정착하였다. 토착주의자들과 아일랜드인들의 문화적 갈등은 도시의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었다. 아일랜드 이민집단들은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여 '국가내 국가'를 만들고 비밀결사단과 같은 조직들을 만들어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 하였다. 그들만의 공동체의식, 비밀결사단, 카톨릭교회 및 사제의 영향력, 그리고 수세기 동안의 가슴속에 사무쳤던 반영 감정은 아일랜드 이민집단을 결집시켰고 이는 곧 정치적 단합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대해 토착주의자들은 '교황의 음모론'을 내세우며 카톨릭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다. 미국 신교도 협회(American Protestant Association)와 미국 토박이 클럽(Native American Club)은 반 아일랜드 소요를 일으키고 이민자 시민권 취득소요기간을 연장시켰고 비 시민권자의 공직 취임금지 법령제정운동을 벌였다. 1840년대 중반의 '감자 기근(potato plight)'으로 유입된 70여만 명의 아일랜드 이민인들의 저임금 고용에 대한 반대운동이 '미국 기능공 연합회(Order of United American Mechanics)'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 졌다. 1850년에 뉴욕에서 창설된 '성조기단(Order of the Star Spangle Banner)'은 이민 배척운동과 카톨릭 이민자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고 카톨릭 교도를 소속직장에서 축출하는데 앞장을 섰다. 이후 제3당으로 세력이 결집되어 無知黨(Know-Nothing Party)으로 불리다 1852년에 黨名을 美國黨(American Party)으로 명명, 한때 주지사들을 탄생시키고 6개 州의 의회를 장악했었다. 그러나 남부의 무관심으로 북동부 지역당의 한계를 벗지 못하다 南北戰爭이라는 국가 분열의 위기로 그 활동이 유예되었다.

남북전쟁이후 산업혁명에 의한 경제부흥이 계기가 되어 10년단위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유럽 남동부지역 이민홍수가 있었고 중국인 이민과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도 마찬가지로 되었다. 18887년 창설된 미국보호협회(American Protective Association: APA)와 Ku Klux Klan(KKK)단은 지식인 그룹의 호응에 힘입어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반 카톨릭, 반 이민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토착주의 저항운동은 성공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미국인들의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는 유동성향이 새 이민집단과의 마찰을 완화시켰고, 또한 단

기간에 다양한 민족, 인종, 종교, 언어가 집합되어 어느 한 집단이 하나의 이념으로 미국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급격히 이주해온 수백만의 이민인구에 종전과 같은 결집된 행동은 가능할 수가 없었다.

19세기 후반의 경제성장과 1898년의 스페인 전쟁(Spanish-American War)을 계기로 미국은 과거 고립주의에서 국제주의 국가로 발돋움하면서, 중남미와 태평양을 향한 팽창을 시도하였고 국민들의 관심도 여기에 쏠리고 있었다. 이 혁신주의 시대 개혁성향의 중산층 전문인들은 반 이민 운동에 회의적이면서 이민을 계속 수용하되 그들을 미국사회에 동화시켜서 공통적인 미국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계기로 건국 당시 ‘여럿으로 흩어져 있는 느슨한 하나’는 이제 20세기초에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 즉 ‘도가니(melting pot) 文化’의 概念으로 수정되었다. 당시 미국인들의 기본적인 인식이나 정책이 소수민족들의 역할이나 문화에 대해 동화(assimilation)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전환되었다. 소수민족 각자의 고유성을 인정하게 되면 미국사회가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¹⁰⁴⁾ 앵글로 색슨계의 미국 주류집단들은 새 이민자들의 문화를 기꺼이 수용하여 그들과 함께 도가니 속에 용해되어 새로운 미국을 창출해 보려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였다. 새 이민자들이 그들의 다양성을 포기하고 미국의 도가니 속에서 새로운 미국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WASP의 전통과 가치관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는 백인 이민집단에 관한 개념이고 유색인종은 배제되었다.

세계 제1차 대전으로 독일계 이주민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으며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전쟁수행을 위한 국력결집의 필요성 때문에 전반적인 반 외국인 감정으로 비화되지 않았다. 흑인 중 40만 명이 군에 복무하고 50만 명 정도가 전쟁산업에 취업을 위해 북부 및 중서부 산업도시로 이주하게 되어 갑자기 흑인들과 생활하게 된 백인들의 불편한 심기에 의해 온갖 폭력과 편견에 의해 흑백 인종폭동이 야기되었다. 1920년대의 보수주의자들의 부활이 남동부 유럽인들의 이민을 제한하는 긴급 이민법(Emergency Immigration Act)과 1924년에 개정된 국적별 이민 할당제 법(National Origins

104) 최병헌·박주경·조세연, 『미국문화와 사회』 (서울: 대우출판사, 2000), p.149.

Acts)은 남동부 유럽이민의 홍수를 규제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중남미 규제조항의 없어 히스패닉계 이민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보수주의자의 저항은 종전의 반 흑인운동에서 반 카톨릭, 반 유대인, 반 이민을 외치며 사회전반의 도덕운동으로 확산되었으나 1929년 대공황의 국가적 위기와 제2차 세계대전의 반발로 '전통적 토착주의자의 저항'은 사라졌다. 백인들간의 종교적, 문화적 편견, 종족적 차이는 이제 그 의미를 잃었다.

'할렘 르네상스'운동과 마루쿠스 가비(Marcus Garvey)등의 영향으로 흑인들의 주체의식이 고양되었고, 도스법(Daws Severalty Act)을 폐지하고 1934년 인디언 재 조직법(Indian Reorganization Act)이 제정되면서 인디언에 대한 정책이 융화주의에서 다원주의로 전환되었다. 주류사회에 동화하지 않고 그들의 독특한 전통을 지키며 미국문화의 한 부분을 지탱하는 것, 그 자체가 미국의 다문화주의를 윤택하게 한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양인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는 달랐다. 1882년 중국인 배척법으로 중국인 노동자 이민이 금지된 후 동양인 이민의 주류는 일본인이었으나,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으로 반 아시아인 감정이 악화되었다. 진주만 공습으로 일본계 미국인이 내륙 집단 수용소에 격리되기도 하였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자리를 굳혔다. 미국인들은 정의와 불의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투쟁이 존재한다고 확신하며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터로 나아갔다. 전쟁을 치르면서 공동 목적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모두가 하나의 국민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전후 미국은 이 공동의 목적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국내적으로는 백인 유럽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갈등이 마무리되었다. 아일랜드 이민계이며 카톨릭신자인 민주당 존 에프. 케네디(John F. Kennedy)가 1960년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실로 크다 할 것이다.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추세는 유럽의 어떤 국가 출신이냐,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WASP가 주도해온 '도가니 概念'은 自由主義的 價値觀을 강요하는 것으로 1960년대 이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흑인인권운동, 베트남전 개입, 반전운동 등은 美國을 엄청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도덕적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하였다.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이 그 서막을 장식한 1960년대의 혼란기는 곧 美國의 이상주의적이고 낙천적인 史觀과 精神의 붕괴를 뜻하였다.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목사, 말콤 엑스(Malcom X) 등의 지도자에 주도된 黑人 人權運動은 미국사회가 얼마나 지독한 人種的 偏見에 젖어 있고 억압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는지를 충격적으로 보여주었다.¹⁰⁵⁾ 移民에 의해 야기되는 소수이민집단들과 토착 백인들간의 갈등 그리고 黑人 및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통해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온 美國의 理想과 실제 社會現象과의 괴리를 몸소 자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美國의 資本主義와 科學主義, 利己主義에 대한 철저한 批判으로 시작되는 히피운동, 즉 반문화운동(Counter-culture movement)으로부터 성적·인종적·계층적 갈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게 되었다. 이는 ‘도가니 文化의 概念’이 지향하는 美國 文化의 동질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아메리카 토착민과 黑人을 비롯한 소수인종과 민족·여성·노동계층 등 주변부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아울러 각 대학에 이러한 연구를 제도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으며, 소수집단의 歷史와 文化 연구서가 대량 발표되어 美國의 다양한 文化와 歷史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공헌했다.¹⁰⁶⁾ 이를 계기로 美國내의 소수집단 文化를 인정하는 多元主義를 거쳐 多文化主義가 생성되었다고 하겠다.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에서 다시 ‘여럿으로 흩어져 있는 느슨한 하나’, 다시 말해 ‘도가니 文化(Melting Pot)’의 概念의 문제점 자성을 바탕으로 ‘샐러드 文化(Salad Bowl)¹⁰⁷⁾’ 概念으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강렬해지고 있는 것이다.

105) 함재봉, 상계논문, p. 97-98.

106) 함재봉, 상계논문, pp. 337-338.

107) 흰양파, 홍당무, 상치, 딸기, 오이, 건포도와 토마토 등을 mayonnaise라는 점액체로 버무려 놓은 공기 속의 야채 샐러드처럼 문화, 종교, 사상, 역사, 언어, 및 인종이 다른 각각의 소수민족들이 美國이라는 그릇 속에 각자의 文化를 간직하고 살고 있는 多元主義 현상을 표현한 것임. 즉 각 美國내의 각각의 小數 民族의 文化와 정체성을 인정하고 각 人種 및 民族集團 간의 상호 존중과 협조를 통해 國家目標을 달성해야한다는 概念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음.

제IV장 多文化主義의 영향

제1절 自由와 平等에 관한 제도적 개선

지금까지 다문화주의의 발전과정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미국의 이념과 다문화주의 생성과의 관계를 고찰해 보았다. 생물학적으로 잡종은 우성인자들의 유전으로 다른 종자와의 생존경쟁에서 이겨 진화하고 발전한 종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생물학적 원리를 미국 역사와 문화에 적용한다면, 미국이 단기간에 세계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바로 다문화와 다인종적인 잡종적 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¹⁰⁸⁾ 즉 미국의 주류집단과 과 기타 소수민족 간의 갈등을 타협을 통해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다문화주의는 미국의 발전에 에너지원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백인과 소수 인종이 대립적인 이중 구조를 이루어 미국 사회를 분열시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인종과 문화가 혼합적인 구조를 이루어 미국의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본 장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다문화주의가 현대 미국 사회의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왔는가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다문화주의의 영향이 시민사회의 자유와 평등, 사회복지 정책의 개선, 그리고 탈 냉전기 단일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대외정책 수립에 미친 영향요소를 검토 해 볼 것이다.

다문화주의에 의한 소수민족들의 정체성 자각은 시민사회의 자유와 평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시민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장이 가장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¹⁰⁹⁾ 그들은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한다. 어느 학자의 최근 조사결과인 <표4-1>은 세계 각국에서 자유를 누리는 정도를 7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서도 미국은 1등급에 속한다.

이렇게 자유와 권리 보장이 잘 이루어지는 데에는 헌법의 인권조항 때문이 아닌 것이다. 다수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의견과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오랫동안

108) 김 봉은, 『소수 인종의 문명으로 본 미국의 문화』 (서울: 한신문화사, 2000), p. 223.

109) 서 정갑, 『부조화의 정치: 미국의 경험』 (서울: 법문사, 1991), p. 216.

동안 매우 심한 차별과 학대를 받아왔다.¹¹⁰⁾ 앞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

<표4-1> 시민자유 의 국가별 순위(많은 나라에서 적은 나라)

등급	국 가 명
1등급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osta, Denmark, Iceland, Ireland, Italy, Japan,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U. S. A., etc.
2등급	Argentine, Bahamas, Barbados,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Portugal, Spain, Venezuela, etc.
3등급	Bolivia, Brazil, Columbia, Dominican Republic, Grenada, Hunduras, India, Jamaica, Peru, etc.
4등급	Egypt, Gambia, Kuwait, Lebanon, Mexico, Nepal, Philippine, Senegal, Sri Lanka, Thailand, Uruguay, etc.
5등급	Bangladesh, Chile, Taiwan, Hungary, Ivory Coast, Jordan, Kenya, South Korea, Liberia, Nicaragua, Nigeria, Pakistan, Poland, Singapore, Tunisia, Turkey, Uganda, etc.
6등급	Algeria, Brunei, China, Congo, Cuba, Ghana, Guatemala, Haiti, Indonesia, Iran, Libya, Vietnam, est.
7등급	Afghanistan, Angola, Ethiopia, Iraq, North Korea, Laos, Saudi Arabia, Syria, Zaire, etc.

자료: Raymond D. Gastil, The Comparative Survey of Freedom, 1985, (January/February 1985), p. 11. 여기서는 국가 수를 줄여서 기재

110) 서 정갑, 상계서, p, 217.

111) 다른 인종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州法에 대해서는 1967년에 위헌선언이 내려졌다 Loving v.

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소수민족과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대우가 가장 심했던 나라가 美國이다. 오늘날 미국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1등국이 되고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人權條項 때문이라기보다는 美國人의 自由와 平等精神과 정착된 多文化主義를 바탕으로 소수민족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정부를 상대로 투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표1>상의 다른 1등국과 비교하면 자유와 개인의 권리는 절대적인 현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인의 신념과 이상이며 多文化主義에 뿌리를 둔 규범적 가치라 할 수 있다.

1. 개인의 自由를 위한 인권헌장 수정

多文化主義의 영향으로 인권헌장은 많은 수정을 거쳐 유색인종과 소수민족을 포함한 미국시민의 自由와 平等을 보장하고 있다. 인권헌장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헌법수정 제1조에서 10조까지를 말한다. 이중에서도 수정 제1조가 종교, 언론 출판, 집회, 청원등에 관련된 조항으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룬다. 두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수정 제 5조 중에서도, 특히 적법절차없이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는 조항이며, 그 밖의 중요한 내용은 제4조의 비합리적인 수색의 금지, 제5조의 동일범죄에 대한 한 번 이상의 형벌의 금지와 묵비권이며, 조6조의 신속한 재판, 증인과의 대면, 고발내용을 알 권리이며, 제7조의 배심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 제8조의 과대한 보석금 및 벌금과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의 금지등이다. 인권헌장 중에서도 제2조의 자유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군대를 유지할 권리와 국민들이 국민들이 무장할 수 있는 권리는 침해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현대생활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총기류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총기에 관한 이익집단이 수정 제2조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총기규제처럼 정책적으로 매우 어려운 쟁점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제9조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는 국민이 가지고 있으며,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인되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다. 제10조는 헌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 주어지지 않은 권한은 주정부가 갖든지 국민이 갖

는다는 내용인데, 제9조와 10조는 다같이 막연하게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미국의 기본권은 오늘날의 대다수 민주국가의 헌법에서처럼 모든 국민이 권리를 향유한다던가 권리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 인권헌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정 제1조에는 미국 의회는 종교를 설립하던가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언론, 출판, 청원, 집회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도 국민이 이러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두번째의 특징은 인권헌장이 연방정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주정부에 대해서는 매우 오랫동안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헌법수정 제14조는 1968년에 채택되었는데 이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였다. 남북전쟁 후 통과된 제13조, 14조와 15조는 주로 노예제도의 공식적 폐지를 목적으로 했고 그 때까지 노예였던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내용이었다. 특히 제14조는 어느 州도 미국시민의 권익과 면책을 박탈하는 법을 집행할 수 없으며, 적법절차 없이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박탈할 수 없고, 법률상의 동등한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2. 인종차별 폐지와 소수민족의 동등한 보호

미국 독립당시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미국인의 대다수인 백인을 위해서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흑인노예는 남북전쟁 후 수정 제13조의 채택으로 해방되었고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여전히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향유를 거부당해 왔다. 흑인과 마찬가지로 다른 소수민족(minority)도 법적으로 백인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었으나 특별히 그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保護 (equal protection)라는 헌법구절이 적용되어 왔다.

인권헌장에는 적법절차라는 말은 있어도 동등한 보호라는 말은 없다. 이 말은 수정 제14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원래 동등한 보호조항은 남북전쟁 후 남부 州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흑인에 대해 백인들과 동등한 보호를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소수민족이란 백인 상인들에 의해서 서부 아프리카에서 납치되어 노예로 팔려온 흑인들과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멕시코 계열의 히스패닉(Hispanic)과 아시아에서 건너간 중국인, 한국인, 필리핀인, 인도인등을 말한다. 소수민족은 정치경제를 독점하는 다수 백인에 의해 많은 차별과 학대를 받아 오면서 자기 들끼리의 독특한 문화와 음식을 통해 동질성과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정부 및 사법부와의 다음과 같은 끈질긴 투쟁을 통해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해방되고 헌법수정 제13조, 제14조 및 15조가 채택되고, 주요 시민권에 대한 법이 11개나 만들어 졌으나 1880년대에 이르기 까지 대법원의 불리한 해석,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심 저조로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대부분의 州議會들은 흑인과 백인은 혼인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교도 금지하는 입법조치를 해 두었다.¹¹¹⁾ 가장 보편적이고 두드러진 차별현상은 주거지역, 공공시설, 교육기관 등에서의 隔離(segregation)였다. 인종적 격리에 대한 유명한 대법원 판결은 1896년의 *Plessy v. Ferguson*¹¹²⁾이다. 플레시는 1/8이 흑인으로서 기차의 흑인 지정칸에 타지 않고 백인전용칸에 앉아 있다 흑인席으로 옮길 것을 거부한 그는 루이지애나주의 인종격리법에 따라 고발되었다. 연방대법원까지 이 사건은 올라 갔고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서 흑인에게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과 백인은 법적으로는 동등하지만 분리된다 (separate but equal)는 원칙을 만들었다. 이 판결이후 부터는 분리-평등(separate but equal)의 원칙하에 흑인에 대한 차별은 합법화되고 더욱 심화되었다.

흑인들의 시민권 운동단체들은 의회를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개선에 한계를 느끼고 소송을 통해 인종통합과 평등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해 나갔다. 특히 흑인인권향상협회(NAACP)는 몇몇의 소송을 통해 흑인이 열등한 흑인학교에만 다녀야한다는 것에 대한 違憲판결을 얻어 난후 미국교육제도의 전반적인 불합리성과 위헌성을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하였다. 대법원은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1954)¹¹³⁾에서 만장일치의 판결을 통해, 비록 주

111) 다른 인종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州法에 대해서는 1967년에 위헌선언이 내려졌다 *Loving v. Virginia*, 388 U.S. 537(1967).

112) 163 U.S. 537(1896).

정부가 동등한 학교시설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한 인종이 다른 인종을 격리시켜서 교육함이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3. 宗教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은 헌법수정 제1조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종교의 자유를 두 조항으로 보장하고 있다. 첫째는 국교조항(establishment clause)은 정부가 종교를 지정하여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둘째, 신앙의 자유조항(free-exercise clause)은 정부가 종교의식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들 조항은 국가가 종교적인 신앙이나 수행을 조장할 수도 금지할 수도 없음을 보장하고 있다.¹¹⁴⁾

미국은 오랫동안 정부와 종교 간의 통합된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헌법회의 시기에 많은 미국인들, 특히 뉴잉글랜드 정부는 종교, 즉 프로테스탄티즘을 육성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 많은 미국인들은 이는 주정부에게는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지만, 연방정부는 종교적인 일에 간섭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동의하였다. 종교조항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입안되었던 것이다.¹¹⁵⁾

대법원은 종교조항을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들이 통치의 합성물이라고 하겠다. 신앙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으나 신앙을 실행하는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종교는 통치행위들로부터 교회나 유대 교회당에 기여하는 것 같은 직접적인 이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공립, 사립교구의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는 비종교 과목 책을 구입하는 등의 정부행위에서 간접적으로 혜택받을 수는 있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113) 374 U.S. 483(1954).

114) Kenneth Janda, Jeffrey M. Berry, Jerry Goldman, 미국정치연구회(역), 『현대 미국정치의 새로운 도전』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1), pp. 453-454.

115) Leonard W. Levy, *The Establishment Clause: Religion and the First Amendment*, (New York: Macmillan, 1986), pp 43-83.

4. 알 권리와 私生活의 권리

헌법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입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최근에 등장한 두 가지의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는 즉 알권리(Right to Know)와 私生活 권리(Right to Privacy)는 다문화주의에 영향으로 발전된 현대 미국사회의 특징적 산물이라 하겠다.

알 권리를 획득하기 이전 미국정부는 오랫동안 많은 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1917년 정부자료의 비밀체계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시민들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해졌고 결과적으로 정부 자료를 근거로 정부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다. 의회는 국민들의 요구에 호응하여 정부자료 공개법을 1966년에 통과시켰으나 관계부처의 비협조로 큰 성과가 없었다. 1974년 의회는 정보자유에 관한 法(Freedom of Information)을 만들고 정부기관이 자료공개를 거부할 때 법원이 그 이유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 법규의 통과로 많은 정부자료는 물론이고 학교, 경찰기록 등에서 개인에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의 예외 규정으로 병원 기록과 같이 사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정보는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세무당국, 인구조사국, 노동통계국, 보건성 등을 통해 국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막대한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이 私生活를 침범할 가능성이 대두하였다. 그래서 私生活의 권리라는 말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이 말은 헌법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비교적 생소한 말이다. 私生活의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공직취업, 은행대부, 면허취득, 복지혜택 등과 관련해서는 사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私生活의 권리와 관련된 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1950년대 후반 몇몇 州들이 흑인단체인 흑인인권향상협회(NAACP)에 회원명단의 공개를 요구했을 때 이 단체는 회원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생각하여 거부했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왔을 때 대법원은 흑인단체의 사생활의 권리를 인정하였다.¹¹⁶⁾ 최근 까지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사생활에 관한 유명한 판결은 Griswold v.

116) NAACP v Alabama, 357 U.S. 449 (1958).

Connecticut¹¹⁷⁾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그리즈월드는 가족계획협회의 요원으로 결혼한 부부에게 피임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코네티컷 州法을 위반했다. 코네티컷 州法은 피임방법을 사용하든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사생활은 헌법에 구체적인 보장이 없어도 그 자체가 권리라는 이유로 주법의 위헌을 선언했다. 인권헌장 제9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권리는 국민이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법적인 근거로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권리가 명시되지 않은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私的인 領域 (zones of privacy)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개선

다문화주의의 영향 중에서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개선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적지 않다. 한 사회의 복지제도는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정치의 복합적 산물이다. 따라서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사적 국가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정치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주의에 의한 미국의 독특한 사회복지제도 개선 요인을 미국의 신 자유주의의 정치문화, 및 소수민족에 의한 계급 및 사회경제적 갈등구조 등 2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미국의 신 자유주의적 정치문화

미국의 정치제도의 형성과 운영, 정치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미국 사회의 독특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문화가 많이 지적된다. 자유주의 사상은 유럽사회가 봉건주의적 경제와 신분질서에서 자본주의적 산업화로 진전되면서 국가로부터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에 바탕을 두면서 발전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자유주의 사상은 유럽의 오랜 신분과 계급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집단주의의 자유주의 문화보다는 더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문화로 발전했다.

117) 381 U.S. 479 (1965)

118) 이는 미국사회가 무한한 영토와 잠재적 경제기회를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집권적인 국가의 통제를 제한하는 분권사상이 팽배한 정치적 풍토 속에서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자유주의 문화는 유럽의 자유주의 사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시장에 정부개입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경제활동에서 개인의 자유와 자조능력을 강조하게 되었다.¹¹⁹⁾ 빈곤은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천성적으로 게으르거나 일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에서 비롯되는 개인의 문제로서 간주하게 되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 영미를 휩쓴 경쟁적 적자생존의 원칙을 사회규범에 이식시킨 사회진화론이 미국에서 더욱 풍미했던 것은 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주의적인 자유주의 사상은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고 경제대공황에 의해 크게 도전을 받았다. 정부의 경제개입을 허용하는 뉴딜정책은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았고 일부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가 강하게 대두되기도 하였다.¹²⁰⁾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의해 소수민족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부의 분배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사회복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2. 미국의 계급 및 사회갈등 구조의 조정

미국은 약한 노동계급운동과 조직화와 강한 자본의 헤게모니를 특징으로 한다. 노동운동이나 사회의 분배갈등을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연결시켜 줄 제도적 장치가 없는 미국적인 상황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노동자들 및 저소득층들의 시위나 폭동의 형식으로서 분배갈등 표출이 사회복지정책이 실시되게 하는 중요 압력으로 작용한다. ¹²¹⁾

118) 미국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문화가 미국의 복지제도의 형성에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시각으로서는 Gaston Rimiliger, *Welfare Policy and Industrialization in Europe, America, and Russia*,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1) 참조.

119) *Ibid.*

120) 서정갑, 『미국정치의 과정과 정치』 (서울: 나남출판, 1994), pp. 334-340.

121) Francis Fox and Richard A. Cloward, *Regulating the Poor : The Functions of Public*

미국의 사회균열은 단순히 노동 자본의 이분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그 당시 미국의 지역별 산업구조와 정당정치와 연계되면서 흑백균열 구조와 중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흑백균열은 크게는 미국의 경제가 북동부의 산업화된 지역과 남부의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중심으로 농업지주세력에 의해 갈라지면서 출발한다. 남부에서는 면화와 같은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찍이 흑인 노예들이 중요한 생산기반이었다. 남북전쟁 후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지만, 남부지역은 이를 대신하여 남부지주들은 소작제도를 통해 흑인노동력을 면화재배에 종속시키면서 면화생산을 유지시켰다.

뉴딜 이후 미국의 흑백문제는 단순히 남북문제가 아닌 미국 도시를 포함하는 전국적인 차원으로 전환되어 갔다. 남부세력은 뉴딜에 의한 사회보장정책의 개혁을 분권화 시켜 州 정부의 권한으로 하는 데는 성공은 했으나 결국 농업의 생산기반을 점진적으로 흑인 중심에서 기계화 중심으로 바꾸어 갔다. 122) 이에 따라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흑인들은 남부 및 북부 도시들로 대거 이주하였다. 흑인들의 대다수가 거주하던 남부 농업지역에서 인구가 과밀한 도시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종 및 인권문제가 도시에서 미국정치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다. 흑인들은 도시에 이주했으나 대다수가 비숙련 노동자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숙련노동을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들은 주로 도시중심부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부문이나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로 또는 실업으로 미국 빈곤의 주요계층으로 부상한다. 이와 함께 흑인 인권운동의 결과로 미국의 흑인들은 전국적으로 선거권을 획득하게 되었고 이는 흑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제3절 美國 對外政策의 재정립

1. 美國 外交政策 전통에 대한 고찰

Welfare, (New York: Vintage Books, 1971).

122) 서 정갑, 전게서, p. 343.

다문화주의가 미국의 대외정책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외교적 전통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대외정책의 기초는 건국 초에 선언된 고립주의, 19세기 전반에 형성된 먼로주의, 19세기 말에 추진된 문호개방정책, 제1차 세계대전 시에 표방한 국제주의 그리고 2차 대전 종료 후부터 소련 해체 시까지 냉전기 중의 미국 외교의 관행인 개입주의등으로 구분된다. 123)

고립주의는 워싱턴 대통령 재임중에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발생한 유럽의 내전에 대해 중립을 선포함으로써, 유럽정치에 초연한 미국의 입장을 표방한데 기인한다. 또한 그의 대통령 이임사에서 미국은 유럽의 어떤 나라와의 연계도 피해야 한다는 충고를 남겼다. 이러한 그의 유지는 제퍼슨 대통령으로 이어지고, 다시 19세기 전반에 걸쳐 일관성 있게 후대의 대통령들에게 면면히 이어져왔다. 건국 초에 미국이 추구한 이 고립주의 정책은 새로 탄생한 한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현실주의적인 정책이었다. 미국외교의 전통을 고립주의라고 말할 때, 그 원리는 무엇보다도 유럽 강대국에 대한 두려움에서 파생된 것이었다. 미국은 유럽과의 상거래를 위하여 공해상에서 항해의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서양을 신세계와 구세계를 결리시키는 거대한 방벽으로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미국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태도를 취했다. 첫째로 유럽 열강과의 동맹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구속을 받지 않는 초연한 입장에서는 것, 즉 비동맹 정책과, 둘째로 유럽의 복잡한 국제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기본적 방침을 견지하는 것, 즉 불개입 정책이었다. 전자를 단독주의로, 후자를 불개입주의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입장 가운데 미국의 불개입주의는 유럽적 상황에는 적용되었지만, 서반구에서는 19세기이래 적용되지 않았다. 미국은 유럽에 대해서는 불개입 정책을 취하면서, 서반구에서는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자의적인 개입정책을 취했다. 또한 태평양과 동아시아에서도 미국은 19세기 중엽, 일본의 개국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19세기 말에는 중국과 한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폈다. 만만한 약소국들에게 이미 적극적인 팽창주의가 적용

123) 최 영보외, 『미국현대외교사』 (서울: 비봉출판, 1998), p. 16.

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먼로주의¹²⁴⁾의 선언으로 미국은 건국이래 지켜온 고립주의 원칙의 계승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미주대륙에 대한 유럽열강의 간섭을 배제하였다.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은 미국 외교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왔는데, 전쟁기간중에는 하와이를 병합하고, 전쟁 후에는 쿠바, 필리핀, 괌섬등 새 영토를 얻었으며, 나아가 중국을 에워싼 국제정치의 각축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문호개방 정책은 중국 내에서의 열강의 세력관계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대응이자 상업적 계획이었다. 1899년 9월 국무장관 존 헤이(John Hay)가 공표한 제1차 문호개방 각서는 미국의 기업인이 중국 전역에서 통상, 항해의 완전하고 평등한 대우를 향유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1900년 7월의 통첩은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공식으로 식민지 제도를 펴는 것을 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정책은 동아시아에서 결과적으로 일본과 대적하는 관계로 진전하였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윌슨(Woodrow Wilson) 정부는 이 문호개방 정책을 세계적 규모의 정책이자 전략으로 확대하였다. 즉 미국은 정치적 비 식민주의(영토적, 행정적 원형의 유지)와 경제적 팽창주의(무역과 투자의 기획균등의 원칙)의 전략을 세계적 규모와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¹²⁵⁾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18년 1월, 윌슨은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전후구상을 발표하였다. 이의 주요 골자는 비밀외교의 폐지, 공해상의 항해의 자유, 국가간의 경제적 장벽의 제거, 군비의 축소, 민족자결권의 존중,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기관의 설치 등이었다. 이 14개 조항을 바탕으로 국제 질서를 새롭게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윌슨의 주장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국제주의를 표방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국제주의는 한마디로 고립의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었으나 오히려 고립의 전통이 지녔던 대외 의식을 계승하는데 그 특징이 있었다. 국제주의와 고립

124) 먼로주의란 나폴레옹의 몰락 후, 1823년에 유럽강국들이 중남미에서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를 복원하기 위해 이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생국들의 저지 움직임에 반대하여 먼로(James Monroe)대통령이 국회에서 행한 외교정책의 선언을 말한다. 미국과 유럽은 서로 다른 운명을 향한 세계라고 전제하고, 미국이 고립주의 정책으로 유럽에 불간섭 원칙을확인하고 유럽 열강의 미주대륙 간섭을 배제한다고 천명하였다.

125) 상계서, p. 23.

주의의 공통점은 미국적 가치에 대한 신념에 있었으며, 좋은 미국과 나쁜 유럽이라는 상대적 인식에서 관념적 일치가 있었다. 즉 고립주의는 구 세계로부터 고립하여 좋은 미국을 보유하는 것이며, 국제주의는 신세계의 좋은 미국적 가치와 원칙을 구 세계에 적용하여 구 세계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윌슨에 의한 국제주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통적 고립주의자들이 품었던 국제적 기구에 대한 의심과 시기심은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맹하는 것에 반대했고, 유럽문제에도 가능한 한 개입을 회피하게 만들었다. 1930년대에 세계적 경제공황이 휩쓸면서 국제관계가 혼미해지자, 미국인들은 고립주의의 길이 옳다고 재인식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미국인들은 고립주의가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국제적 협력이 평화를 보장하는 길임을 생각하게 되었다. 국제연합의 설립과 가입은 미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이룩되었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미·소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트루먼 독트린¹²⁶⁾ 이 발표되고 국제정세는 다시 냉전체제로 돌입되었다. 냉전 체제하에서 미국은 대 소련 봉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오랜 고립주의적 전통에서 벗어나 우방간에 장기적 동맹관계를 체결하였다. 소련을 정점으로 한 공산주의를 제재하고자 추진했던 미국의 봉쇄정책은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의 안전과 번영이 미국 자체의 안전과 번영에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 기초한 세계주의(globalism) 또는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라고 일컬어지는 개입주의 외교정책이었다. 미국은 비 민주국가라고 하더라도 공산주의 국가만 아니면 이들의 영토적 주권을 존중하였고, 반면에 공산주의 정부가 탄생하거나 탄생할 위험이 보이는 나라에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개입을 통해 이를 거부하였다. 미국은 중·남미에서는 전통적 ‘먼로 독트린’을 견지함으로써 가히 타 세력의 범접을 불허하는 문호폐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여타의 지역에서는 자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해가 걸려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경제원조와 군사 개입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베트남 전쟁의 패배로 반공주의적 국

126) 트루먼 대통령이 1947년 그리스, 터키에 대한 원조를 요청하며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최초로 냉전을 공식 선언함. 즉 세계 여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소 간의 대립이나 분쟁은 개방된 자유주의 체제와 소수 독재에 의한 전체주의 체제라는 두 가지 생활 양식의 선택을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함.

제주의 즉 개입주의에 대한 미국내의 초당파적 합의가 흔들리기도 하였으나, 1991년의 걸프전쟁에서 개입주의는 절정에 달했다.

2. 탈냉전기의 安保政策 : 단일 패권주의 추구

미국의 군사개입정책은 베트남 전쟁에서의 패배를 계기로 상황과 성공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한 후 개입을 하여야 한다는 신중론으로 대두되었다. 첫째, 군사활동은 전쟁에서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경우에 전개하여야 하며 점진적 정책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둘째, 전선이 불확실하거나 성공과 실패 가능성이 불명확한 군사활동은 자제해야 한다. 클린턴 행정부 초기 파월(Colin Powell) 합참의장은 군사·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결정적인 상황이면서 여론의 지지가 있을 경우에만 군사적 개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²⁷⁾

이러한 신중론은 1985년 숄츠(George Shultz) 국무장관과 1993년 아스핀(Les Aspin) 국방장관 등 정부 각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들은 미국 군사력을 사용하는데 대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사고방식은 미국의 국익이 관련된 지역이지만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군이 개입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주장하였다. 신속하고 결정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는 군사활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첫째, 미국이 소규모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1987-8년 페르시아 만에서 이란에 대한 해상작전 같은 최근의 분명하지 않은 사태에 미군이 성공적으로 개입한 사례를 무시하게 된다. 셋째, 초강대국 대립 같은 군사력 사용의 압력이 사라진 시대에 미 정책결정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폭을 제한한다.

클린턴 행정부는 군사력 사용에 관한 정책을 재수립하였다. 군사력 사용의 결정은 다음 사항들을 필요로 한다. 분명히 규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 투입 결정, 목표를 결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계획, 필요한

127) 김계동, "미국의 군사안보 정책," 이범준외, 『미국 외교정책』 (서울:박영사, 1999), pp 238-239.

군사력의 규모와 조직등에 대한 재평가, 여론과 의회로 부터의 지지등이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과월의 논점과 유사하다. 128)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개입상화이 도래하면 원칙과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의 보스니아와 아이티에의 개입이다. 이 두 지역의 개입에 대하여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개입 반대론자들은 군사개입을 정당화할 만큼 미국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고, 군사활동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국내적인 지지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높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이러한 원칙론을 묵살하고 사활적 이익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이익(Important interest)이 관련되어 있으면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입을 결정하였다.

냉전 종식 이후 수립된 개입과 확대 안보전략은 해외군사개입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29) 미국의 타 지역에서의 군사적 개입은 비용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관련된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사활적 이익이 연관되어 있는 곳에서의 군사적 사용은 결정적이어야 하고, 단독개입이 바람직하다. 사활적 이익은 아니지만 미국의 국가이익이 중대한 위협을 받을 경우, 군사력 전개시 이익과 위험비용의 상대적 평가 및 목표 달성 실패시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익이 관련된 경우, 군의 전투력보다는 군의 특수한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미국 국익의 목표와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군사안보적 요구도 변화를 겪게 되었다. 냉전기간 수십년간 시달려 왔던 공산주의의 위협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미국은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나,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새로운 안보적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인종분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적 범죄를 주도하는 테러 국가들이 지역안정을 저해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가 세계

128) Daggett, Stephen, and Nina Serafino, "The Use of Force: Key Statements by Weinberger, Shultz, Aspin, Bush, Powel, Albright, and Perry," *CRC Report 94-805 F*, December 5, 1955. pp. 36-53.

129) 미국 백악관, "개입과 확산의 미 국가안보전략," 『국가전략』(세종연구소), 제3권 1호, 1997년 봄.여름, pp. 349-369.

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등 냉전시대에는 중요치 않았던 문제들이 세계 도처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냉전 종식과 더불어 국제정치는 미소 양극체제(Bi-polarity)로부터 단일다극체제(Uni-multipolarity)로 전환하고 있다. 국제역학구조의 측면에서 기존의 양극체제가 소멸하고 미국이 서방과의 협력 하에 세계질서를 집단적으로 주도해 가는 체제로 이행하는 전환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맞이하여 미국은 전 세계분쟁의 해결과 새로운 세력권 형성의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걸프전 승리를 배경으로 세계 단일의 초강대국으로서 국제질서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¹³⁰⁾

이와 더불어 대외정책과 국내정책간의 구분이 점차 희석되고 있으며, 따라서 군사안보정책은 국내정책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다. 세계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의 회복과 발전이 있어야만 하고 이러한 해외개입 전략의 목표는 해외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대내용 정책이기도 하다.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미국의 세력은 냉전기간보다 약화된 감이 있다. 국가는 극한적인 대결과 경쟁상황에서 발전한다는 설을 증명하고 있다. 극한대립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¹³¹⁾ 그러나 냉전시대와 같은 안보위협 등 발전을 향한 동기의 부족으로 인내심과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 노력은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의 봉쇄정책과 동맹외교와 같은 다양하고 용의주도한 전략과 전술이 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130) 김계동, 전계서, P. 241.

131) 상계서, pp. 241-242.

제V장 結 論: 美國 文化의 비판과 多文化主義의 전망

냉전기간 중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과 兩極體制하의 理念對決 구도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선두에 섰던 美國은 소련을 붕괴시키고 共產主義를 지구상에서 소멸시켰다. 淸교도적 選民意識과 明白한 宿命(Manifest Destiny) 즉 美國的 自由主義 理念의 전파로 온 인류를 구원토록 神으로부터 使命을 부여받았다는 召命意識은 이들의 信念이자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개척 정신(Frontier Movement Spirit)의 바탕이기도 했다. 이러한 信念으로 이들은 불과 27년만에 독립 당시의 면적에 비해 두 배도 더 넓은 새 領土(루이지애나 매입)를 획득하였다. 1845년에는 텍사스를 합병하고, 곧이어 北美大陸 전체를 관통하는 國土로 신속히 팽창해 가는 경이적인 기적을 일구어냈다. 두 번의 世界大戰을 치르면서 이 나라는 유럽의 많은 강대국을 누르고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였다. 냉전기간 중 미국적 理想과 價値를 전파하기 위하여 우방국 원조를 비롯한 비싼 대가마저 마다하지 않았음도 사실이다.

21세기의 문턱을 넘어선 작금의 脫 冷戰期間 중에 있어서도 세계 단일 패권국가로서의 美國은 그들의 價値를 기준으로 평화유지를 위한 國際秩序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美國的 價値(理念)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는 제III장 1절에서의 논의를 통해 규명되었다.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종교의 박해를 피해 영국에서 건너오면서 淸教徒 이주민들(White, Anglo-Saxon, Protestant : WASP)이 가지고 온 淸教徒 精神이다. 이들은 존 폭스(John Foxe, 1516-1587)¹³²⁾의 選民思想에 고무되었고, 하나님께서 부여한 使命을 떠맡고 있다고 믿었다. 인류 구원을 위한 神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이들은 하나님과 契約을 맺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啓蒙主義 사상에서 발전된 實用主義 정신이다. 뉴턴 시대에 이르러 물질의 실체에 대한 이해의 도가 높아지면서, 人間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

132) 영국의 순교 사학자 겸 목사. 그는 영국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국가이며 이제 淸교도가 선민의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다. 존 로크(John Locke)는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自然權을 소유하고 있으며 自然權을 보호를 위해서 시민정부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정부는 被治者의 同意에 근거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보다는 勞動이 가치의 척도였으며 사회적 권위의 강화보다는 個人的 향상이 最高의 善이었다. 따라서 獨立宣言文에도 생명, 自由, 幸福 추구의 權利가 천명된 것이다. 啓蒙主義가 유럽에서는 實證主義로, 美國에서는 實用主義로 나타났다. 개척과 膨脹의 환경 속에서 弱者들이 어떻게 몰락하며 强者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부유해 지는가를 보았던 그들은 實用主義者이고 ‘實利的(practical)’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전통적 價値觀이 차후 文化的 多元主義를 가용하게 하는 배경이 된 것이다.

셋째가 自由主義와 平等思想이다. 美國 독립혁명 이념이 바로 自由主義思想이다. 이는 영국에서 귀족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귀족 계급제도에 항거하는 신흥 중류계급의 주도로 출현하였다. 유럽에서는 귀족계급의 저항으로 실패하였는데 美國에서는 귀족계급도 계급갈등도 존재하지 않아 쉽고 깊게 自由主義思想이 뿌리 내릴 수 있었다. 유럽이 봉건 정치체제를 답습하고 있을 때 美國은 自由民主主義와 自由市場經濟體制 모두를 급속히 갖추어 나아간 것이 오늘의 번영이 있게한 원동력이기도 할 것이다. 美國의 自由主義가 상반된 價値를 주장하는 독특한 경우가 自由와 平等의 개념이다. 自由는 미국혁명 사상의 핵심이지만, 平等은 미국인의 생활신념이다. 自由가 보장되면 결과는 不平等이 된다. 平等이 보장되면 自由는 없어진다. 美國人의 平等은 社會主義의 平等과 달라 機會의 平等(equality of opportunity)이지 狀態의 平等(equality of condition)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美國의 自由主義 이념은 철저한 이기주의와 물질주의를 도덕적 이상으로 승화시키는 데도 성공하였다. 즉 自由主義 사상과 체제를 확산시킴으로써 인류 역사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맥락에서 해석하였고, 美國人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自由主義 사상과 체제의 확산이라는 神이 부과해 준 使命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당화시켰다.

그러나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自由民主主義 체제라는 그들의 價値觀 실현 과정을 고찰해 볼 때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럽으로부터 이주해온 여러 민족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영국과의 독립혁명전쟁, 토착 인디언과의 투쟁,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위한 서부개척을 통해

‘느슨하지만 하나의 美國人’이라는 동류의식을 느끼며 출발했음은 제III장 2절의 고찰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美國의 주류집단인 ‘WASP’들의 ‘選民意識’과 ‘明白한 宿命’에 대한 信念은 타 문화권으로부터의 새 이민집단에 대한 우월감으로 작용하여 文化的 葛藤을 야기 시켜 국가적 혼란을 자초해 왔음도 이해하였다. 1812년 영국과의 전쟁이후 경제성장으로 몰려온 카톨릭 계 아일랜드 移民은 ‘교황 음모론’을 내세우며, 1840년대의 ‘감자 기근(potato plight)’의 移民集團에 대해서는 ‘기능공 연합회’, ‘성조기 단’, ‘無知黨’등에 의한 조직적인 저항이 있었다. 南北戰爭이후 유럽 남동부 移民洪水,와 에 대해서는 ‘미국 보호협회’와 Ku Klux Klan(KKK)단의 저항에 지식인 그룹도 호응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류 미국인(WASP)들과 소수 집단간의 문화적 반발이 南北戰爭이나 世界大戰 등 국가적 위기에 처해서는 국력결집을 위해 유보되곤 했던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美國의 다양한 집단간의 文化的 葛藤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치유될 수 있음을 예견케 하는 대목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들의 建國理念인 自由主義와 平等이라는 고귀한 價値가 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새로운 移民集團 또는 少數民族에 적용될 수 없었는가에 대한 疑問은 제II장 2절에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타민족, 인종에 대한 偏見과 差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문화의 진화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이節은 人種에 따라서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정당화시켜줄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밝혀냈다. 미국 주류집단인 WASP들의 選民思想에 의한 인종적 우월의식을 뒷받침 해 줄 생물학적인 우월론은 아무런 증거가 없음도 확인되었다.

1880년대의 人種差別主義란 남유럽에서 홍수처럼 밀려온 수백만 명에 달하는 移民集團에 대한 美國民의 우려를 반영 성립시켰던 이론으로 이후 知的으로 더 이상 존경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타문화 집단에 대한 미국민들의 배타의식은 문화적 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적 특성에 지나지 않았음을 본節은 확인시켜 주고있다.

그들의 자민족중심주의적 특성은 냉전기간 중의 약소국에 대한 대외정책의 수행과정에서도 많은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1950년대의 이란 민족주의자 ‘모사데크’ 정권의 전복, 베트남의 전쟁 개입 등의 명분을 自由主義 사상

과 체제를 확산시킴으로써 인류 역사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맥락의 해석에서 논리를 찾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취해진 自民族中心主義적 조치일 뿐이었음이 확인되었다.¹³³⁾ 이들은 국제사회에서의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자신들의 행위를 自由主義 사상과 체제의 확산이라는 神이 부과해 준 使命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당화시켜 왔던 것이다.

기존의 WASP가 주도해 온 ‘도가니 文化’의 개념이 自由主義적 가치관의 강요라는 주장에서부터 제기되고, 美國의 자본주의,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된 1960년대의 반문화 운동으로부터 多文化主義는 싹이 터 왔다고 보는 것이다.

“美國은 무엇이며, 미국인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美國이 출발하기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했었다. 그들의 견해는 다양했지만 미국인은 백인이며 美國은 백인의 國家라는 인식이 거의 같았으며, 최근까지도 이 인식은 심각한 도전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찰해 본 바와 같이 美國의 역사가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역사이며 美國文化에 대한 단일하고 단선적인 해석은 없다는 주장은 거의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美國은 식민지 시대부터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였으며 이 현실은 더욱 복잡해 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미국 역사의 전제였던 WASP 위주의 미국문화의 독특함과 단일성에 대한 가정이 와해되고 80년대 후반에 다문화주의가 등장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¹³⁴⁾

다문화주의는 美國과 미국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재성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장차 美國社會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美國인들이 지닌 의구심과 회구심, 그리고 당위성 여부에 대한 그들의 회의와 희망을 나타낸다. 多文化主義는 특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온 移民의 경과에 따라 소수 민족들과의 갈등의 반성을 포함한 역사적 경험과 미국인들의 일상적 경험,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학문적 결과가 널리 인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의 논리적 귀결은 지금까지 지속된 백인 남성의 지배를 종결짓고, 여태까지 소외당하거나 주변에 있던 다른 집단의 정체성, 특히 여성과

133) Howard Zinn, 이아정(역), 『오만한 제국』 (서울: 당대출판, 2001)

134) 정상준, 앞의 논문, p. 148.

유색인종을 존중하며 그들의 文化가 독자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문화가 특정한 집단의 고정된 속성이라기보다 다양한 집단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한 결과 생겨난 산물이라고 여긴다. 문화적 정체성은 서로 다른 문화간에 대화에서 생성되고 서로 다른 文化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갈등과 절충, 자기형성 및 재형성’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모한다.¹³⁵⁾ 따라서 多文化主義자들은 다양한 文化간의 유동적인 균형을 통해 그 모습을 끝없이 변형시켜 나가고자 시도한다. 이러한 변형과정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한 사회의 장래를 위해 어떤 文化가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논쟁은 정치적인 논쟁이며 어떤 교육과정으로 그 문화를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다.

多文化主義에는 이론적으로 인종, 성, 계층 등의 범주가 포함되지만 본 논문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인종문제가 가장 폭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多文化主義보다는 多人種主義라는 용어가 현실을 더 제대로 반영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多人種主義 대신 多文化主義를 사용한 것은 多人種主義라는 용어가 인종적인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를 고려했다고 본다. 美國의 인종문제가 黑白간의 문제가 아닌 유럽계, 아프리카계, 히스패닉계, 아시아계등 여러 인종 및 종족간의 복잡한 갈등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黑人과 관련되어 있음을 美國에서 인종간의 결혼 통계에서 알 수 있다.¹³⁶⁾

끝으로 多文化主義의 생성과 관련하여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요소는 美國의 實用主義 정신이다. 實用主義는 무엇보다도 각 개인이 아직 진화되고 있는 세계를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어떤 전통보다도 民主主義의 의미와 가치에 관심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實用主義는 삶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에 기반을 두기도 한다. 이 세상은 위험과 우연으로 가득 찬 공간이며 인간의 삶에서 패배와 절망, 환멸과 상실의 요소를 피할 수 없으며 그것은 삶의 중요한 일부를 이룬다. 인간은 패배와 환

135) 상계서, pp. 154-156.

136) 상계서, p. 159.

멸과 절망의 순간에 저항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며, 타자의 고통을 공유할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닐 수 있게 도와주었다. 한 사회가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타 집단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닐 때 진정한 多文化的인 民主社會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작에 단계에 있는 美國의 多文化主義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세계와 역사는 초미의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과도한 인종과 민족이 어우러져 혼란과 갈등을 반복했던 역사적 반성의 귀결로 전개되는 多文化主義를 발전시키는데 국력을 결집할 수 있다면 美國은 또다시 경이로운 기적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한 인종의 혼란이 오히려 한 집단에 의한 多人種集團 전체를 통제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분열을 막을 수 있었던 점과 이 概念이 곧 민주적이고 문화 발전적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의 성패는 건국조상들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自由主義 정신으로 경이적인 개혁의 역사를 추진했던 그 태도를 美國民들이 답습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이의 장점을 살려가려는 意志에 달려있다고 보겠다.

參 考 文 獻

1. 국내문헌

(1) 單行本

골드만, 제리, 외, 미국정치연구회(역), 『현대 미국정치의 새로운 도전』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1).

김 봉은, 『소수 인종의 문학으로 본 미국의 문화』 (서울: 한신문화사, 2000).

김봉중, 『미국은 과연 특별한 나라인가?』 (서울, 소나무, 2001).

김준길, 『서양文化 뒤집어보기』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6).

김형곤, 『미국의 飲食文化』 (서울, 역민사, 1999).

데이비드 나이, 임찬빈(역), 『현대의 미국사회』 (서울, 탐구당, 1996).

레스리 A. 화이트, 이문웅(역), 『文化의 概念』 (서울, 일지사, 1996).

로버트 M. 크런든, 정상준·황혜성외(역), 『미국문화의 이해』 (서울, 대한교과서, 1996).

미국학연구소, 『미국 사회의 지적 흐름-정치·경제·사회·문화』 미국학총서 I,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8).

_____, 『21세기 미국의 역사적 전망 II-문화·경제』 미국학총서IV,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2).

박이문, 『역사적 전환기의 문화적 재편성』 (서울, 철학과 현실, 2002).

서정갑, 『부조화의 정치: 미국의 경험』 (서울: 법문사, 1991).

스토 퍼슨스, 이형대(역), 『미국 지성사』 (서울, 신서원, 1999).

신성철·박의재·신도호, 『미국文化와 영국文化』 (서울, 문경출판, 1996).

앤터니 기든스, 김미숙외(역), 『현대 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1997).

오치 미치오, 곽해선(역), 『와스프-미국의 엘리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울, 살림출판, 1999).

원턴 U. 솔버그, 조지형(역), 『미국인의 사상과 문화』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1996).

유시민, 『유시민과 함께 하는 新大陸 文化 이야기』 (서울, 푸른나무, 1999).
 이평래외, 『영화속의 동서양 文化』 (서울, 집문당, 2002).
 이호준, 『大衆音樂과 社會』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임영호, 『스튜어트 홀의 文化이론』 (서울, 한나래, 1996).
 정재철, 『文化연구이론』 (서울, 한나래, 1998).
 조지형, 『미국인의 사상과 文化』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1996).
 차종환외, 『지켜야할 文化 배워야 할 文化』 (서울, 동양서적, 1998).
 채현경, 『인간은 얼마나 音樂적인가』 (서울, 민음사, 1998).
 최병현외, 『미국文化와 사회』 (서울, 대우출판, 2001).
 최영보외, 『미국현대외교사』 (서울: 비봉출판, 1998).
 태혜숙, 『文化로 접근하는 미국』 (서울, 증명, 1998).
 _____, 『미국文化의 이해』 (서울, 증명, 1997).

(2) 論文

김계동, “미국의 군사안보 정책,” 이범준외, 『미국 외교정책』 (서울:박영사, 1999).
 메이어, 아르노 J.,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여파,” Vann C. Woodward (ed), 박무성(역), 『美國史新論』 (서울: 법문사, 1993).
 미국 백악관, “개입과 확산의 미 국가안보전략,” 『국가전략』 (세종연구소), 제 3권 1호, 1997년 봄.여름.
 서현정, “민족 정체성의 새로운 象徴으로서의 레스토랑 飲食,” (서울대학교 인류학 박사학위 논문, 2001).
 정호선, “랭스틴 휴즈시에 나타난 黑人音樂과 삶의 리듬,”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 석사학위 논문, 2000).
 정상준, “포스트 모더니즘, 실용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 미국학연구소(편), 『미국사회의 지적흐름- 정치·경제·사회·문화』 미국학총서I,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8).
 _____, “다문화 주의를 넘어서,” 미국학 연구소(편), 『21세기 미국의 역사적

전망 II-문화·경제』 미국학총서IV, (서울: 서울대 출판부, 2002).

함재봉, “미국의 탈근대주의,” 미국학연구소(편), 『미국사회의 지적흐름-정치·경제·사회·문화』 미국학총서I,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8).

황혜성, “가려진 목소리: 할렘 르네상스의 흑인 여성 작가들,” 『미국사 연구』 11, (2000. 5).

2. 국외문헌

(1) 單行本

Bennett, David H., *The Party of Fear*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8).

Dinnerstein, Leonard, Nichols, Roger L., and Reimers, David M., *Natives and Strangers: A Multicultural History of America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Hartz, Louis, *The Liberal Tradition in America* (New York: Harcourt, Brace, 1955).

Higham, John, *Strangers in the Land* (Newark: Rutgers University Press, 1990).

Kallen, Horace, *Culture and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Amo, 1924).

Knobel, Dale T., *America for the Americans: The Nativist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Twayne, 1984).

Levgy, Leonard W., *The Establishment Clause: Religion and the First Amendment*, (New York: Macmillan, 1986).

Rossiter, Clinton, *1787: The Grand Convention* (New York: Macmillan, 1966).

(2) 論文

McCloskey, Robert G., " The American Ideology," in Marian D. Irish, ed., *Continuing Crisis in American Politic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3).

Yoo, Hyun-Sang, "An Analysis of United States' Security Policy toward a Third World State during the Cold War Era : Case Study of US-Iran Relations," (Thesis for Ph.D in Int'l Politics, University of Durham, United Kingdom, 1996).

ABSTRACT

A Study on the Multiculturalism of United States of America

Kim, Yong-Shik

Major in the Americas Region

Dept. of Int'l Area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l Studies

Hansung University

Directed by Prof. Yoo, Hyun-Sang

The emphasis of this thesis is focused on analyzing the historical transition(changes) of the US ideologies and studying how the US culture has evolved to Multiculturalism, as a result of diversified immigration.

Multiculturalism means the acceptance of differences of various races, religions, cultures, ethical backgrounds and sexes. Multiculturalism always existed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was not expressed due to societies mainstreams (White Anglo-Saxon Protestants) depressing the acceptance. Furthermore, it implies all related activities to achieve this goal.

Initially, Americans did not feel that it was necessary for cultures to meld because they occupied different geographical locations (based on their national origins) and maintained different type of states (based on their cultures). However, the Revolutionary War, French Indian War (fighting with native Americans) and the movement to the frontier (expansion), fostered a sense of unity and nationality. Until WWII, the white Anglo-Saxon Protestants (WASP) led the society. Their belief of Manifest Destiny, gave them a sense of superiority towards other ethnic groups. This caused cultural conflicts with the new immigration groups.

Order of the Star Spangled Banner and the Know-nothing Party

(American Party) as a part of the nativist group, was opposed to Irish and German new immigration. This movement paused due to the Civil War, which was dangerous to national spirit. After the Civil War, an economic revival caused a flood of the US with immigrating south Eastern Europeans. The nativist resistance continue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American Protective Association (APA) and the Klu Klux Klan (KKK) supported by intelligence groups, led anti-catholic and anti-immigration movements. However, it was not successful due to the arrival of too many immigrants over a short period.

After the Spanish American War, the US converted from Isolationism to Internationalism, and expanded towards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the Pacific. During this time, middle class Americans did not support the anti-immigration movement. They created the concept of the melting pot. Based on the WASP cultural background, the immigrants incorporated various minor cultures to create an idealistic American. This concept was developed based on a fear that US society would be divided into many segments. However, this concept was oriented towards white European immigration, not towards the colored races.

During WWI, there were a number of riots as a result of German immigration and the rising status of African Americans. In the 1920s, the conservative movement reemerged. Consequently, they made anti-immigration laws (Emergency Immigration Acts) directed towards Southeastern Europeans. However, these laws caused the Central and South Americans to immigrate to the US. In 1929, the Great Depression (a national crisis) and aftermath of WWI, the nativist resistance disappeared. Religious and cultural prejudice, and racial differences between whites were no longer meaningful. The African-Americans self-consciousness was enhanced due to the Harlem Renaissance and Marcus Garvey. The Daws Severaly Act was eliminated, and new the new Indian Reorganization Act was approved in 1934 by President

Roosevelt, which changed the melting pot policy to pluralism. However, the US attitude and treatment towards oriental races was different. In 1882, Chinese laborers were not permitted to immigrate and there was a shift towards the Japanese. During 1906 the San Francisco Earthquake, caused an anti-Asian emotion to arise. Due to the Pearl Harbor attack, the Japanese Americans were separated and moved to detention camps.

After WWII, the US became a world super power. During the war, the white Americans protected the ideology of liberalism. They shared the same nationality regardless of religion, ethic and cultural background.

In the 1960s,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Kennedy, and the Black movement and commitment to the Vietnam War, caused the Americans to reevaluate their ideology. Thru the cultural conflicts between minor immigrant groups and nativists, and racial prejudice towards blacks and colored races, the young American generations consciously identified the differences of American ideology between what they learned in school and reality. From the anti-cultural movement, which initiated from the criticism toward US capitalism, US scientism, and US egotism, a new recognition of sexual and racial class conflicts arose. From these facts, they questioned the melting pot cultural concept, which focused on unification of American culture. Consequently, the study of minor racial groups (including native and African Americans), and ethnics, and females and labor classes was initiated.